언론사: 세계일보-1-1.txt

제목: [권오길의생물의신비] 겨울과 굴  
날짜: 20171228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8233637002  
ID: 01100701.20171228233637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겨울철 대표 식품인 굴의 계절이다. 음식이 제철을 맞았다는 말은 맛, 영양, 신선도 등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 <br/> <br/>인류의 등장은 굴과 궤를 같이한다. 부산 동삼동과 안산 오이도 등 해안가 조개무지(패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굴 껍데기로, 이는 선사시대부터 굴을 먹었다는 방증이다. <br/> <br/>굴은 껍데기가 둘인 이매패(二枚貝)다. 두 개의 껍데기 중 왼쪽 껍데기(좌각)로 바위 등에 붙어 살며, 오른쪽 껍데기(우각)는 여닫이 역할을 하는데 작고 볼록하다. 굴은 굴조개, 석굴 따위로 부르는데, 멀리서 보면 짝(우각)을 잃은 뽀얀 좌각 자국이 거무스레한 너럭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마치 ‘돌에 핀 꽃’같다 하여 석화라고도 한다. <br/> <br/>우리나라 굴 양식은 1897년 북한 원산만 부근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며, 죽은 굴 껍데기를 올망졸망 줄에 꿰어 물밑에다 드리워놓아 키우는 남해안의 ‘수하식(垂下式)’과 널따란 서해안 갯벌에다 넓적한 돌을 적당한 간격으로 던져놓는 ‘투석식(投石式)’, 또 그물 보자기에 새끼 굴을 넣고 평상 같은 곳에 올려놓아 키우는 ‘수평망식(水平網式)’이 있다. <br/> <br/>굴은 탱탱한 식감과 신선한 바다 향이 일품일 뿐만 아이라 영양소가 고루 듬뿍 들어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굴을 ‘바다의 우유’라 하며 강장제로 여겨왔다. 굴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요한 아연은 물론 셀레늄·철분·칼슘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A·B12·D가 많이 들어 있다. 게다가 굴은 고혈압·뇌졸중·동맥경화·간장병·암 같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으뜸 식품이기도 하다. 굴은 주로 생회로 먹지만, 익혀 요리하는 굴 밥·굴 부침개·굴 국· 굴 구이·굴 튀김 등도 별미다. 굴은 속살이 물렁물렁해 치아가 나쁜 노인도 먹기에 좋다. <br/> <br/>코끝이 시려 오는 겨울이다. 영양만점인 굴을 잘 섭취해 새해를 건강하게 맞으면 어떨까. <br/> <br/>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

언론사: 세계일보-1-2.txt

제목: 간암 치료제 개발에 한발…포스텍 연구팀 암세포 조절인자 발견  
날짜: 20171228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8140938001  
ID: 01100701.2017122814093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왼쪽) 이윤태 교수, (오른쪽) 김상욱 교수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진행성 간암 조절 인자를 발견했다. <br/> <br/>포스텍은 생명과학과 이윤태·김상욱 교수팀이 간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CIC라는 조절인자 발현량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CIC 발현량이 줄어들면 간암 세포 증식이 증가하고 암 진행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간 분야 권위지인 ‘헤파톨로지’를 통해 발표했다. <br/> <br/>이 원리를 활용하면 간암 치료제를 개발할 길이 열릴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 <br/>연구팀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CIC 발현량이 줄면 간암 세포 증식이 1.5∼2배 가량 증가해 암 진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br/>간암 초기만 해도 CIC가 적당량 분포했으나 간암이 진행하면서 CIC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br/> <br/>CIC 하위 조절요소인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할수록 간암 환자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도 발견했다. <br/> <br/>연구를 주도한 이윤태 교수는 “<span class='quot0'>CIC가 새로운 간암 지표 인자로서, 간암 표적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txt

제목: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 만들어 판 치과의사, 동료 의사 돈 28억도 등쳐  
날짜: 2017122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7181445004  
ID: 01100701.20171227181445004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무허가 임플란트(인공 치아) 11만개를 만들어 팔거나 직접 시술한 치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br/> <br/>50대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업체 투자 미끼로 동료 치과의사들로부터 2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br/> <br/>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모치과 원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br/> <br/>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제조 허가없이 임시용 등으로만 허가받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일반용으로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직접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 175건을 허위로 꾸민 혐의도 있다. <br/> <br/>또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3월까지 치과 개원의 10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업체에 투자하거나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2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br/> <br/>A씨는 자신이 개발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술 인 ‘투바디(분리형)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거 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라는 이유로 징계 의결됐다. <br/> <br/>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면허 자격정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txt

제목: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 시중 유통' 유명 치과의사 구속기소  
날짜: 20171227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7165157001  
ID: 01100701.20171227165157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 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제조 허가도 받지 않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만든 뒤 ‘일반용’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의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한 치과의사가 철창 한에 갇힌 신세가 됐다. <br/> <br/>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27일 S치과 원장이자 M임플란트 대표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 H(52)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H씨의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등에 적극 가담한 제조업체 임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br/> <br/>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span class='quot0'>금융기관에서 할부 대출을 받아 M임플란트에 투자하거나 프랜차이즈로 가입하면 회사 지분 제공, 월매출 보장은 물론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겠다</span>”고 속여 치과 개원의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8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H씨는 올해 들어 5∼8월 의료기기 제조 공정에 관한 필수 작성·비치 의무 서류 175건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인정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검찰은 지난해 11월 H씨의 임플란트 투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H씨의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유통 등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9월부터는 이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br/> <br/>검찰 조사 결과 H씨는 임플란트 사업 과정에서 자금난에 처하자 수도권이나 대구·경북지역에서 강연회 형식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M임플란트를 홍보하며 매출 보장 등 가짜 조건을 내세워 치과 개원의들로부터 투자 또는 프랜차이즈 가입을 유치하는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H씨가 만든 임플란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란 점이다. <br/> <br/>수사팀은 “H씨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개발 제품에 대해 허가 취득이 용이한 ‘임시용’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 허가를 받아 이를 일반용으로 제조·유통했다”며 “심지어 생산 과정에서 허가가 누락된 품목이 발견되자 허가를 받은 다른 품목으로 포장,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했다”고 전했다. H씨가 이런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부적합 임플란트는 무려 11만개에 달하며 전국 치과병원 125곳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H씨는 자신이 개발한 이른바 ‘원바디’ 임플란트 홍보를 위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투바디’ 임플란트에 대해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거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br/> <br/>검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고령화 추세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고 국내외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무허가 임플란트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식약처에 통보해 무허가 임플란트의 수거 및 사용 금지를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txt

제목: 시동 걸린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역할 변화 예고  
날짜: 20171226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6211707001  
ID: 01100701.20171226211707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올해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는 등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됐다. 많은 사람이 가입해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향후 보험료가 변동되고 역할도 재정립될 전망이다. 여러 변화 가운데 보험소비자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내년 보험 재테크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br/> <br/>◆‘문재인 케어’ 시행… 실손보험 변화 예고 <br/> <br/>지난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내놓았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개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br/> <br/>이에 따라 가입자가 약 3400만명으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로 적자가 쌓이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됐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폭이 넓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년부터 2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꿔 인상폭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연간 35%까지 올릴 수 있었다. <br/> <br/>보다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상품이 공보험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br/> <br/>한편 이에 앞선 4월 정부는 실손보험료를 일부 내린 ‘착한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이 보험으로 갈아탄 사람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0.1%도 안 될 정도로 외면을 받았다. 기본보험료가 다소 낮아진 대신 자기부담금이 높고, 특약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는 등 딱히 기존 실손보험을 대체할 만한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br/>◆건강관리(헬스케어)보험 본격 출발 <br/> <br/>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월 마련함에 따라 건강관리보험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걸음 측정 앱으로 측정해 하루 1만보씩 일정 기간 꾸준히 걷거나 금연에 성공했을 때, 예방접종을 할 때 등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현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기초서류 작성기준 등 현행법 적용기준이 모호해 상품 출시가 거의 막혀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서 보험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돌려받고 이를 보험가입 때 충분히 설명받도록 했다. 특히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유병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서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향후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br/> <br/>◆유병자보험 확대… 내년 다양한 상품 출시 <br/> <br/>올해는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이 많이 나왔다. 유병자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우려해 꺼리는 보험이었다. 올해 출시된 유병자보험은 주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주를 이룬다. KB손해보험은 당뇨 합병증까지 보장해 주는 당뇨전문보험 ‘KB당뇨케어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전화심사로 가입을 판단할 수 있는 질병군에 당뇨병을 포함시켰다. <br/> <br/>유병자보험은 내년에 더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유병자보험 개발 등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내년 4월부터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2년 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예정이다.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5년간 치료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br/> <br/>◆치료비 더해 생활비 주는 보험 인기 <br/> <br/>유병장수시대를 맞아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 암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돼 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치명적으로 간주됐던 암 등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히 치료비 외에 생활비까지 보장받아 여유 있게 질병 치료를 하려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br/> <br/>생활비 지급형 보험상품은 목돈을 한번에 받는 대신 생활비로 쪼개 받을 경우 생존 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대체로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조기 사망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은 큰 병에 걸려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월 소득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전’ 목적이 크다. 당장 목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생활비보다는 진단금이 큰 보험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br/> <br/>◆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료 인하 <br/> <br/>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3% 내린 데 이어 8월에도 1.6% 인하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8월 평균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0%, 1.5%씩 내렸다. 이들 대형 보험사 외에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도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br/> <br/>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외제차 사고 시 렌트비 과잉지급, 과잉수리가 제도개선에 힘입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도 적어 대형사고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 덕분에 올해 손보업계는 사상 최대 순익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br/> <br/>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이후 겨울철 사고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며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br/> <br/>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txt

제목: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年 2000만원까지 지원  
날짜: 20171226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6204226001  
ID: 01100701.201712262042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6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지원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br/> <br/>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br/> <br/>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실시된다. 재난적의료비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말한다. <br/> <br/>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등 대상 질환을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는 월 285만원, 4인 가구는 월 452만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br/> <br/>연소득의 2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본인부담액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요양병원 비용과 효과성이 낮고 대체치료법이 있는 고가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br/> <br/>2000만원이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질환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긴급의료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지원을 받거나 민간보험의 보장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재난적의료비 본사업의 지원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7.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상급종합병원 더 많은 진료비 내야…이대목동병원은?  
날짜: 2017122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6050208001  
ID: 01100701.201712260502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를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대목동병원은 2012년 상급종합으로 처음 지정돼 한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 8∼9월 이대목동병원은 3년 더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br/> <br/>이번에 상급종합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모두 51곳인데,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대목동병원은 재지정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 대한 잠정 평가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의 재지정을 보류하고, 경찰 수사 등이 끝난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br/> <br/>전문가들은 이런 병원을 '상급종합'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숙아 중환자실에서 세균 감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대목동병원은 대형 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될 수 있을까. <br/> <br/>아직 신생아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액이나 주사제 등을 통한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등급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br/> <br/>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br/> <br/>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에 한번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으로 병원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다. <br/> <br/>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br/> <br/>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혜택이 많다. 무엇보다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br/> <br/>◆이대목동병원에 '상급종합' 지위 부여 적절치 않다는 의견 多 <br/> <br/>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등에 그친다. <br/> <br/>선도 의료기관이란 이미지로 환자들이 몰린다. 대형병원들이 너나없이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며 사활을 거는 까닭이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했다. <br/> <br/>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총 43곳으로 유명 대학병원은 모두 들어 있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이번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지정받기 위해 복지부의 선정일정에 맞춰 지난 7월 신청서를 내고, 8∼9월에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신청 의료기관(51곳) 가운데 상당히 괜찮은 점수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받을 게 확실시됐다. <br/> <br/>◆'총체적 난국' 이대목동병원 현장조사 등 평가 다시 해야 <br/> <br/>하지만 지난 7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판정, 지난 9월 벌레 수액에 이어 이번에 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며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br/> <br/>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평가 잠정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의료계 일각에서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에 이대목동병원이 탈락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br/> <br/> 실제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보류하고, 경찰 수사결과가 마무리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경찰 조사결과 신생아 사인이 병원측 과실로 드러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가 어려운 데다, 환자들의 내원 기피까지 더해질 공산이 커 향후 병원 운영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앞서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연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1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사실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했다. <br/> <br/>이는 신생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로타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병원이 격리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로타바이러스가 감염자의 환자의 변이나 구토물로 인해 오염된 손, 물 등을 옮겨진다는 점에서 병원의 위생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txt

제목: [일상톡톡 플러스] 암 사망률 낮고,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대한민국  
날짜: 201712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5170308001  
ID: 01100701.20171225170308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A씨는 "우리나라는 도로 위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라며 "지금보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면 속칭 개, 돼지 같은 운전자들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B씨는 "운전자들의 매너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길 잘 만들어놓고 60km로 속도 제한하여 비생산적인 서행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속도 낮춘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br/> <br/>C씨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속도는 무제한이지만, 사고율은 매우 낮다. 과속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면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 예비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br/> <br/>D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평생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한 사람은 습관처럼 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br/> <br/>E씨는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성숙한 운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은 보행자가 길 위에 서있으면 사람이 먼저인 반면,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있어도 차가 이를 비집고 지나간다"고 말했다. 암은 여전히 한국인 사망원인 1위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br/> <br/>25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국내 사망자 28만827명 가운데 원인이 암이었던 이들은 7만81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사망자 10명 중 3명이 암 때문에 사망한 셈이다. <br/> <br/>◆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 전세계적으로 최하위권 <br/> <br/>하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암 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br/> <br/>OECD 표준인구로 변환한 한국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지난해 165.2명이었다. <br/> <br/>한국의 암 사망률은 2012년 183.3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3년 178.9명, 2014년 175.0명, 2015년 168.4명에 이어 작년 160명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br/> <br/>국가별로 집계 시점이 다르지만 가장 최신 자료로 보면,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비교대상 34개국 중 멕시코(2014년 114.6명) 뿐이었다. <br/> <br/> 일본(2014년 176.6명), 프랑스(2013년 196.3명), 캐나다(2012년 207.3명), 이탈리아(2012년 205.4명), 독일(2014년 200.9명), 영국(2013년 221.9명), 미국(2014년 187.8명) 등 주요 7개국 국가 모두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높았다. <br/> <br/>통계청은 "<span class='quot0'>의무 건강검진이 확대되고 진단이 잘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치사율이 낮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암 정책도 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pan>"고 분석했다. <br/> <br/>◆韓 교통사고 사망률 높다? 낮다? <br/> <br/>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br/> <br/>작년 OECD 기준 변환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명을 기록했다. <br/> <br/>한국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2014년 15.7명), 칠레(2014년 12.3명), 미국(2014년 12.0명), 라트비아(2014년 11.9명), 터키(2013년 10.3명) 뿐이었다. <br/> <br/>영국(2013년 2.8명), 스웨덴(2015년 3.1명), 일본(2014년 3.7명)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은 안전한 국가였다. <br/> <br/>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많이 개선된 수치다.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5년 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br/> <br/>1998년 처음으로 30명대(33명)를 기록했고, 2001년에는 20명대(27.4명)로 내려왔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10명대(19.9명)로 줄었다. 이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3.9명→12.6명→11.6명→11.1명까지 감소했다. 21년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br/> <br/>통계청은 "<span class='quot0'>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시점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span>"고 평가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txt

제목: “레전드급 록밴드 ‘부활’의 탄생은 매니저 형님 덕분”  
날짜: 2017122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3040252002  
ID: 01100701.20171223040252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레전드급 ‘부활’의 탄생은 순전히 백강기 감독 형님 덕분이지요. 백 감독이 김태원을 발굴했고 부활이 결성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담담하게 써 내려갑니다. 평범하지 않은 매니저의 삶을 아름답고 자전적으로 쓴 책이지요.” <br/> <br/>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왼쪽)과 매니저 백강기 감독.전설적인 록밴드 ‘부활’을 이끌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태원은 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찻집에서 밴드 매니저 백 감독과 만나 이같이 칭송했다. 김태원과 ‘나는 매니저다’의 저자 백 감독은 팬들과 만나 ‘북토크쇼’를 열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북토크쇼는 책의 실제 주인공과 저자가 팬들과 만나 그에 얽힌 담론을 펼치는 시간이다. 2시간여에 걸친 북토크쇼는 작지만 열띤 시간이었다. <br/> <br/>“1985년 그 엄혹한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밴드 팀이 조그만 카페에서 연주 중이었다.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도 있었다. 언더그라운드의 조그만 물줄기가 부활이라는 강줄기를 만들었고, 당시 젊은 음악인을 이끄는 생명력이 되었다.” <br/> <br/>검은 선글라스 너머의 번뜩이는 눈빛이 보일 것 같은 김태원은 유려한 말솜씨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백 감독은 “김태원이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후배이다.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하는 몇 안 되는 뮤지션으로, 태원이를 모르는 이가 없다”고 치켜세웠다. <br/> <br/>백 감독은 “절망하고 가난했고 힘겨워할 때 시절을 노래로 달랬다. 음악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절실한 삶의 에너지였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br/> <br/>두 사람은 최근 아이돌 멤버의 사망에 대해서도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br/> <br/>“슈퍼스타는 슈퍼맨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늘 외롭고 늘 홀로라는 생각에 우울하다. 이게 문제다. 우울이나 조울증은 암 같은 질병이다. 앨범 발표나 콘서트는 우울을 이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창작이 된다.” <br/> <br/>두 사람은 “결국은 팬들의 사랑이다. 악플러도 뒤집어보면 사랑인데 악플러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txt

제목: 가슴이 불타는 듯… 속쓰림 치료법은  
날짜: 20171222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2030508001  
ID: 01100701.20171222030508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21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암의 씨앗이 되는 속 쓰림의 원인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br/> <br/>바쁜 탓에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을 하고, 야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 속 쓰림과 소화 불량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가슴 속에 불이 나는 것 같다는 속 쓰림은 위식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283만6188명이었던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지난해에는 416만5789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흔한 증상인 만큼 많은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br/> <br/>하지만 속이 쓰리다는 것은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염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질병이 더 악화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1.txt

제목: 암 발생 주는데… 유방암만 지속 증가, 원인은  
날짜: 20171221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1183508001  
ID: 01100701.2017122118350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등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암의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유방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학계에서는 만혼과 출산 기피, 모유수유율 저하 등에 따른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br/> <br/>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1만1701명으로 전년보다 1.9%(4253명) 감소했다. 암 발생자 수는 1999년 이후 계속 늘다가 2012년부터 연평균 6.1%씩 줄어들었다.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던 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다. <br/> <br/> <br/> <br/>우리나라는 원전사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가 세계 평균의 10배에 달했다. 이에 갑상선암 과잉진단 문제가 불거졌고 논의 끝에 보건당국에서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지 않는 한 검진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진자가 줄어들었다. <br/> <br/>국가에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5대 암에 속하는 위암과 대장암, 간암도 검진체계 덕분에 발생자 수가 감소했다. 용종이 암으로 악화하기 전에 발견·제거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5년 발생자 수 1위는 위암(2만9207명)이었고 대장암(2만6790명), 갑상선암(2만5029명), 폐암(2만4267명), 유방암(1만92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유방암은 2007년 이후 연평균 4.0%씩 환자가 늘었다. 다른 암들이 국가 암 검진 항목에 포함된 이후 줄어든 것과 달리 지속적인 관찰·관리에도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학계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증가 이유에 대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안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등의 요인이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2.txt

제목: 포스텍 김원종 교수팀, 나노머신 이용해 삼중복합 항암치료제 개발  
날짜: 20171221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1162418001  
ID: 01100701.2017122116241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이 나노머신을 이용해 삼중복합 항암치료제를 개발했다. <br/> <br/>21일 포스텍에 따르면 김원종 교수팀이 몸 속 여러 자극에 따라 치료제가 알아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목적에 맞게 방출되도록 설계된 나노머신을 개발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어 삼중음성 유방암에 효과적인 복합치료가 가능해졌다. 이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 온라인판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소개됐다. <br/> <br/>우리나라 여성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유방암은 조기 검진이 확대되고 치료법이 다양해 생존율이 높은 암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중음성 유방암은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으로 손꼽힌다. <br/> <br/>암은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항암제만 투여하는 치료법 대신 여러 가지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복합항암치료 방법이 사용된다. <br/> <br/>그러나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이 심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치료 효율은 높인 복합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항암치료 외엔 호르몬치료나 표적치료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합치료제 개발이 꼭 필요하다. <br/> <br/>연구팀은 항암제, 열, 활성산소종을 이용한 세 가지 치료가 한 번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나노머신을 개발했다. <br/> <br/>나노머신은 10억 분의 1ｍ에 불과한 나노 구조로, 금나노입자에 특수한 DNA 이중나선이 결합해 이뤄져 있다. <br/> <br/>DNA 이중나선 사이사이에 항암제가 들어가 있다가 나노머신이 암세포내의 산성 환경에 놓이게 되면 DNA 이중나선이 풀리면서 항암제가 방출되는 1차 공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수한 DNA 구조에 의해 나노머신이 암세포 내에서 뭉치게 되며 외부에서 빛을 조사하면 열을 발생시켜 열에 약한 암에 2차 공격을 실시한다. 또 이 빛을 받으면 미리 담지되어 있던 특수한 파장에만 반응하는 광감제로부터 암세포에 치명상을 입히는 활성산소종이 발생해 3차 공격도 이뤄지게 된다. 마치 각자의 능력으로 연합해서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처럼 나노머신 하나로 우리 몸은 항암제와 열, 활성산소종, 세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암세포 사멸을 돕는다. <br/> <br/>이 방법은 항암치료에만 의존해야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됐다. 나노머신을 활용해 삼중 복합치료를 한 결과, 단순하게 항암제와 광감제를 함께 주입해 치료했을 때에 비해 암의 성장을 2.6배 더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하나의 나노머신을 이용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백혈병 여동생에 골수 기증한 오빠…8년 만에 갚은 우애  
날짜: 2017122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1130326001  
ID: 01100701.20171221130326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과거 여동생의 골수 기증 덕분에 목숨을 건진 중국의 한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거꾸로 병에 걸린 여동생을 위해 자기 골수를 흔쾌히 내놓은 훈훈한 사연이 공개됐다. <br/> <br/>다행히 여성은 건강을 되찾고 있으며 좀 더 경과를 살펴본 뒤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지난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왕링(52)씨는 올 5월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는 혈액 및 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br/> <br/>유일한 해결책은 골수이식이었다. 다행히 조직검사를 한 결과 왕씨의 오빠인 왕장(55)씨의 골수가 99%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같은 사실을 안 왕씨는 여동생을 위해 흔쾌히 수술대에 올랐다. <br/> <br/>오빠 왕씨는 2009년 정상인보다 적혈구 수치가 낮은 무력성빈혈(aplastic anaemia) 증세를 나타내 여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은 경험이 있다. <br/> <br/>다행히 암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두었다가는 백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왕씨는 급히 여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았다. <br/> <br/>건강을 되찾은 왕씨가 이번에는 여동생에게 은혜를 갚은 셈이다. <br/> <br/>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br/> <br/>최근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수술을 잘 견뎌낸 왕씨는 향후 몇 주간 병원에 더 머물면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br/> <br/>왕씨는 수술받기 전 담당의사에게 오빠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txt

제목: 암 5년 생존율 70.7%까지 높아져…죽을 때까지 3명 중 1명 암에 노출  
날짜: 2017122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1112920001  
ID: 01100701.2017122111292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국민 3명 중 1명이 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1명 중 1명이 암유병자이며 65세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br/> <br/>하지만 이른바 완치라고 보는 암 5년이상 생존율이 70.7%까지 높아져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는 조기 검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br/> <br/>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으로 전년보다 4천253명(1.9%) 감소했다. <br/> <br/>◇ 2015년 암 5년 생존율 70.7%…10년전보다 16.7%포인트 상승 <br/> <br/>최근 5년간(2011~2015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암생존율)은 70.7%로 나타났다. 암생존율은 2014년 70.3%로 처음으로 70% 선을 돌파한 바 있다. <br/> <br/>10년 전인 2001~2005년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6.7%포인트나 높아졌다.  <br/> <br/>암생존율은 1993∼1995년 41.2%에서 1996∼2000년 44.0%, 2001∼2005년 54.0%, 2006∼2010년 65.2%, 2011~2015년 70.7% 등으로 꾸준히 향상됐다. <br/> <br/> <br/>◇ 갑상선암 생존율은 100.3%, 췌장암은 10.8%에 그쳐 <br/> <br/>암 종별 생존율을 보면 갑상선암이 00.3%로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94.1%), 유방암(92.3%) 등도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br/> <br/>반면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br/> <br/>갑상선암의 생존율이 100%가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br/> <br/>암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교통사고나 심·뇌혈관 질환 등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해서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로 암 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일반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로 나눠 계산한다. <br/> <br/>성별 암생존율은 여자(78.4%)가 남자(62.8%)보다 높았다. 여성에서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br/> <br/>◇ 전립선암, 간암, 대장암 등 5년 생존율 크게 상승 <br/> <br/>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1995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 암의 5년 생존율이 증가했다. 특히 전립선암(38.2%p), 위암(32.6%p), 간암(22.9%p), 대장암(21.5%p)의 5년 생존율이 크게 올라갔다. <br/> <br/>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1~2015년 5년 생존율은 각각 75.4%, 76.3%, 33.6%, 79.9% 등으로, 미국(2007~2013년)의 31.1%, 66.3%, 18.5%, 68.8% 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br/> <br/>◇ 국민 31명당 1명 암 경험…65세 이상 노인 10명당 1명 암유병자 <br/> <br/>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암 유병자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총 161만1487명(남자 70만7977명, 여자 90만3510명)이었다. <br/> <br/>2015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5095만1727명)의 3.2%(남자 2.8%, 여자 3.5%)로 인구 31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br/> <br/>65세 이상 노인 암유병자는 68만1909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655만2529명)의 10.4%(남자 13.8%, 여자 8.0%)에 달했다. <br/> <br/>이 중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79만6427명(전체 암유병자의 49.4%),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 환자는 46만2639명(전체 암유병자의 28.7%),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 환자는 35만2421명(전체 암유병자의 21.9%) 등이었다. <br/> <br/>◇ 사망원인 1위는 암, 평균수명 누릴 경우 암에 걸릴 확률 35.3%나 <br/> <br/>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 추정됐다. <br/> <br/>남자(79세)는 5명 중 2명(37.9%),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2.0%)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 갑상선→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순으로 유병자 많아 <br/> <br/>암종별로는 남녀를 통틀어 갑상선암(35만5057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2.0%로 가장 많았다. <br/> <br/>이어 위암(25만6995명), 대장암(22만653명), 유방암(17만9081명), 폐암(6만9931명), 전립선암(6만9438명) 순이었다. <br/> <br/>남녀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이었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br/> <br/>◇ 암 발병률 낮아져, 갑상선 과잉진단 줄어든 때문 <br/> <br/>연령표준화(2000년 주민등록인구 비율 기준)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75.8명으로 2011년 325.4명, 2012년 324.0명, 2013년 315.1명, 2014년 291.5명에 이어 4년 내리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암발생률은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다. <br/> <br/>갑상선암 발생자 수가 전년보다 19.5%(6050명) 감소해 암발생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br/> <br/>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발생순위 1위였던 갑상선암은 초음파 검진의 확대로 암 확진이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다지 필요치 않은 갑상선암까지 검사한다'는 과잉진단 논란이 제기되면서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br/> <br/>위암과 대장암도 각각 2.7%, 1.6% 줄었다. 반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은 각각 4.3%, 3.5%, 5.7% 증가했다. <br/> <br/>◇ 암 중 사망원인 1위 폐암, 국가검진 준비 <br/> <br/>정부는 암유병자 160만명 시대를 맞아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검진을 준비 중이다. <br/> <br/>우선 올해와 내년 만55∼74세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2019년부터 본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txt

제목: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젊은 두 엄마  
날짜: 20171220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0190412001  
ID: 01100701.2017122019041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21일 오후 9시40분 KBS1 ‘KBS 스페셜-앎’(사진)에서는 암 4기 젊은 두 엄마의 투병기를 다룬다. <br/> <br/>언어치료사인 배남주(37·여)씨와 중학교 음악교사인 김정화(39·여)씨는 인터넷 암환우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를 통해 서로 알게 됐다. 배씨는 자궁경부암 4기, 김씨는 대장암 4기다. 두 사람은 암 4기 투병의 고통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책임을 서로 공감하면서 친해졌다. <br/> <br/>삶에 대한 희망을 갖기에 그들의 병은 너무 깊다. 하지만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책임져야 할 ‘엄마’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br/> <br/>두 엄마는 아이를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다. 이날 방송은 두 엄마의 마지막 1년의 기록이다.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삶의 끝자락에서 꽃피운 깨달음이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6.txt

제목: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71220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20163431001  
ID: 01100701.2017122016343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와 고막 절개술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21∼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 또는 예비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br/> <br/>복지부는 남용 가능성이 작은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 항목에 대해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br/> <br/>복지부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23개 항목은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이 90%인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궤양, 조기위암절제술 등 일부 적응증에 제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었다. 예비급여에 포함되면 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의 시행에 대해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br/> <br/>정부는 남아 있는 4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계획이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txt

제목: “암 투병하며 아픔도 축복 기회임을 깨달아”  
날짜: 20171219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9204632002  
ID: 01100701.20171219204632002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9년간 암 투병을 하면서 그전에 쓰지 않았던 ‘기쁨’ ‘행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때 아픔도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br/> <br/> <br/> 이해인 수녀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성 분도 은혜의 뜰에서 열린 산문집 ‘기다리는 행복’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연합뉴스새해가 되면 수도서원 50주년을 맞는 이해인(72) 수녀가 수도원에서 보낸 반세기를 돌아보며 정리한 산문집 ‘기다리는 행복’을 출간했다. 책에는 이해인 수녀가 첫 서원 뒤 1년 동안 쓴 단상들이 실렸다. 이해인 수녀는 19일 서울 용산구 성 분도 은혜의 뜰에서 출간기념 간담회를 열고 “<span class='quot0'>처음 시작할 때 두렵고 막연하던 것이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느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듯한 뿌듯한 안정감 같은 게 있다</span>”고 했다. <br/> <br/>‘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의 제목은 이해인 수녀가 1979년 펴낸 시집 ‘내혼에 불을 놓아’의 마지막 시의 이름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신학생 중 한 명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얘기를 해줬다</span>”며 “<span class='quot0'>누군가의 20대를 지켜준 시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 산문집 제목으로 정했다</span>”고 했다. <br/> <br/> <br/>이해인 수녀는 지난 50년간의 삶에 대해 “<span class='quot0'>아무리 힘들어도 초심을 놓지 않으려고 인내했던 노력이 오늘날까지 오게 한 것 같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제는 초심이 젊음에서 오는 열정에 비해 덜하지만, 연륜에서 쌓이는 지혜가 더해진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들면서 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해인 수녀는 2008년부터 9년간 암 투병을 겪었다. 그는 “<span class='quot0'>항암주사를 맞을 때마다 배에 덮었던 분홍타월이 기억난다</span>”며 “<span class='quot0'>투병이 끝나고 보니, 비록 사물일 뿐이지만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해준 동료의식이 느껴져 눈물이 흘렀다</span>”고 했다. 이어 “투병생활 중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잘 투병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때로는 아픔도 기쁨과 행복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아픔이 많았던 한국 사회에 대해 “나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삶 자체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스스로에게 갇혀버린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이 확립된다면,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txt

제목: SNS서 유행하는 황당한 도전 '팔꿈치 펴고 음료수 마시기'  
날짜: 20171219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9105130001  
ID: 01100701.20171219105130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오렌지 주스로 스트레이트 암 첼린지를 하는 도전자. 출처=데일리메일 <br/>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팔꿈치를 펴고 음료수를 마시는 황당한 도전이 유행하고 있다. <br/> <br/>영국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는 팔을 펴고 음료수 마시기에 도전하는 일명 ‘스트레이트 암 챌린지(Straight Arm Challenge)’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br/> <br/>영상 속 도전자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병에 담긴 음료수를 입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br/> <br/> <br/> <br/> <br/>대부분은 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음료수를 90도 아래로 내려 입쪽으로 조준해 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음료수가 얼굴로 쏟아지는 장면이 연출돼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br/> <br/>누리꾼들은 우유, 탄산음료, 오렌지주스 등 다양한 음료로 도전에 나사고 있다. 유튜버 크리스틴 핸비와 그 여자 친구는  구강세척제를 이용해 ‘스트레이트 암 챌린지’에 나서 2200만의 영상 조회 수를 올렸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9.txt

제목: 고령화 사회, 질병 비용 '눈덩이'…10년새 2배로 증가  
날짜: 20171218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8213012001  
ID: 01100701.201712182130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해 부담하는 질병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중장년층의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1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에 따른 국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82조4630억원에서 2015년 148조2514억원으로 10년간 1.8배 늘어났다. <br/> <br/>이 중 외래·입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이 2015년 기준 75조8479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51.2%를 차지했다. 간병비(8조2436억원)와 교통비(4조7513억원)를 합한 직접 손실액은 88조8429억원이었다. <br/> <br/>여기에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33조4395억원)과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25조9688억원)을 더하면 아픈 국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48조원대로 불어났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과 국민이 아픈 만큼 잃게 되는 사회 전체의 잠재적 생산성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br/> <br/>문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자와 관련 비용이 늘게 되는데 지난 10년간 이런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앞으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비용 부담과 건보 재정 악화, 사회 활력 저하 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br/> <br/>지난 10년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율은 대체로 커졌다. 연령대별로 연평균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80대 이상(21.2%)이었고 70대(12.5%), 50대(8.9%), 60대(8.1%), 40대(3.6%) 등의 순이었다.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 세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65세 미만(5.3%)의 2배 이상이었다. 손실액 규모가 가장 큰 세대는 50대(23.3%)였고 다음은 40대(18.1%), 60대(14.7%), 70대(11.8%) 등이었다. <br/> <br/>질환별로는 암(악성신생물)으로 인한 손실액(16조6819억원)이 가장 컸고 뇌혈관질환(6조9283억원), 자살(6조4480억원), 심장질환(4조8316억원), 고혈압(4조391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상위 질병군을 보면 고혈압으로 인한 손실액(4조993억원)이 가장 많았고 만성신장병(3조114억원), 알츠하이머성 치매(2조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노인성질환 중에서는 치매(28.0%), 파킨슨병(23.3%), 알츠하이머병(13.5%) 등과 같은 퇴행성질환의 연평균 손실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아직 고령인구에 진입하지 않은 50대의 비용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온 만큼 이들이 고령인구에 편입될 때의 사회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에 대한 사전관리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연령 확대 등 노인 전 단계부터 맞춤형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퇴행성질환의 예방대책 및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20.txt

제목: 가족의 이름으로… 암과 사투하는 父子  
날짜: 20171218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8212938002  
ID: 01100701.20171218212938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19일 오후 11시35분 EBS1 ‘메디컬 다큐-7요일’(사진)에서는 암과 사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br/> <br/>박세원씨는 27살, 누구보다 꽃다운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12차례의 항암치료를 거쳐 건강을 되찾은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암이 복막까지 전이됐다는 말을 듣게 된다. 슬픈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건 박씨뿐만이 아니었다. 박씨 아버지 역시 지난해 가을부터 전립선 말기암으로 이미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다. 연이은 가족들의 암투병에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으로 버티고 있다. <br/> <br/>혼신의 힘을 다해 병간호하는 어머니, 말기암인 것을 알고도 아들의 완치만 바라는 아버지, 부모님을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아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박씨네 이야기를 들어본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21.txt

제목: "자폐 아들이 수영대회서 탄 상금, 어려운 이웃 도와주세요"  
날짜: 20171218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8212858002  
ID: 01100701.20171218212858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이들이 수영을 하며 올해 처음으로 받은 장학금이랑 상금을 모은 돈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곳에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r/> <br/>익명의 40대 여성이 지난 15일 낮 2시 청주 봉명2·송정동 주민센터를 찾아 봉투를 건넨 뒤 발길을 돌렸다. <br/> <br/>이 봉투에는 1만원짜리 36장과 편지지 1장이 동봉돼 있었다. <br/> <br/>봉투를 받은 직원은 이름이라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 여성은 한사코 거절하며 주민센터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br/> <br/>편지지에 적힌 사연은 절절했다. <br/> <br/>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이고, 자녀는 자폐 장애 아동이라고 한다. <br/> <br/>"<span class='quot0'>저희 아이는 자폐 2급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span>"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span class='quot0'>일일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참으로 고마우신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녀석이 다행히 수영에 재능이 있어 지금은 선수로 맹연습 중인데, 봉투 속 금액은 아이가 수영을 하며 올해 처음으로 받은 장학금이랑 상금을 모은 돈"이라고 밝혔다. <br/> <br/>그러면서 "처음으로 수영을 통해 받은 돈이라 뜻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다. <br/> <br/>이 여성은 편지지 아랫부분에 "제가 항암 후유증으로 인해 말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 쪽지로 대신하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br/> <br/>박진호 봉명2·송정동 동장은 "<span class='quot1'>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더 잘 이해하고 돕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이 살만하고 훈훈하며 따뜻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봉명2·송정동 주민센터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성금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22.txt

제목: '너목보' 한소아 소속사 대표 "수술 미룰 수 없어 앨범 홍보 지체, 미안한 마음"  
날짜: 20171218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8134129001  
ID: 01100701.20171218134129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br/> <br/> <br/>Mnet 음악 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를 통해 주목받은 가수 한소아(사진)의 소속사 대표가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 자필 편지로 심경을 전했다. <br/> <br/>한소아 소속사 새로움엔터테인먼트의 최선침 대표는 18일 소속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br/> <br/>최 대표는 "<span class='quot0'>한소아의 정규 2집 '널 헤는 밤' 제작과 홍보를 맡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서다</span>"라고 심경을 밝혔다. <br/> <br/>이어 "5년 만의 정규 앨범, 중국에서의 좌절 등 그저 한소아라는 음악인의 모습이 오랫동안 대중에게 기억됐으면 해서 좌절을 하지 않고 어렵게 정규 앨범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틀 후 수술을 앞두고 있어 회복 후 앨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br/> <br/>그러면서 "수술을 미루고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암 조직이라 시간을 지체하면 좋지 않아 수술 날짜가 앨범이 나온 직후 잡히게 됐다"며 "역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br/> <br/>최 대표는 또 "<span class='quot0'>가수는 애써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고 본인이 괜찮으니 몸부터 챙기라는 말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회사에 직원이 없어 제가 홍보를 해야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 미안하고 미안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어렵게, 힘들게 만든 앨범이라 그 친구의 마음이 걱정"이라며 "빨리 회복해 좋은 제작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br/> <br/> <br/> 사진=새로움엔터테인먼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br/>한소아는 지난 3월 방송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사하며 주목을 받았다. <br/> <br/>앞서 한소아도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장 힘들지만 뿌듯한 시간을 (나와) 같이 한 대표님이 계신다. 중국에서 함께 고생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힘든 순간을 이겨 나가 주신 분"이라며 "그런 가족 같은 대표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이다. 며칠 뒤 수술과 항암치료를 앞두고 계신다"라고 소속사 대표의 투병 사실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새로움엔터테인먼트

언론사: 세계일보-1-23.txt

제목: 日 원자력 규제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방류하겠다"  
날짜: 201712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8100127001  
ID: 01100701.20171218100127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는 일본 어린이. 방사선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일본 근해는 물론 태평양 연안까지 영향을 끼친다. <br/>지난 9월 취임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 토요시 후케다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트리튬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며 후쿠시마현을 찾아 주민 설득에 나섰다. <br/> <br/>\* 트리튬은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수소 폭탄이나 융합 반응로의 연료로 사용된다. 3중 수소로도 불리는 이 물질은 물과 분리하기 어려워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기간 노출시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br/> <br/>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케다 위원장은 지난 14일 후쿠시마현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며 “다른 처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br/> <br/>그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발출은 “<span class='quot0'>규제위 의원 5명이 전원 이의 없이 결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비판이 있는 건 알지만 유일한 선택</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러면서 “방사능 오염 피해를 두려워하는 지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트리튬이 포함된 물을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해양 방출이 가장 빠르고 싸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br/> <br/>트리튬 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해양 방출을 하면 7∼8년 만에 35억∼45억엔(약 366억∼471억원)을 들여 트리튬 오염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br/> <br/>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63가지 방사성 핵종 가운데 62가지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있으나 트리튬은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2015년 9월 4차례에 걸쳐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쌓인 오염수 약 3400t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려보낸 바 있다. <br/> <br/>정화 처리를 거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췄다고 하지만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된 것이다. 방사선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일본 근해는 물론 태평양 연안까지 영향을 끼친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1-24.txt

제목: ‘빛 공해’ 시달리는 도시인… 한낮 ‘햇빛 샤워’ 하세요  
날짜: 20171217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7210303001  
ID: 01100701.20171217210303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한 해 중 밤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인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거대한 트리와 건물을 휘감은 조명 장식들로 밤이면 화려한 빛이 넘실거린다. <br/> <br/>넘치는 것은 늘 문제가 된다. 밤의 불빛은 야경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빛 공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빛에 ‘공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빛이 단지 보기에 어지러울 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br/> <br/>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빛 공해, 생활리듬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에 참석해 빛 공해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br/> <br/>◆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암 부른다 <br/> <br/>세계적으로 밤은 인공조명에 의해 점점 밝아지고 있다. 독일 포츠담 지구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엑서터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복사계(輻射計·야간 조명도 측정 장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간에 인공조명으로 밝혀진 야외 공간의 면적은 매년 2% 이상 늘고 있다. <br/> <br/>그중에서도 한국은 전체 국토에서 빛공해 지역 비율이 89.4%로 주요 20개국(G20) 중 이탈리아(90.4%)에 이어 두 번째다. <br/> <br/>빛 공해는 암을 유발하는 등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 <br/> <br/>이은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미국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 한국 지역별 빛 공해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한 뒤 건강보험공단(2010년 기준)에 등록된 유방암 환자 10만2459명의 거주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빛 공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은 가장 낮은 지역보다 24.4%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빛 공해가 심한 곳에 거주하면 전립선암 발병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빛 공해로 인해 인체 호르몬 분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원·안산·용인·평택·가평 등에 거주하는 394명을 대상으로 빛 공해 영향 인식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8.5%가 인공조명으로 인해 수면방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47.2%는 평소 가로등, 광고조명 등으로 ‘눈부심’ 피해를 본 경험이 있고, 40.6%는 야간 운전 시 인공조명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br/>◆야간의 강한 빛, 정신건강에도 악영향 <br/> <br/>사람의 신체는 낮과 밤에 각각 활동하고 휴식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리듬을 갖게 된다. 신체를 활동하게 하는 코르티솔은 밤 10시∼새벽 2시 떨어졌다가 새벽 6시에 가장 높아진다. 감정조절·행복함과 관련 있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세로토닌은 낮에 주로 분비된다.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빛이다. 따라서 늦은 밤까지 계속 밝은 빛을 쪼이면 신체는 낮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br/> <br/>이헌정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성인 남성 25명에게 5일간 밤 8∼12시 1000룩스의 빛을 쪼인 뒤 호르몬을 채취했더니 생체리듬이 4시간가량 지연됐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무기력과 피로감, 불면증을 호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생활환경과 생체리듬이 불일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야간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br/> <br/>최근 가장 심각하게 야간 빛 공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LED 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다. 블루라이트는 낮시간엔 우리가 깨어있도록 돕지만 밤에 쪼일 경우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br/> <br/>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최근엔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스마트폰은 눈 바로 앞에서 빛을 내뿜기 때문에 멀리에 있는 TV를 보는 것보다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주어 생체리듬을 더 크게 교란시킬 수 있다. 특히 야간에 쬐는 블루라이트는 인공 빛에 예민한 청소년에게 더욱 해롭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정영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야간 스마트폰 사용이 3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도파민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충동적이게 되고 중독에 취약해진다”고 밝혔다. <br/> <br/>◆낮에 햇빛 쬐어 생체리듬 지켜야 <br/> <br/>야간 인공 빛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빛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br/> <br/>제이미 자이저 미국 스탠퍼드의대 교수는 낮에 자연광을 쬐면 밤에 인공 빛에 노출돼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구름이 있는 날씨라도 빛의 밝기는 약 1만 룩스로, 일반적인 실내조명 250∼300룩스보다 강하다. 자이저 교수는 “<span class='quot1'>자연광이 인공 빛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낮에 자연광을 많이 쬐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낮 동안 자연광을 누릴 기회가 없다면, 적절한 스펙트럼과 적절한 조도를 가지는 조명을 잘 활용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낮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밤에는 집안을 어둡게 하며 간접조명이나 황색등처럼 블루라이트가 적은 조명을 쓰는 것이 좋다. <br/> <br/>이헌정 교수는 “<span class='quot2'>아직 인류는 인공조명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구현해가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25.txt

제목: '사람이 좋다' 파산한 현진영이 압류 딱지 붙은 악기 되찾은 사연  
날짜: 20171215  
기자: 한누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5150642001  
ID: 01100701.2017121515064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힙합 1세대' 가수 현진영(사진)이 공황장애와 파산 등 거듭된 고비마다 옆을 지켜 준 아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br/> <br/>오는 17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가수 현진영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br/> <br/>현진영 일찍부터 프로 댄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생계 때문이다. 중학생 때 가장 아닌 가장이 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춤을 시작했다. <br/> <br/>오랜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해 방황했던 그를 붙잡아 준 것도 춤이었다. <br/> <br/>그렇게 춤에 빠졌던 현진영은 이태원에서 불과 16살에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에게 발탁돼 스무 살에 가요계의 최정상에 올랐다. <br/> <br/> <br/>90년대 한국에 힙합 열풍을 몰고 온 현진영의 추락은 한순간이었다. 현진영은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만들고, 너무 운이 좋았는지 나오자마자 1등을 했다. 2주 만에 1등을 하면서, 삶 자체가 망각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털어놨다. <br/> <br/>이어 "예전에 힘들고 고생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 감고 뜨니까 신데렐라가 돼 있었다고 해야 될까? 너무 교만했다. 나중에 3집 앨범 나와서 그것도 히트를 치고 있는데 또 사고가 났다. 앨범 내고 한 달 만에. 그리고 모든 걸 잃다"고 털어놨다. <br/> <br/>20대 초반 현진영은 수차례의 약물 파문으로 혹독한 슬럼프를 ?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돈, 명예,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여동생 빼고 다 잃었다. 사람도 다 떠나고, 설 무대도 다 없어지고, 방송은 아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심지어는 밤업소도 저를 쓰는 데가 없었다"고 말했다. <br/> <br/>현진영은 시련을 겪으며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앓았다. 그렇게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 오서운이다.  <br/> <br/> <br/>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진영이 안쓰럽게 느껴졌다는 아내 오서운 씨는 18년째 한결같이 현진영의 곁을 지켜 주었다. <br/> <br/>오 씨는 "세상에 남편 혼자 덩그러니 딱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느낌을 딱 받았다. 그래서 내가 챙겨 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던 것 같다"고 전했다. <br/> <br/>거듭된 위기에도 아내의 변함없는 지지와 보살핌 덕분에 현진영은 재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획사를 설립했던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는 또다시 파산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br/> <br/>아내는 현진영을 위해 악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현진영은 "압류가 붙은 상황에서 경매가 붙었을 때, 와이프가 제 악기를 사줬다"며 "악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양 팔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기는 찾아 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br/> <br/>인생의 힘든 고비들을 함께 건너온 현진영, 오서운 부부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사람이 좋다’에서 공개된다. <br/> <br/> <br/>뉴스팀 han62@segye.com <br/>사진=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언론사: 세계일보-1-26.txt

제목: [권오길의 생물의 신비] 감과 나눔  
날짜: 20171214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4210904001  
ID: 01100701.20171214210904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감나무에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필자가 자란 시골 고향마을의 골목길엔 감나무가 가득했다.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던 터라 감나무 잎사귀를 접어 딱지치기를 했고, 주렁주렁 감꽃 목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출출해지면 텁텁하고 달착지근한 감을 주전부리 삼아 먹곤 했다. <br/> <br/>감나무는 감과(科)의 갈잎큰키나무로 다른 과실나무처럼 접붙이기를 하는데 바탕나무로 검질기고 드센 고욤나무를 쓴다. 그런데 감은 제 아무리 임금님께 진상하던 감의 종자를 심어도 떫은 돌감이 열린다. 해서 좋은 감의 여린 가지를 떠와 접을 붙여야 제대로 된 감이 열린다. <br/> <br/>감꽃은 왕관모양의 네 장 꽃잎이 모인 통꽃이다. 감나무 잎은 차로 마시며, 익지 않은 떫은 감은 타닌질이 많고 색소가 풍부해 염색의 염료로 사용하는데 이 염료로 물들인 옷이 바로 갈옷(감옷)이다. 갈옷은 땀을 많이 흘려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아 여름에 제격이다. 감은 혈압 강하 효과가 있는 만니톨을 함유하고 있으며, 황색 베타크립토잔틴은 암 예방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타닌은 고혈압과 뇌졸중을 억제하며 혈중 지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br/> <br/>우리 속담에 ‘생감도 떨어지고 익은 감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죽는 데 순서가 없어 늙은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br/> <br/>예전에 감나무는 한 해에 많이 결실이 되면, 그 다음해에는 결실량이 아주 적은 현상이 교대로 반복되는 ‘해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거름을 잔뜩 주는 바람에 해거리가 없어졌다. <br/> <br/>감은 토마토처럼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짙은 주황색 라이코펜 색소가 들어 있어 특유의 노란 감빛을 낸다. 감나무 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은 아마 감나무 위에 앉아 홍시를 먹는 까치가 아닐까. 나뭇가지에 매달린 홍시를 보며 가을의 정취를 느낀 것도 잠시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는 새를 위해 남겨둔 ‘까치 밥 홍시’를 보니 함께 나누는 마음과 배려의 깊은 뜻을 떠올리게 된다. <br/> <br/>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

언론사: 세계일보-1-27.txt

제목: '열반종 중심도량' 완주 경복사 유구·유물 대거출토  
날짜: 20171214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4164758001  
ID: 01100701.20171214164758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전북 완주군 ‘경복사’의 종파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대거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완주군은 14일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구이면 평촌리 경복사지(전북도기념물 제108호)에서 제2차 시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br/> <br/> <br/> 경복사는 신라시대 5교중 하나인 열반종의 중심도량으로 7세기 고구려로부터 백제로 망명한 보덕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모두 소실되고 터만 남아 있다. 보덕화상은 경복사에서 열반종을 개창했고, 그 문하에서 11명의 대덕 고승을 배출해 법맥을 이었다. <br/> <br/>조사 결과 대형석축들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물지, 우물지, 석렬, 가마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중도종과 왕도깨비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도 대거 출토됐다.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로 편년되는 ‘경복사(慶福寺)’, ‘중도종(中道宗)’, ‘성덕(性德)’ 등이 새겨진 명문기와를 비롯해 왕(王)명 기와편, 귀목문, 암·수막새, 당초문·귀면문 암막새, 치미편 등이 나왔다. 또 청자 베개편과 해무리굽 청자편, 분청사기편, 벼루편 등이 다량 출토됐다. <br/> <br/>완주군은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중요폐사지 시·발굴조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br/> <br/>완주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경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지속해 유적의 규모와 범위, 성격 등을 규명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확대하고 역사 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2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제 선물 대신 친구 사촌동생의 완쾌를"…산타에게 보낸 소년의 편지  
날짜: 2017121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3130215001  
ID: 01100701.2017121313021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올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선물이 필요 없다며 수두증(hydrocephalus) 앓는 소녀를 도와준 의료재단에 기부금이 모이기를 바란다고 산타에게 말한 영국 소년의 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잉글랜드 하트퍼드셔에 사는 루크(8)는 앞선 11월 산타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이번 크리스마스에 제 선물은 주지 않으셔 돼요</span></span>”라며 “<span class='quot0'>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료재단에 많은 기부금을 가져다주세요</span>”라고 썼다. <br/> <br/>루크는 친구 토마스에게 아픈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같은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펜을 들기 전까지 루크는 토마스의 사촌 동생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br/> <br/>  잉글랜드 하트퍼드셔에 사는 루크(8)는 앞선 11월 산타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사진)에서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이번 크리스마스에 제 선물은 주지 않으셔 돼요</span></span>”라며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금을 가져다주세요”라고 썼다. 루크는 친구 토마스에게 아픈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같은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펜을 들기 전까지 루크는 토마스의 사촌 동생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친구의 아픈 사촌 동생도 치료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도 도와줄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쯤이야 포기할 수 있다고 루크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br/> <br/>루크가 편지를 쓴 이유는 친구가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다. 친구의 아픈 사촌 동생도 치료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도 도와줄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쯤이야 포기할 수 있다고 루크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루크의 편지는 친형이 엄마 타냐에게 전달한 뒤, 토마스의 엄마를 거쳐 올라(6)의 가족에게 도착했다. <br/> <br/>올라는 생후 10개월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우유를 토해 병원에 갔다가 심상치 않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두증 진단을 받았다. 소녀는 지금까지 약 3년간 화학치료를 버티고 있다. <br/> <br/>수두증은 뇌척수액 순환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병으로 머리둘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구토 증상이 관찰된다. 눈이 아래로 처지거나 안쪽으로 모이기도 한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처음에는 완치된 듯 했으나, 올 5월 증세가 악화하면서 올라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화학치료 경과를 살피고 있지만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고 의료진은 말했다. <br/> <br/>  올라(6·사진)는 생후 10개월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우유를 토해 병원에 갔다가 심상치 않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두증 진단을 받았다. 소녀는 지금까지 약 3년간 화학치료를 버티고 있다. 수두증은 뇌척수액 순환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병으로 머리둘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구토 증상이 관찰된다. 눈이 아래로 처지거나 안쪽으로 모이기도 한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br/> <br/>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딸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올라의 엄마 수잔(37)은 루크가 보낸 편지를 보고 눈물만 흘렸다. <br/> <br/>수잔은 “루크는 정말 친절한 아이”라며 “<span class='quot1'>8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소년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루크는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의료재단을 위해 기부금 페이지도 만들었다. 해당 재단은 올라가 쓰러졌을 때 많은 도움을 준 곳으로 전해졌다. 올라가 병원으로 옮겨져 경황이 없을 때, 재단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수잔도 말했다. <br/> <br/>타냐는 “<span class='quot2'>아들이 매일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냐고 묻는다</span>”며 “<span class='quot2'>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다</span>”고 밝혔다. <br/> <br/>  최근 처음으로 만난 루크(왼쪽)와 올라(오른쪽). 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br/> <br/>최근 처음으로 올라를 만난 루크는 소녀에게 자기도 사촌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데일리메일은 “<span class='quot3'>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1살~15살 아이 대부분이 암이나 종양으로 사망한다</span>”고 전했다. <br/> <br/>소녀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도 하루빨리 올라가 완쾌해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br/> <br/>루크가 개설한 기부사이트 ‘저스트 기빙(just giving)’의 모금 페이지에는 13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총 목표액 5000파운드(약 729만원) 중 2301파운드(약 335만원)가 모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29.txt

제목: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면?  
날짜: 20171213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3102154001  
ID: 01100701.2017121310215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br/> <br/> 이모티콘이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연구진이 이모티콘을 활용해 암 상태를 진단한 연구를 소개했다. <br/> <br/>미국 미네소타의 메이요 클리닉은 림프절과 골수암 환자 115명을 대상으로 수면, 활동수준 등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모두 5년 미만의 생존을 진단받은 상태였다. <br/> <br/>연구진은 애플와치(스마트 시계)를 이용해 이들의 운동량을 체크할 뿐 아니라 이모티콘을 사용해 기분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결과가 과거 설문지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산출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br/> <br/>기존처럼 환자가 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가 상태를 파악하는 것보다 시간과 인력이 절약됐다. 수석연구원으로 참여한 캐리톰슨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모티콘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의사소통방식</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와 의사사이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미래에는 환자 증상을 모니터링 할 때 웨어러블 기술과 함께 이모티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span>”며 “이 연구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혈액학회에서 발표됐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0.txt

제목: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유전상담센터 개설  
날짜: 20171213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3030417001  
ID: 01100701.20171213030417001  
카테고리: 지역>대구  
본문: 계명대 동산병원은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유전 질환을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유전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br/> <br/>동산병원은 한 번에 143개 유전자를 단시간에 분석해 수십억 개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최신 분석기법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도입한 바 있다. <br/> <br/>유전상담센터 개설로 유전자 검사에서 상담, 협진 치료에 이르는 체계적 유전진료시스템을 마련했다. <br/> <br/>유전상담센터는 유전성 암을 비롯해 선천성 유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정확한 유전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상담을 한다. <br/> <br/>유전 검사를 앞둔 환자에게 검사 목적과 방법을 안내하고 검사 후 자세한 해석과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도 해줄 계획이다. <br/> <br/>오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단검사의학과 하정숙·김도훈 교수가 진료한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1.txt

제목: 올 가천문화효행대상에 부천여고2 김예현 양 수상  
날짜: 20171212  
기자: 이돈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2160115001  
ID: 01100701.2017121216011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효심이 지극한 현대판 ‘심청이’에게 주는 제19회 가천문화재단 심청효행대상에 경기 부천여고 2학년 김예현(17)양이 선정됐다. <br/> <br/>가천문화재단은 심청효행상 10명, 다문화효부상 3명, 다문화도우미상 2명 등 수상자 15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대상을 받은 김양은 망막 손상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머니(51)를 돌보며 함께 사는 외조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효녀다. <br/> <br/>그는 시각장애 2급인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다. <br/> <br/>3년 전 암을 앓던 5살 터울의 언니를 잃고 오히려 어머니가 상심하지 않도록 애써 웃으며 가족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br/> <br/>이날 수상자들 모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는 모범을 보였다. <br/> <br/>본상 수상자인 경민대 3학년 박은미(22·여)씨는 치매와 루게릭병을 앓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매일 간호하면서도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야간으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br/> <br/>또 다른 본상 수상자인 인천 숭덕여고 1학년 심여진(16)양도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힘든 할머니를 도와 동생 2명을 부모처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현대판 심청으로 불린다. <br/> <br/>다문화효부상 대상을 받은 일본인 마자히사꼬(50·여)씨는 17년간 중풍과 당뇨등으로 투병 중인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 내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br/> <br/>올 여름 그의 시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뒀지만 남은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3명의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효부다. <br/> <br/>제19회 심청효행대상 시상식은 이달 22일 오후 6시 30분 인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열린다. 시상식 후에는 축하공연으로 배우 이순재 주연의 연극 ‘사랑해요, 당신’이 펼쳐진다. <br/> <br/>심청효행대상은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1999년 심청전 원작의 무대로 추정되는 백령도에 심청 동상을 제작해 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br/> <br/>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 등이 상금과 부상으로 주어진다. <br/> <br/>인천=이돈성기자 sport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2.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여객기에서 모유 수유했다고 모자(母子) 쫓아낸 美 항공사 논란  
날짜: 20171212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2130226001  
ID: 01100701.20171212130226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암 연구가이자 2살 아들을 둔 미국의 한 여성이 여객기에서 모유 수유를 하다 쫓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KHOU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텍사스주(州) 휴스턴에서 암 연구가로 활동 중인 메이가 앞선 8일 휴스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할 예정인 스피릿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승무원 지시로 가족과 함께 쫓겨났다. <br/> <br/>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여객기에서 메이가 2살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게 이유다. <br/> <br/>앞서 승무원들은 기체가 움직이므로 승객들에게 안전 벨트를 맨 채 자리에 앉아달라고 안내했으며, 이미 벨트를 풀고 아들에게 젖 먹이던 메이에게도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br/> <br/>메이는 “몇 분이면 된다”며 “<span class='quot0'>아들이 울지 않게 젖을 잠깐 먹이겠다</span>”고 답했다. <br/> <br/>결국 다른 승객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승무원들은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려 메이와 그의 가족을 쫓아냈다. <br/> <br/>  미국 텍사스주(州) 휴스턴에서 암 연구가로 활동 중인 메이(사진)가 앞선 8일(현지시간) 휴스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할 예정인 스피릿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승무원 지시로 가족들과 함께 쫓겨났다.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여객기에서 메이가 2살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다른 내막이 있다. 미국 KHOU 영상 캡처. <br/>여기까지 보면 순전히 메이의 잘못으로 쫓겨난 것이라 여길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내막이 있다. <br/> <br/>메이의 가족은 이륙 지연으로 여객기가 움직이기 전까지 무려 3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있었다. 현지의 한 매체가 추가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r/> <br/>메이는 아들이 2번째 생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추가 좌석을 구매했으며, 이내 아들이 울자 잠시 벨트를 푼 것으로도 알려졌다. <br/> <br/>메이가 모유 수유를 시작한 뒤 여객기가 움직이면서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이유로 이들 가족을 쫓아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br/> <br/>  미국 KHOU 영상 캡처. <br/> <br/>과연 누구 잘못으로 봐야 할까? <br/> <br/>항공사 측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매체들에게 “활주로로 이동 중인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말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다른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해당 승객을 내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원하는 승객들에 한해 모두 티켓을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br/> <br/>메이는 다시는 스피릿 항공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우리 가족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어떤 항공사가 승객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물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3.txt

제목: 신장 투석 딸 위해… 암과 사투하는 엄마  
날짜: 2017121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202647001  
ID: 01100701.2017121120264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2일 오후 11시35분 EBS1 ‘메디컬 다큐 - 7요일’(사진)에서는 자궁경부암을 앓으며 아픈 두살배기 딸을 돌보는 혜란(34)씨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br/> <br/>혜란씨는 2년 전 결혼 후 바로 보민양을 낳았지만 몇 개월 후 딸의 신장 한쪽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한 후, 매일 10시간씩 신장투석을 하는 딸을 보며 더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을 무렵, 자신이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게 됐다. <br/> <br/>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딸이 있기에 혜란씨는 암과의 사투에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br/> <br/>그러나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도 암은 줄어들 줄 모르고 자궁경부암 2기는 4기가 되고 말았다.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는 암과의 사투를 이겨내고 딸을 다시 안아볼 수 있을까.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34.txt

제목: 국민 3명 중 1명 “건강한데 암 검진은 무슨…”  
날짜: 20171211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195321001  
ID: 01100701.2017121119532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가로부터 암 검진 권고를 받은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1일 국립암센터의 ‘2017년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가 암 검진 이행률은 55.7%, 개인 암 검진은 9.2%로 집계됐다. 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은 34.9%였다. 개인 암 검진은 국가의 검진 프로그램과 별개로 개인이 전액 비용을 내고 받는 검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월 성인 4000명(남성 1736명, 여성 226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br/> <br/>암 검진 권고를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하기 때문에(10점 만점 중 6점) △시간이 없어서(5.8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1점) △검사과정이 힘들고 두려워서(4.7점) △암이 발견될까 두려워서(4.5점) △다른 개인 검진을 받고 있어서(4.1점) △검진기관이 멀어서(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r/> <br/>이 중 지난 3년간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다. 2014년 4.5점에서 올해 5.1점으로 올랐다. <br/> <br/>암 유형별로는 위암 검진율이 61.0%로 가장 높았고 유방암(57.9%), 자궁경부암(57.1%), 대장암(47.0%) 등이 뒤따랐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권고안 이행 수검률이 오른 점을 강조했다. 30세 여성에게만 제공됐던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난해부터 20대 여성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권고안 이행 수검률이 2014년 12.8%, 2015년 15.5%, 2016년 29.7%, 2017년 33%로 꾸준히 상승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5.txt

제목: 참는 게 미덕? '스튜핏'·통증점수 바로알기 '그뤠잇'…통증학회 캠페인  
날짜: 2017121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144132001  
ID: 01100701.201712111441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통증학회(회장 조대현 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 교수)가 '통증점수바로알기' 캠페인에 나섰다. <br/> <br/>이번 캠페인은 통증점수를 제대로 알아 정확하고 빠른 치료가 중요함을 환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부터 '당신의 통증점수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이다. <br/> <br/>◆‘참는게미덕’?…통증 참으면 만성통증된다 <br/> <br/>우리나라의 경우 '참는게 미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증을 참아왔다. <br/> <br/>이에 대해 대한통증학회 조대현 회장은 "<span class='quot0'>조금 귀챦을 수도 있고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통증을 참다보면 치료시기도 놓치고 만성화되면서 난치성으로 발전하게 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이어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주위의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통하여 만성화 및 난치성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통증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조 회장은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원인 없이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span>"고 했다. <br/> <br/>조 회장은 "<span class='quot0'>단순통증을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정확한 통증점수 확인 중요 <br/> <br/>정확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통증점수를 가능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일반적으로 통증점수를 물어보면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통증점수를 낮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br/> <br/>실제 임상 때 어떤 환자는 "마음으로는 7~8를 외치고 싶지만 늘 4~5점, 정말 아프면 6점을 말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br/> <br/>홍성준(강동성심병원 교수) 통증학회 홍보이사는 "<span class='quot1'>통증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절대적인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겪고 있는 통증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치료 및 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통증점수를 알고 제시하는 것은 통증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발이다</span>"고 소개했다. <br/> <br/>◆만성통증, 다양한 건강문제 초래 <br/> <br/>통증은 참다보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한다. <br/> <br/>만성통증은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병으로 통증조절도 쉽지 않다. <br/> <br/>만성통증으로 인해 혈압, 혈당상승,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수면장애,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br/> <br/>대한통증학회에서 국내 통증 치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성통증환자 41%가 중등도 통증(4~6점), 27%는 심한 통증(7~10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특히 10명 중 7명이 심한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약물의존도가 심각해지기도 한다. <br/> <br/>또 만성통증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31%, 44%가 우울해했으며, 37%가 불안에 휩싸였고, 35%가 자살충동을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br/> <br/>이에 대해 홍성준 홍보이사는 "<span class='quot2'>통증은 몸에 이상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통증을 참으면 결국 병이되고, 병이 깊어지면 점점 더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처보다 통증이 심하거나 통증과 함께 약물 중독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와 관련해 조대현 회장은 "<span class='quot0'>만성통증은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뒤 상처는 아물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성통증은 암 이상일 경우도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빠른 치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캠페인의 의미를 알렸다. <br/> <br/> <br/>통증점수는 0(전혀 없음)에서 10점(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까지로 나눠지며 8점이면 일상생활이 힘들다. <br/> <br/>통증학회는 통증점수 자가체크 결과 21점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6.txt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유동근, 암 말기 판정 원미경에 오열  
날짜: 20171211  
기자: 김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103810001  
ID: 01100701.2017121110381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21년 만에 리메이크된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다시 한번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br/> <br/>10일 방송된 tvN 주말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회는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내 '인희'(원미경 분)의 상태가 악화돼 수술을 포기하게 된 '정철'(유동근 분)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br/> <br/>정철은 난소암 판정을 받은 인희의 수술에 참여했고, 손 쓸 수 없이 악화된 상태를 직접 확인한 정철은 결국 "배 닫자"는 덤덤한 한 마디와 함께 수술을 종료시켰다. <br/> <br/>끝내 정철은 눈물을 흘렸고, 해당 장면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도 붉어지게 만들었다. <br/> <br/>이어진 예고편 속 인희는 남편에게 아픔을 토해내거나, 후회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모습이 예고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br/>한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4부작 드라마로 16, 17일 2회 방송을 앞두고 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tvN 제공

언론사: 세계일보-1-37.txt

제목: [서울시, 도시농업에서 도시문제 해법 찾다] 싱싱텃밭이 주는 행복, 우울·고독 씻어낸다  
날짜: 20171211  
기자: 이창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060308001  
ID: 01100701.20171211060308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꼭 어릴 때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br/> <br/>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옥수종합복지관에서 만난 장옥임(79·여)씨는 고무줄로 군데군데 칭칭 묶은 흰색 손수건을 염색물에 넣고 치대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장씨는 메리골드 꽃잎으로 만든 갈색빛 염색물에 담근 손수건을 뜨거운 물에 헹군 뒤 펼쳐 보였다. 30여분의 작업 끝에 세상에 둘도 없는 장씨만의 손수건이 만들어졌다. 메리골드의 노란 꽃 색깔이 물든 손수건 위에 하얀 동심원들이 펼쳐졌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 손으로 천에 염색을 해봤다”며 “뽑은 배추로 배추전도 부쳐 먹고, 매번 새로운 걸 하다 보니 복지관에 오는 화요일만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br/> <br/>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옥수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싱싱텃밭 원예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메리골드 꽃잎으로 물들인 손수건을 만들고 있다. <br/>이창훈 기자장씨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해 이를 원예치료에 접목한 ‘싱싱텃밭 원예 프로그램’이다. 원예치료는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으로 정서적 문제의 예방부터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까지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날은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 텃밭에 주로 심는 메리골드를 활용한 손수건 염색하기였다.  <br/> <br/>서울 성동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월 옥수종합복지관에 상자텃밭 10개를 설치해 이달까지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씨 등 저소득 여성 노인 13명이 참가해 2명당 상자텃밭 하나씩을 맡아 배추와 비트, 쪽파를 기르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강의를 담당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이광희(57·여) 강사는 “이곳에서 농사를 처음 지어본 노인들이 텃밭에서 키우던 쪽파를 집에 가져가서 정성껏 돌보기도 했다”며 “지난주에 텃밭 활동이 끝난 뒤로 실내에서 식물을 활용한 손수건·연고 만들기, 허브차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매번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텃밭과 식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정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고 밝혔다. <br/> <br/>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21개 자치구 82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싱싱텃밭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6개 자치구의 48개 시설에서 시작한 원예 프로그램은 2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종합복지회관, 노인·장애인자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싱싱텃밭은 시설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함양을 위해 도입됐다. <br/> <br/>텃밭을 활용한 원예치료에 대해 농촌진흥청 이상미 박사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경기지역암센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차례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암 환자의 경우 우울감이 45%, 스트레스는 34% 감소했다.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분비는 40% 증가해 항암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작물이나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교감,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느끼는 사회적 교감이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신체 활동을 동반하는 싱싱텃밭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r/> <br/>시는 싱싱텃밭 원예 프로그램의 효과에 힘입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처럼 사람 가까이에 두고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기르는 식물을 뜻한다. 시는 올해 70세 이상 독거노인 2000명에게 아이비, 고무나무, 자금우 등 반려식물을 보급했다. 반려식물의 효능감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600명 중 94%가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br/> <br/>송광남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올해 반려식물과 싱싱텃밭 원예치료 프로그램에서 거둔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br/> <br/>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38.txt

제목: [건강 단신] 경희의료원 “한국인 직장암 새 가이드라인 필요” 외  
날짜: 20171211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030410002  
ID: 01100701.2017121103041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희의료원 “한국인 직장암 새 가이드라인 필요” <br/> <br/>경희의료원이 ‘제3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직장암 치료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장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8, 9일 양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초 암병원인 영국 ‘로열 마스덴’ 병원과 한국외과연구재단 등의 세계 정밀의학 석학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길연 후마니타스 암병원 설립 추진 사무국장(경희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한국은 대장암(직장암·결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데도 자체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부분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데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려 해도 수가 정책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span>”며 새로운 치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세계적인 직장암 MRI분야의 권위자인 스베틀라나 벨아스티코바 교수(로열 마스덴 병원)와 협력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는 정밀치료를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서울대병원, 내일 ‘흔한 허리문제’ 무료 강좌 <br/> <br/>서울대병원은 12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흔한 허리문제’를 주제로 건강강좌(사진)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지금까지의 강좌와는 달리 △7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 최근 허리가 구부러진 75세 할머니 △8개월 동안 허리와 다리가 아픈 38세 주부 △5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가 요새는 걷기도 힘든 60세 주부 등 실제 환자 사례 중심으로 허리질환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신경외과 정천기, 김치헌, 양승헌 교수가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가능하다. <br/> <br/>서울아산병원, 17일 ‘염증성 장질환 바로 알기’ <br/> <br/>서울아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가 17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염증성 장질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복통, 설사, 혈변, 체중감소 등을 나타내는 난치성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최신 약물치료 방법과 환자들에게 유용한 복지 정보를 알려주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결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39.txt

제목: [세계타워] ‘품격 없는 정치’ 덫에 걸린 홍준표  
날짜: 20171211  
기자: 남상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1000303002  
ID: 01100701.20171211000303002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여의도 정치권은 말이 무성한 곳이다. 이곳에선 바른말, 고운말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이 더 많이 통용된다. 여야가 이슈 공방 속에서 폭력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가 많아서다. <br/> <br/>어떤 정치인들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 막말 정치인으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꼽힌다. 홍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5·9 대선기간에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 “(홍준표를)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을 한다” 등의 막말로 국민의 반감을 샀다. 이어 당 대표가 된 그는 ‘친박(친박근혜) 청산’과정에서 친박을 ‘바퀴벌레’로 표현한 바 있다. <br/> <br/>그는 최근 친박 의원들을 향해 “고름,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막말은 당내 역풍을 불러왔다. 나경원 의원은 “<span class='quot0'>(홍 대표의 발언은)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span>”이라며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의 말에 품격 없다는 지적이다. <br/> <br/>하지만 홍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막말로 인한 품격 논란에 대해 “<span class='quot0'>암덩어리가 맞지, 그럼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되겠나</span>”라며 “<span class='quot0'>품격을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기준으로 삼는 것은 할 일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여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span>”고 반박했다. 그는 막말이 서민적인 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삶이 녹아 있는 말을 하지만 막말을 하지 않는다. 막말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br/> <br/>홍 대표는 말이 많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설화가 많다. 최근에는 홍 대표가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원내대표 시절 자신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2015년 성완종리스트로 수사를 받게 되자 ‘특활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span class='quot0'>특활비로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국회 운영비를 지원했다</span>”고 말을 바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그는 다시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국정원 특활비 논란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이를 피해 나가려다 말이 꼬인 것이다. <br/> <br/>말이 많으면 화(禍)를 면치 못하고 근심이 많아진다. 막말이 머리에 떠오를 땐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속담이 홍 대표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br/> <br/>홍 대표는 종종 독불장군 같은 행동으로 ‘덕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9 대선 전에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행을 타진하던 12명 의원이 홍 대표를 만나고 난 뒤 일제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1'>당시 참석자들은 홍 대표가 당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쟁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자부하는 대목에서 ‘덕이 없는 정치인(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을 피해 나오려는데 여기에도 덕이 없는 정치인이 또 버티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span>”고 소회했다. 홍 대표 개명을 놓고 홍 대표와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주영 의원은 “독불장군에겐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br/> <br/> 남상훈 정치부 차장공자는 정치를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고 설명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란 뜻이다. 그런데 홍 대표는 동료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덕장(德將)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친홍, 비홍으로 갈라진 당의 화합, 나아가 보수통합을 위해선 홍 대표에게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인다. <br/> <br/>그는 차기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원내 활동에 개입하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은 엄연히 분리됐음에도 자신이 원내 정치까지 맡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에 대해 “<span class='quot2'>그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 말을 잘 듣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것</span>”이라고 일갈했다. <br/> <br/>과욕은 무리수를 낳는 법이다. 홍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1년 공천과 관련해 최고위원들과의 타협에 실패해 당 대표직에서 쫓겨났던 ‘굴욕의 기억’을 되새겨볼 만하다. <br/> <br/>남상훈 정치부 차장

언론사: 세계일보-1-40.txt

제목: 카이스트 탑승형 로봇, 성화 봉송 주자 나선다  
날짜: 20171210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0211722002  
ID: 01100701.2017121021172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KAIST)에서 새로 개발한 탑승형 로봇 ‘FX-2’(사진)가 2018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세상에 처음 공개된다. ‘휴보’의 아버지 카이스트 오준호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만든 FX-2는 FX-1의 후속 모델이다. <br/> <br/>10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사람이 직접 탄 채 조작하는 로봇인 FX-2는 2.5에 몸무게 280㎏의 큰 덩치를 가졌다. 체중 70㎏ 성인까지 탈 수 있다. FX-1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 형태로 보폭은 25㎝ 정도다. <br/> <br/>상체에 탑승자 팔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이터 암(arm)을 달아 인간과 거의 흡사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팔은 각각 7축의 관절로 이뤄져 있다. 손가락도 다섯 개가 달려 사람처럼 움직인다. 탑승자가 조작하면 굽히거나 펼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로봇지원단 총감독이기도 한 오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족보행하며 상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로봇</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FX-2는 11일 오후 카이스트에서 진행할 스페셜 성화 봉송에 주자로 참여한다. 오 교수로부터 성화를 넘겨받는다. 성화주자로의 탑승권은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우승팀 대표 이정재군이 누린다. FX-2 팔이 움직여서 성화를 잡고, 몇 걸음 디디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이날에는 또 2004년 오 교수팀이 처음 개발한 인간형 로봇 ‘휴보’도 봉송 주자로 나선다. 사람과 악수도 할 줄 아는 휴보는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와 성화의 불꽃을 옮긴다. <br/> <br/>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대전에서 ICT를 활용한 봉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1.txt

제목: [재테크 레슨] 당신의 2017 재테크 성적표는  
날짜: 20171210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0211000001  
ID: 01100701.20171210211000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내일이면 대입수능 성적표가 나온다. 한 해의 마지막 달에는 우리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올해 재테크 성적표를 내민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속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상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올해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올해 재테크 성적표를 보면서 2018년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올해 나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3가지 질문에 냉정하게 답해 보자. <br/> <br/>첫째, 금융지식을 쌓기 위해 얼마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나? 좋은 투자처나 ‘대박 난다’는 주식종목을 찾아다니느라 정작 기본실력을 쌓는 데 소홀했던 건 아닌가. 올해 재테크 성적이 초라하다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한 학생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자. 요즘은 인터넷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넘쳐난다. 그만큼 좋은 정보를 걸러내는 눈이 필요해졌다.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금융꿀팁200선’ 등 쉽고 짧게 정리해 놓은 자료로 일단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다. <br/> <br/>둘째, 올해 나만의 ‘짠테크’ 노하우가 있었나? 이제 사람들은 마른 수건을 짜듯 절약하는 삶이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투자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의 영수증을 보고 ‘스튜핏! 그뤠잇’을 외치는 한 방송인의 프로그램도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인기를 끌었다. 투자가 공격전략이면 절약하는 습관은 수비전략이다. 공격에 밀리면 수비는 간과하기 쉽다. 규모 있는 소비를 위해 나는 올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자. <br/> <br/> 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셋째,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졌나? 리스크 관리는 ‘재테크의 국영수’와 같은 것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기본 토대가 되는 리스크 관리를 잊지는 않았던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다. 살아 있는 동안 병이 나거나 일찍 사망할 리스크와, 내 생각보다 더 오래 살지 모를 리스크다. 만약을 위한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비롯해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둬야 한다. <br/> <br/>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그 사이를 틈탄 특강에 많은 학생이 몰렸다고 한다. 2018년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소위 ‘벼락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주 남아 있다. 남은 시간,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예전보다 자산관리 기간이 길어진 100세 시대에는 든든한 기본 토대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

언론사: 세계일보-1-42.txt

제목: 평창올림픽 성화주자로 카이스트 탑승형 로봇 첫 선  
날짜: 20171210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10131150001  
ID: 01100701.2017121013115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카이스트(KAIST)에서 새로 개발한 탑승형 로봇 ‘FX-2’가 2018 평창올림픽성화 봉송 주자로 세상에 처음 공개된다. <br/> <br/>‘휴보’의 아버지 카이스트 오준호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만든 FX-2는 FX-1의 후속 모델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외부에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br/> <br/>10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사람이 직접 탄 채 조작하는 로봇인 FX-2는 2.5ｍ에 몸무게가 280㎏의 큰 덩치를 가졌다. 체중 70㎏ 성인까지 탈 수 있다. <br/> <br/>FX-1 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 형태로 보폭은 25㎝ 정도다. <br/> <br/>상체에 탑승자 팔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이터 암(arm)을 달아 인간과 거의 흡사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팔은 각각 7축의 관절로 이뤄져 있다. <br/> <br/>손가락도 다섯 개가 달려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다. <br/> <br/>탑승자가 조작하면 굽히거나 펼 수 있다. <br/> <br/>평창동계올림픽 로봇지원단 총감독이기도 한 오준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족보행하며 상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로봇</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FX-2는 11일 오후 카이스트에서 진행할 스페셜 성화봉송에 주자로 참여한다. 오준호 교수로부터 성화를 넘겨받는다. <br/> <br/>성화주자로의 탑승권은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우승팀 대표 이정재 군이 누린다. <br/> <br/>FX-2 팔이 움직여서 성화를 잡고, 몇 걸음 디디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이날에는 또 2004년 오준호 교수팀이 처음 개발한 인간형 로봇 ‘휴보’도 봉송 주자로 나선다. <br/> <br/>사람과 악수도 할 줄 아는 휴보는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와 성화의 불꽃을 옮긴다. <br/> <br/>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과학기술과 함께 도약하는 대전에서 ICT를 활용한 봉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3.txt

제목: 잔여 배아·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 줄인다  
날짜: 20171208  
기자: 김수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8184334001  
ID: 01100701.2017120818433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난임치료나 희귀·난치병으로 제한됐던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의 연구범위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도 특허출원 권리와 보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br/> <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r/> <br/>현재 잔여배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희귀·난치병 관련 연구로 제한돼 있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도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적정 절차를 통해 확보한 배아는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질병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안은 생명윤리민관협의체 의견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br/> <br/>또 지금까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상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와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명문화된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4.txt

제목: [지구의 미래] 철없는 황사의 내습 … 덥고 건조해지는 지구의 몸부림  
날짜: 20171207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7100355001  
ID: 01100701.201712071003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더위가 물러가고 바람이 차가워진 걸 보니 이제 황사가 시작되겠구나.’ ‘봄의 불청객’이었던 황사가 이렇게 ‘추운 계절의 전령’으로 수식어를 바꿔 달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2009년 9월,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황사가 나타나더니 어느새 단골손님이 돼버렸다. 올해도 9월과 10월 한 차례씩 옅은 황사가 관측됐고, 지난달에는 세 차례 우리나라를 지나갔다. 독한 미세먼지 탓에 ‘차라리 황사가 반갑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이지만 ‘철 모르는 황사’는 지구가 보내는 경고일지 모른다. <br/> <br/> ◆“금세기 말이면 56%가 건조 지역” <br/> <br/>황사가 건너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모래먼지가 생길 만큼 건조한 기후와 모래를 실어나를 기압(바람)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건조한 곳은 더 덥고 건조한 극한 기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지앤핑 중국 란저우대 교수가 1901∼2009년 평균 연간 강수량과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1년에 비가 100∼500㎜밖에 안 내리는 건조한 곳의 온도는 매년 0.01도가량 올랐다. 이에 비해 한 해 비가 2000㎜ 이상 쏟아지는 곳(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은 연간 0.004도만 올랐다. <br/> <br/>특히 추운 계절 아시아의 ‘반건조 지역’에서 온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황 교수팀은 연간 강수량이 200∼600㎜인 곳을 반건조 지역으로 정의하고 1901∼2009년 지역별·계절별로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반건조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 온도가 1.13도 오른 데 비해 아시아 반건조 지역은 추운 계절(11∼3월)에 2.42도나 올랐다. <br/> <br/>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이 바로 아시아 반건조 지역에 속한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가장 혹독한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r/> <br/>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건조→온난화→건조→…’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증발하는 물방울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쏟아지는 태양열이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데 쓰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역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된다. <br/> <br/>2015년 과학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는, 이런 현상으로 금세기 후반(2071∼2100년)에는 전체 육지 면적의 50∼56%가 건조지역이 될 것이란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이때가 되면 한반도 북쪽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론 그린란드 서쪽 일부 지역까지 건조화가 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사를 부르는 두 번째 조건, 즉 ‘바람’도 온난화와 관련이 깊다. 허창회 서울대 교수(지구환경과학)와 김주홍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진은 북극 빙하가 줄어든 해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황사 수송경로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북극이 얼지 않고 바다 상태로 열려 있을 때 제트기류는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데 한반도 주변에서는 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트기류 북쪽, 즉 만주 쪽 상공(지상 10㎞)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흐름(저기압성 순환)이 만들어지면 내몽골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끌려들어오는 것이다. <br/> <br/>김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과거에는 해빙면적과 황사발생 간 관련성이 전혀 없었는데 10여년 전부터 갑자기 관련성이 생기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둘의 상관계수는 0.78로 매우 높다</span>”고 전했다.  <br/>◆‘초원의 암’ 마른 호수 <br/> <br/>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한·중·일·몽골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여러 활동을 벌였다. <br/> <br/>에코피스아시아 중국사업소 박상호 소장도 그중 한 명이다. 박 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차로 내몽골 차간노르(노르는 호수라는 뜻) 일대 4000만㎡에 걸쳐 1년생 초본 생태복원 활동을 벌였고, 2014년부터 내년까지는 보샤오테노르와 하기노르 일대에서도 비슷한 면적에 걸쳐 다년생 식물복원을 진행한다. <br/> <br/>특히 주력하는 부분은 알칼리 호수 생태복원이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내몽골 대부분의 호수가 알칼리성인데, 호수가 말라 알칼리 분진이 날리면 주변 초원에 악영향을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1'>마른 호수는 강알칼리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등 환경이 열악해 ‘초원의 암’이라 불린다</span>”고 전했다. <br/> 10년째 내몽골에서 사막화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의 박상호 소장은 “<span class='quot2'>사막에 나무를 심으려면 지질조사와 수리수문연구부터 해야한다</span>”고 전했다. 위부터 생장량 조사, 실험구 설치, 생태해설을 하는 모습. <br/>박상호 소장 제공 <br/>오랜 시간을 황사 발원지에서 보낸 그는 사막화의 주범으로 인간 활동을 꼽았다. <br/> <br/>내몽골의 인구는 1954년 610만명에서 2010년 2470만6000명으로 네 배 늘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업·농업용으로 여기저기서 지하수를 끌어썼고, 호수가 마르기 시작했다. 초원도 버티지 못하고 퇴화했다. <br/> <br/>박 소장은 “<span class='quot2'>현지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각종 개발과 과도한 지하수 사용, 댐 건설 같은 인위적 요소</span>”라며 “<span class='quot2'>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토지가 황폐화하면 토양 속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방출된다. 또 초목이 사라지면 광합성 양이 줄어 식물의 온실가스 저장량도 줄어든다. 온난화가 사막화를 부르고, 사막화가 다시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셈이다. 철을 가리지 않는 황사의 내습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유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5.txt

제목: 경희대학교병원 박민수 교수, 아시아이식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날짜: 20171207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7094158001  
ID: 01100701.2017120709415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희대학교병원 간담도췌장외과 박민수(사진) 교수가 2017 아시아이식학회(CAST)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br/> <br/>지난 11월 27일부터 나흘간, 필리핀에서 개최된 2017 아시아이식학회에서 박민수 교수팀은 ‘간 세포암 환자에서 유전적 다형성과 암의 임상적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IMPACT OF SS18L1 POLYMORPHISM IN PREDICTING PRO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를 발표했다. <br/> <br/>발표된 연구는 간 세포암 환자 치료 시, 간 절제 또는 간 이식 후에 환자의 유전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암 재발 예측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br/> <br/>한편, 박민수 교수는 간담췌 및 이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및 아시아이식주간(ATW) 등 국내외 학회에서 연이은 수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6.txt

제목: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환자중심 종합센터’ 재도약 선언  
날짜: 20171206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6031100001  
ID: 01100701.201712060311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소장 김정수)가 암 진단과 치료를 넘어 암 환자 관리 서비스까지 토탈케어하는 환자중심 종합암센터로 거듭난다. <br/> <br/>전북지역암센터는 5일 ‘RESTART UP(리스타트 업), 암환자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재도약식을 갖고 암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강명재 전북대병원원장(왼쪽에서 6번째)과 김정수 전북지역암센터 소장(〃7번째) 등 관계자들이 5일 ‘RESTART UP(리스타트 업), 암환자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재도약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제공전북지역암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암센터로 선정돼 2008년 4월 개원한 이래 환자 중심의 암치료 시스템과 진료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단순한 암치료 단계를 넘어 치료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토탈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상의 의료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br/> <br/>이를 위해 센터는 암 병동 리모델링과 암환자 전용 수술실 개설, 호스피스병동 신축 등 환자중심의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기존 감마나이프와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C-CT), 영상유도방사선치료기(IGRT)를 비롯해 로봇수술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등 신규 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br/> <br/>진료 신속지원(Fast-Track) 시스템을 통해 검진과 진료, 치료, 수술, 입원 등 통합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암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치료 후 통합지지,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 등 종합적인 암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br/> <br/>강명재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전북지역암센터가 그 동안의 진단·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암환자 중심의 토탈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는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7.txt

제목: [뉴스 투데이] "수명은 더 늘어났지만 아프다는 사람이 늘어났다"  
날짜: 20171205  
기자: 안용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5183815001  
ID: 01100701.2017120518381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기준 60세인 한국인의 남은 수명이 10년 전보다 3년 가까이 늘어났다. 의학기술 발달로 수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질병·사고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2.5년을, 여성은 27.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br/> <br/>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남녀 모두 2.9년 늘어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녀 각각 0.3년, 0.2년 증가했다. <br/> <br/>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남자는 79.3년, 여자는 85.4년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늘었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6.1년)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br/> <br/>지난해 출생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남자 1.4년, 여자 2.3년 높았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 35개 회원국 중 15위, 여성은 4위였다. <br/> <br/>남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아이슬란드(81.2년)로 한국보다 1.9년 길었고, 여자의 경우 일본(87.1년)이 한국보다 1.7년 길어 OECD 국가 중 1위였다. <br/> <br/>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유병기간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 기간 중 유병기간은 21.2%에 달했다. 82.4년 중 17.5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지낸다는 의미다. 기대수명 대비 유병기간 비율은 2012년 18.7%, 2014년 20.3%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br/> <br/>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수명은 더 늘어났지만 아프다는 사람이 늘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사회조사 등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일수가 늘었고 초고령층의 요양병원 생활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로 사망원인 중에서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이 11.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뇌혈관질환(8.8%), 폐렴(7.8%)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8.txt

제목: 洪 "죽을 때 안됐으니 말투 못 바꿔, MB 혐의 있으면 한번 불러 보시라"  
날짜: 2017120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5142015001  
ID: 01100701.2017120514201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br/>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적폐청산 수사 종착점 중 한 곳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span class='quot0'>혐의가 있으면 한번 불러서 조사하시라</span>"고 했다. <br/> <br/>홍 대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MB수사 문제에 대해 "'망나니 칼춤'을 추는 데 막을 방법이 어딨겠나. 수사를 막을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br/> <br/>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여부와 관련해선 "<span class='quot1'>서청원·최경환 의원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국회의원들한테 동료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span>"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br/> <br/>막말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오른 홍 대표는 "언어표현을 바꿀 생각은 없나"고 묻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본질을 숨긴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br/> <br/>다음은 관훈 토론회 주요 일문일답.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임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에서 수사를 막아야 하나. <br/> <br/>▲ 혐의가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라. 불러서 조사하시라.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어떻게 막겠나. <br/> <br/>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달라고 지시했겠나. 국가를 흔드는 범죄도 아니고 댓글 몇 개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다. 수사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br/> <br/>- 적폐청산 이야기 나왔을 때 최종대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예상했나. <br/> <br/>▲ 칼자루를 쥐고 이놈을 칠지, 저놈을 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칼자루가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정치하지 않는다. <br/> <br/>-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는데. <br/> <br/>▲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특활비도 문제 삼아야 한다. 바로 직전 정부만 문제 삼으면 옳지 않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수사를) 물타기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br/> <br/>- 언어습관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란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br/> <br/>▲ 지금 한국당이 품격을 논할 때인가. 한국 보수정당에서 가장 품격 있던 분은 이회창 총재, 품격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란만 될 뿐, (품격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할 일 없는 분들의 말이다. <br/> <br/>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신봉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br/> <br/>- '암'이나 '고름덩어리'는 특정 계파를 겨냥해 한 말 아닌가. <br/> <br/>▲ 암 덩어리가 맞다. 암 덩어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나. 누가 나보고 암 덩어리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품격 있게 어떻게 하나.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되겠나.(웃음) <br/> <br/>- 언어표현을 바꿀 생각은 없나. <br/> <br/>▲ 사람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본질을 숨긴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br/> <br/>- 문재인 정부 7개월에 대한 평가는. <br/> <br/>▲ 아직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단죄해야 하지만, 도를 넘으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 <br/> <br/>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두고 있다. 감정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전전(前前)직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한다. <br/> <br/>- 현 정권을 친북 주사파 정권이라고 계속 비판하는데. <br/> <br/>▲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세계는 경제제재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친북 아닌가? 주사파를 주사파라고 한 것이다. 주사파를 주사파가 아니라고 할까? <br/> <br/>- 한국당은 반북우파 정당인가. <br/> <br/>▲ 한국당은 반북(反北)이 아니다. 북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북은 통일의 대상이다. 한국당은 그냥 보수우파 정당이다. <br/> <br/>- 2020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하면 어떤가. <br/> <br/>▲ 개헌투표는 선거에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국민의 열의가 있다. 현재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한다. <br/> <br/>그러나 축소된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개헌을 서두르는 것밖에 안 된다. 기본권, 헌법 전문, 지방자치, 통일 이후 양원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br/> <br/>-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br/> <br/>▲ 전국 동시선거의 승패는 조직이 아니라 바람이다.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지, 민주당 쪽으로 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신선한 인물을 내고, 바람이 불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br/> <br/>- 예산안 표결과 관련한 원내대책을 말해 달라. <br/> <br/>▲ 원내 일에는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관여하겠다. '한국당 패싱' 지적은 제가 원내 일에 관여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연말까지는 탄핵과 대선 패배 후 붕괴된 조직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겠다. <br/> <br/>- 다음 원내대표 때부터 개입한다면, 누구를 염두에 둔 건가. <br/> <br/>▲ 싸움 나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웃음) '친홍'(친홍준표)이라고들 한다. 지난 대선이나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최근까지도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은 10% 정도 있다. 나머지 90%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소위 계파라고 할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br/> <br/>- 당 장악력을 높이려고 친박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가. <br/> <br/>▲ 그 말은 듣기가 좀 그렇다. 이 당은 2011년도 때처럼 나를 쫓아낼 명분이 없다. 책임당원의 74%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인적청산, 조직혁신을 거친 뒤 연말에는 신보수주의를 선언하면서 정책혁신을 하겠다. <br/> <br/>- 대선 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고 공약했었는데. <br/> <br/>▲ 최저임금 대상이 알바생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 1만원까지 점차적으로 올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상할 때 정부보전을 얘기한 바는 없다. <br/> <br/>-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동의하나. <br/> <br/>▲ 선제타격에도 예방전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br/> <br/>-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어떤가. 계속 직접 뛰는 것인지, 아니면 후배를 키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br/> <br/>▲ 둘 다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반대 진영에서는 인물을 키우는데 보수우파 진영은 인물을 키운 적이 없다.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그랬다. 새 인물도 키우고 같이 경쟁하면서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것이 내 할 일이라 생각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49.txt

제목: 허각, 암 수술 날짜 받고도 콘서트 강행 "팬들과의 약속이 더 소중"  
날짜: 20171204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4130431001  
ID: 01100701.20171204130431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가수 허각(32·사진)이 지난 1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는 허각이 최근 건강검진 도중 갑상선암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 수술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수술 결과가 좋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달 말까지는 따로 스케줄을 잡지 않고 건강 관리에 집중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2010년 '슈퍼스타 K2' 우승자 출신인 허각은 그해 발라드곡 '헬로(Hello)'로 데뷔해 '죽고 싶단 말 밖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br/> <br/>지난달 18∼19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단독콘서트 '공연각'으로 팬들과 만났으며 공연을 마친 뒤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0.txt

제목: 탈모지만 당당함이 아름다운 '대머리 모델'  
날짜: 20171204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4105416001  
ID: 01100701.20171204105416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대머리 모델 테레사 핸선(26). 출처=데일리메일 <br/>탈모를 앓고 있는 여성이 모델로 일하며 당당한 모습을 뽐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영국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3일(현지시간) 대머리로 모델 업계에서 성공한 테레사 핸선(26)의 사연을 소개했다. <br/>  <br/>스웨덴 출신의 테레사는 10대 시절 포니테일 머리를 하려고 머리를 묶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br/> <br/>그녀는 “어린나이에 거울 앞에 서서 이마 한쪽 머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암인 줄 알고 걱정했다”며 “처음에는 가족만이 내가 탈모라는 사실을 알았고 1년 후 가장 친한 친구들게만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내게 탈모는 커다란 비밀이었고 누가 내 머리에 대해 물으면 매우 예민했다”고 고백했다. <br/> 가발을 쓴 테레사 핸선(오른쪽)과 평상시 모습. 출처=데일리메일 <br/>그랬던 테레사는 점차 대머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게 준비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드러낼 수 있다”며 “이게 내 자신이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br/> <br/>그녀의 직업은 모델이다. 테레사는 대머리 덕분에 모델 에이전시인 GC 매니지먼트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됐고 그녀는 “대머리가 자랑스럽다”고 웃어보였다. <br/> 대머리 모델 테레사 핸선(26). 출처=데일리메일 <br/>그녀는 “나는 과거 다른 사람들이 머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불안감에 숨겨왔다”며 “그런 태도는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머리카락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조언을 건넸다.  <br/> <br/>그녀는 "태도를 바꾸니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다. <br/>  대머리 모델 테레사 핸선(26). 출처=데일리메일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1.txt

제목: 혈액 부족한데 수혈 펑펑… ‘만사血통’ 고치자  
날짜: 2017120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3204541001  
ID: 01100701.2017120320454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겨울이 되면 기부와 훈훈한 온정의 소식이 풍성해지지만 헌혈에서만큼은 예외다. 추위와 학생 방학 등의 이유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계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혈액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br/> <br/>헌혈을 늘리기보다 혈액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실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혈액 부족 실태와 어떻게 수혈 수요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본다. <br/> <br/> 겨울은 추위와 학생 방학으로 혈액이 부족한 계절이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헌혈 줄었는데 수혈은 펑펑 <br/> <br/>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일평균 4.6일분이다. 적정보유량 5일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O형과 A형 혈액은 4.0으로 가장 낮다. <br/> <br/>한국 헌혈자 73%는 10∼20대가 차지한다. 주 헌혈자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혈의 73%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및 중증질환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br/> <br/>혈액 부족의 또 하나의 이유이자 더 큰 문제는 높은 혈액 사용량이다. 헌혈받은 혈액은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빈혈 치료 등에 쓰인다. 하지만 수혈 외 대체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한국 의료현장에서는 수혈이 과도하다. <br/> <br/>실제 일본은 인구 10만명당 28단위 혈액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46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혈액관리학회장(국립암센터)은 “<span class='quot0'>정부가 제정한 수혈 가이드라인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7g/dL 이하인 경우에만 수혈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과다한 수혈이 이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심지어 12g/dL일 때도 수술 후 수치 저하를 우려해 미리 수혈하기도 한다</span>”고 지적한다. <br/> <br/>수혈이 환자 치료에 최선이라면 줄일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수혈은 부작용이 많이 따른다. 잘못된 수혈로 인한 사고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혈액형이 같더라도 남의 피를 수혈받으면 면역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 수혈 받은 혈액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보고 체내 면역세포가 이를 공격하는 것이다. 발열,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거나 피가 덩어리져 혈관을 막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런 수혈 부작용이 3200여건 발생했다. <br/> <br/>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환자 22만7425명을 분석한 결과 수혈받은 환자가 그러지 않은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률은 80%, 사망률은 두 배나 높았다. 또 미국 외과학회 전국 조사 결과 수혈을 적게 할 경우 합병증과 입원기간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여러 암 환자의 경우 수술 전후 수혈하지 않았을 때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엄태현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혈액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건강을 위해 수혈은 적절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혈액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제도 개선 필요 <br/> <br/>수혈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셀세이버(Cell saver)라는 장치는 수술 중 출혈된 혈액을 체외에서 수거해 원심분리기로 혈액 성분을 분리한 뒤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장치다.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혈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술 전후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데는 정맥 철분주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혈 효소 주사도 수혈 대신 환자 치료에 쓰인다. <br/> <br/>수혈의 부작용과 다양한 수혈 대체 치료법이 알려지면서 수혈을 최소화하하는 혈액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술 전 철분제 복용, 합성 조혈제 투여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수술 중에는 셀세이버 등을 활용하며 수술 후 보존적 처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br/> <br/>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를 활용한 적정 수혈이 일반화 됐다. 미국은 1996년 에인절우드 병원에서 무수혈환자 치료 경험을 중심으로 환자 혈액관리를 시작해 현재까지 확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로열 콘월 병원에서 환자 혈액관리를 시작한 뒤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07년 서호주에서 주 보건의료시스템에 환자 혈액관리를 도입해 2011년부터 전역에 시행했다. 2014년에는 국가 혈액정책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혈 적정성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br/> <br/>한국에서는 고려대병원·순천향대병원·인제대백병원 등 전국 20여개 종합병원에서 무수혈 수술을 도입해 연간 700여명이 무수혈 수술을 받고 있다. <br/> <br/>하지만 병원 차원의 노력과 의료 현장의 인식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맥 철분제와 셀세이버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혈에 대해서는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br/> <br/>김영우 회장은 “<span class='quot2'>수혈을 최소화할수록 치료 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대체 치료는 거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2'>많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대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2.txt

제목: 기득권에 갇힌 한국경제… 장벽을 뚫어라  
날짜: 20171202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2030722001  
ID: 01100701.20171202030722001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NEAR재단 편저/21세기북스/3만원한국의 경제생태계/NEAR재단 편저/21세기북스/3만원 <br/> <br/>‘곳곳이 막히고 끊기고 갇혔다. 침몰하는 한국 경제 해법은 없는가.’ <br/> <br/>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매년 성장률 3%에도 못미치는 저성장 기조에 갇혀 있다. 갈수록 악재는 쌓이고 있지만 출구는 없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14인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의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우리의 수출은 줄고 있다. 수출의 신기루를 본 나머지 정작 실체는 보지 못하고 있다. <br/> <br/>지난 정부들의 정책 비효율성은 점입가경이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2006~2016년 11년간 모두 101.7조원을 쏟아부었다. 이 기간 중 499만명이 출생했다. 신생아 1명당 대략 2000만원의 돈이 들었다. 하지만 연도별 신생아는 2006년 44만8000명에서 2016년 40만6000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은 2016년 1.17명으로 바닥 수준이다.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 1.68명에 훨씬 못 미치는 꼴찌다. 세계에서도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br/> <br/>일자리 창출 정책은 또 어떤가. 2014~2016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43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업자 수는 되레 늘었다. 2013년 409만명에서 2016년 454만명이었다. 그럼에도 경제 관료들은 정책생태계를 무시하고 단편적·대증적인 정책을 답습했다. <br/> <br/>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암적 존재로 기득권의 장벽을 지적했다. 기득권자들은 전 분야에 걸쳐 경제생태계를 지배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기득권자들은 후발자의 진입을 막거나 불공정 경쟁으로 그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 지금도 특정 패거리가 국가의 인사·예산·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지난 10여년간의 이 같은 행태는 국가를 경직화하고 경제를 망쳤다. 국가 경제의 경직성은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린다. 이렇듯 한국경제는 인력·예산·정보를 패거리끼리 공유하는, 불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정치적 담합 구조는 더욱 굳어졌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대통령 단임제와 함께 현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념 문제가 경제나 시장 체계에 깊숙이 개입해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br/> <br/> 저자들은 “<span class='quot0'>한국경제는 활력과 추동력이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현 정부는 기득권의 장벽을 걷어내고 ‘슈뢰더’식 개혁을 이뤄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span>”고 촉구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저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도 우려한다. “<span class='quot1'>야심차게 추진한 국정 전략도 자칫 진보 정권의 정책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span>” 소득 주도 정책은 구조 개혁 자체를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br/> <br/>저자들은 “소득 정책의 추진은 고용주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고용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과연 고용주들이 높아진 임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임시직 대신에 정규직을 선호할까. 유감스럽게도 소득 주도 정책은 고용주들에게 고용을 촉진시키는 신호가 아니라, 반대로 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머지않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br/> <br/>지난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를 키우려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이 필요하다. 돈을 쓰려면 우선 더 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br/> <br/>저자들은 “<span class='quot0'>현재 한국은 세계 무역 구조의 재편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한 채 침몰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한국경제가 희망을 찾는 길은 경제생태계의 기득권, 폐쇄성, 경직성, 단기주의, 현상 유지 증후군을 혁파하고, 단편적·대증적인 정책을 걷어내야 한다</span>”고 지적한다. 우선 냄비 근성인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br/> <br/>저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통일 후유증으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은 2003년 4월 슈뢰더 총리의 ‘어젠다(Agenda 2010)’로 대개혁을 단행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복지 체계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부담과 편익의 틀을 개혁했다. 지금 독일은 그리스 등 동유럽은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경제의 목을 쥐면서 유럽 패권국으로 등장했다. 이는 분명한 비전과 일관된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br/> <br/>저자들은 경제생태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리더십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span class='quot1'>혁신을 내세우는 정치 리더십이 각종 기득권자들에게 포획되어 꼼짝도 하지 않는 정치, 정책 프로세스의 벽을 넘지 못하면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span>” 저자들은 경제생태계 개혁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정치인을 고대한다고 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3.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로…긍정 암 환자에 네티즌 애도  
날짜: 2017120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201144554002  
ID: 01100701.2017120114455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약 2년 반 동안 암과 맞서 싸우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아 보는 이에게 생각을 안겼던 중국의 한 여성 사망 소식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애도를 보내고 있다. <br/> <br/>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쓰촨(四川) 성에 살던 저우 린(29)씨가 같은달 27일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2015년 6월에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그는 여러 치료를 거치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br/> <br/>저우씨의 가족은 생전 그가 운영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br/> <br/>  약 2년 반 동안 유방암과 맞서 싸우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아 보는 이에게 생각을 안겼던 저우 린(29·사진)씨가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쓰촨(四川) 성에 살던 그는 2015년 6월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여러 치료를 거치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저우씨의 사망소식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중국 인민망 캡처. <br/> <br/>암 판정 1년여가 지난 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서도 저우씨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SNS 계정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br/> <br/>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아 많은 이에게 감동도 줬다. <br/> <br/>저우씨는 회사에서 많은 동료들을 알게 된 데 고마워했으며, 친구와 ‘친구의 친구’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자기를 응원하고 돌보며 사랑해준 많은 이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br/> <br/>만족할 인생을 살았으며, 신께서 잘 보살펴줬다고 저우씨는 덧붙였다. <br/> <br/>저우씨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날 사랑해주고, 함께 결혼식 드레스 고를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해 보는 이의 코끝을 찡하게 했다. <br/> <br/>  약 2년 반 동안 유방암과 맞서 싸우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아 보는 이에게 생각을 안겼던 저우 린(29·사진)씨가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쓰촨(四川) 성에 살던 그는 2015년 6월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여러 치료를 거치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저우씨의 사망소식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중국 CCTV 웨이보 영상 캡처. <br/> <br/>아픈 와중에도 저우씨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눈에 담고 싶어서다. <br/> <br/>응원해준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겠다고 과거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저우씨가 밝혔지만,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난달 26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한 저우씨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하늘로 떠났다. <br/> <br/>  약 2년 반 동안 유방암과 맞서 싸우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아 보는 이에게 생각을 안겼던 저우 린(29·사진)씨가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쓰촨(四川) 성에 살던 그는 2015년 6월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여러 치료를 거치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다. 저우씨의 사망소식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진은 과거 인터뷰 당시 저우씨의 모습. 중국 인민망 캡처. <br/> <br/>저우씨는 가족 품에서 눈감기 전 부모에게 아름다운 세상에 자기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저우씨의 가족은 생전 그의 바람대로 각막을 비롯한 일부 장기를 기증할 예정이다. 남은 치료비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4.txt

제목: [곽금주의심리카페] 외로운 계절을 다시 맞이하며  
날짜: 20171130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30204738001  
ID: 01100701.2017113020473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12월이다. 올해도 이제 한 달만이 남아 있다. 겨울 찬바람은 이젠 가을이 갔음을 알려준다. 계절에 따라 감정도 울적해진다. 따뜻함이 그립고, 햇볕이 그립다. 한여름의 따가운 빛이 그렇게나 싫었건만 언제 그랬나 싶다. 계절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 같다. 계절성 우울증은 매해 같은 시기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감정장애이다. 주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늦가을에 시작해 3월이나 4월이 돼야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해가 짧은 겨울에 우울함이 커지고 밝은 봄이나 여름에는 훨씬 더 쾌적하고 활기차게 느낀다. 쌀쌀한 공기가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키기는 하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기온보다는 일조량과 더 관련이 있다. <br/> <br/>그러나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찬바람이 불고 일조량이 줄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외로움이란 진화론적으로 생존과 번식률을 높이기 위한 생물학적 주의경보 시스템이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그래서 집단을 형성해 같이 사냥하고 먹이 찾기가 더 수월해진다. 또 집단을 지어 다니게 되면 맹수라든지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로움은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갈망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외로움은 인간의 관계 욕구를 자극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준다. <br/> <br/>이러한 본능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게 되면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학습이나 기억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일으키며 심리적 건강에 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로몬인 코티솔을 상승시키면서 관련 질병을 일으켜 악영향을 미친다.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신체적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암 발병률도 높인다.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외로움이 깊어지게 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로 타인이나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조기사망을 14% 이상 증가시킨다고 한다. 외로움이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사망 가능성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두 배나 높다고 한다. <br/> <br/>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은 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을 지나치게 가혹한 곳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 등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또 필요 이상의 많은 걱정을 하고 모든 것을 경계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지 못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방어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돼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방어벽으로 인해 더욱 더 외로움은 깊어간다. <br/> <br/>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제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에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외롭지 않고 충만함을 느낀다면 괜찮다. 그러나 가을 외로움이 점차로 심해가는 것 같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지 말고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해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스산한 외로움의 긴 겨울을 이겨낼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br/> <br/>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언론사: 세계일보-1-55.txt

제목: "행복했습니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티저 공개  
날짜: 20171130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30111632001  
ID: 01100701.2017113011163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br/> <br/> <br/>"<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span></span>" <br/> <br/>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두 번째 티저가 공개됐다. <br/> <br/>'세상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중년 부인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br/> <br/>1996년 방송 당시 대한민국을 뭉클한 가족애로 물들였던 원작의 강력한 힘, 홍종찬 감독의 섬세한 연출, 명배우들의 합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이에 '세상에서'는 방송 전부터 누구나 공감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며 대중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br/> <br/>공개된 티저 영상은 춥지만 따뜻한 겨울 햇살이 비추는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김장을 담그는 5인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br/> <br/>할머니 김영옥부터 엄마 원미경, 아빠 유동근, 딸 최지우, 아들 최민호에 이르기까지. 갓 버무린 김치를 먹여주거나,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진짜 가족처럼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며 '세상에서'가 보여줄 따뜻한 가족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br/> <br/>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극중 가족으로 등장하는 다섯 배우의 얼굴 가득한 미소다.  <br/> <br/>늘 곁에 있기에 미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이토록 환한 미소를 띄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br/> <br/>극중 아들로 등장하는 최민호의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span></span>"라는 내레이션은 담담하면서도 울컥한 감동을 안겨준다.  <br/> <br/>화려하진 않지만,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렬한 울림을 보여줄 '세상에서'. 21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뜨거운 감동과 공감으로 물들일 '세상에서'의 첫 방송이 기대된다. <br/> <br/>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21년 만에 리메이크되는 노희경 작가의 대표작이다. <br/> <br/>1996년 방송 당시 제3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거머쥔 수작으로 믿고 보는 배우들이 합류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변혁의 사랑' 후속으로, 12월 9일 오후 9시 tvN에서 첫 방송된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tvN

언론사: 세계일보-1-56.txt

제목: 이종혁 최고위원, 총구를 대표에게 겨누지 말라  
날짜: 20171129  
기자: 황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9141641001  
ID: 01100701.20171129141641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은 29일 홍준표 대표에게 대항하는 당내 일부 의원을 향해 "<span class='quot0'>총구를 당 살리려 발버둥치는 대표에게 겨누지 말고 나라 망치려고 작심한 좌파정권과 좀 싸워달라</span>"고 쓴소리를 했다. <br/> <br/>홍 대표의 최측근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span class='quot0'>대통령을 지켜야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같다 하고, 우파정당을 망하게 만든 암적존재들이 있어 암덩어리라하고, 도저히 생살로 돋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아 고름이라고 지적하는 당 대표의 정치적수사를 막말이라고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죠</span>"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선교 의원은 전날 "<span class='quot1'>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span>"라며 "<span class='quot1'>바퀴벌레로 시작해 암 덩어리,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있다</span>"며 홍 대표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았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홍 대표는 선거 초반부터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이라며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r/> <br/>이 최고위원은 "심재철 의원님보고 느끼시는 게 없나요"라며 "정치를 자신을 위해서만 하시지 말고 나라를 위해 좀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고 당부했다. <br/> <br/>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심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br/> <br/>이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br/> <br/>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br/>사진=연합뉴스

언론사: 세계일보-1-57.txt

제목: 美 환경보호국, 韓 환경기업 단독 초청 기술설명회 개최  
날짜: 2017112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9093839001  
ID: 01100701.20171129093839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br/> <br/> 국내 수(水)처리 기업 부강테크는 미국 환경보호국(US 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자사 막 분리기술 FMX의 단독 설명회를 개최했다. <br/> <br/> 미국 환경보호국은 최근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FGD : Flue Gas Desulfurization)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사람뿐 아니라 수생 동물들의 암 또는 기형을 초래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1100개가 넘는 미국 내 석탄 화력 발전소들 중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알려 졌다. <br/> <br/> 당초 미 환경보호국은 내년부터 배연탈황 폐수 처리를 위하여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로 이루어진 최적기술(BAT)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검토한 관련 기술이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부강테크의 막 여과 기술(FMX)을 단독으로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br/> <br/> 막 여과 기술(FMX)은 나노필터(NF)를 장착하여 90%이상의 스케일 유발 물질과 50%이상의 총 용존 고형물(TDS : total dissolved solid)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며 막을 빠져 나가지 못한 농축수를 석고나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 투입하고, 동시에 처리 수는 재순환 시키는 무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후단에 역삼투막을 추가하는 기술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FMX는 EPA가 제시한 방류 수질을 안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미 환경보호국은 이례적으로 부강테크를 별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기술을 최적기술(BAT)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번 규제 대상인 석탄화력발전소에도 관련기술에 대한 설명을 병행할 예정이다. <br/> <br/> 부강테크 박기택 대표는 "<span class='quot0'>FMX 기술은 실험용 장비로 주목받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우리 정부 지원을 통해 상용화 장비로 장기간 안정적인 처리 결과를 보여 주게 되면서,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친환경 경영으로 기조를 전환 중이며 배연탈황 폐수와 관련한 자발적인 시설도입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막 여과 기술(FMX)은 막의 막힘을 방지하는 핵심기술로 일반 막 분리 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축산폐수, 침출수 등 고농도 폐수를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삼성(현 롯데 정밀화학), LG화학, CJ, 동국제약, 비피도, Nalco, 네슬레, 듀퐁, 펩시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폐수 처리 및 분리와 농축이 필요한 제품 제조 공정까지 진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br/>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8.txt

제목: “겨울철 심혈관 만성 질환자들 조심하세요”  
날짜: 20171129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9060237002  
ID: 01100701.2017112906023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특히 겨울에는 심혈관 계통 질환으로 인한 출동이 많아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을 앓는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2016년 질병별 구급활동 현황 통계를 28일 발표했다. <br/>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대응 출동은 총 151만9287회로, 처치 환자는 108만1335명이다. 하루 평균 1387건 출동해 987명의 환자를 처치한 셈이다. <br/> <br/>응급환자는 만성질환자가 69만9069명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어 열상 등 사고 부상 27만8548명(25.8%), 교통사고 10만3718명(9.6%) 등이었다. <br/> <br/>만성질환자 중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많았다. 최근 3년간 고혈압 환자는 17만2987명, 당뇨 환자는 10만3227명으로 두 질환 환자가 만성질환자의 39.5%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응급환자 중에서도 25.5%를 차지하는 수치다. <br/> <br/>119구급대가 처치한 환자 4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 환자인 셈이다. 이어 심장질환 환자 4만6836명, 각종 암 4만1880명, 뇌혈관질환 3만 5406명, 폐질환 1만2983명, 신부전 1만839명, 간경화 9509명 등의 순이었다. <br/> <br/>12월은 특히 만성질환자로 인한 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집계됐다. <br/> <br/>최근 3년간 12월에 119구급대가 처치한 만성질환자는 6만2602명으로, 환자가 적은 편인 1월(5만4414명)이나 6월(5만4735명)보다 15%가량 많았다. 이 중 심혈관 계통 질환자는 2014년 12월 6627명에서 2016년 12월 9120명으로 37.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소방재난본부는 심혈관 계통 만성질환자는 겨울철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옷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후 한겨울 찬바람에 노출되면 갑작스런 혈관 수축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br/> <br/>한편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부상자는 11월이 1만11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부상자(27만548명)의 절반은 낙상 사고(14만4987명)였는데, 역시 11월(1만5995명)과 12월(1만3792명)에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 <br/> <br/>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span class='quot0'>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넘어지면 중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겨울철에는 꼭 장갑을 착용하고, 굽 높은 신발이나 오래된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당부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59.txt

제목: 멀쩡한 환자 전립선 떼 낸 대학병원 물의  
날짜: 20171128  
기자: 안송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222134001  
ID: 01100701.2017112822213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이 조직검사 과정에서 검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암에 걸렸다며 엉뚱한 환자의 전립선을 대부분 절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r/> <br/>28일 수원 A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8월 B(68)씨는 혈뇨 증상으로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지난달 11일 7시간 넘게 수술을 받아 전립선 대부분을 떼어낸 뒤 20일 퇴원했다. <br/> <br/>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같은 달 27일 외래진료가 잡혀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병원 측은 당일 오전 전화를 걸어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외래진료 날짜를 이달 1일로 연기했다. <br/> <br/>수술 후 첫 외래진료에서 B씨는 주치의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오진으로 수술하지 말았어야 할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A병원은 조직검사 과정에서 B씨의 검체가 다른 암환자의 검체와 바뀐 사실을 모르고 B씨를 전립선암으로 진단한 뒤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B씨의 몸에서 떼어낸 전립선 등 인체 조직을 재검사했지만, 암세포는 나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 중엔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r/> <br/>황당한 실수로 전립선을 절제 당한 B씨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게 소변이 줄줄 새는 증상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br/> <br/>더욱이 B씨는 의료진 안내에 따라 7일 아들과 함께 A대학병원 고객상담실을 찾았으나 상담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멸감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해당 직원은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내며 “<span class='quot0'>흥정은 없으니 제시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제3의 의료분쟁조정 기관을 통하라</span>”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br/> <br/>B씨는 “합의금보다 먼저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소변이 새는 후유증을 어떻게 해줄 건지 등 건강상의 후속조치를 안내받을 줄 알고 갔더니 제시한 합의금을 받고 끝내라는 식의 상담만 이어졌다”며 “마치 ‘우린 이것밖엔 못 주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r/> <br/>A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환자에게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환자와 가족 분께 사과드린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A병원은 의료사고 책임을 물어 주치의와 병리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B씨와 가족들은 A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br/> <br/>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0.txt

제목: ‘非서울대·여성’ 배려… 일선 법관 발탁  
날짜: 20171128  
기자: 장혜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190636001  
ID: 01100701.20171128190636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것은 ‘비서울대’와 ‘여성’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점쳐졌던 ‘파격’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법관 승진 코스’였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으며 사법행정 업무보다는 일선에서 재판을 오래 한 법관들을 발탁했다는 평가다. <br/> <br/>안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김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다.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31년 중 24년을 일선 법원에서 근무했다. <br/> <br/>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좌),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소송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br/> <br/>2005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span class='quot0'>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span>”는 판결을 내리며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크게 넓혔다. 2007년에는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는데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초로 내리며 직업군인의 직업상 권리를 보장하기도 했다. <br/> <br/>민 부장판사 역시 미국 조지타운대 교육파견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생활을 제외하면 1989년부터 28년간 법관생활 대부분을 일선 재판 현장에 있었다. 2002년∼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br/> <br/>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안 법원장의 경우 2009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늠하는 시각도 있다. <br/> <br/>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1.txt

제목: 한국당 12월 12일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잇단 파열음  
날짜: 20171128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184440002  
ID: 01100701.20171128184440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내달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연일 친박(친박근혜)계에 거친 언사를 쏟아내자,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 막말을 비판하고 나섰다. <br/> <br/>4선인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span class='quot0'>어제도 홍준표 대표는 고름, 암 덩어리의 막말을 쏟아냈다</span>”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 선거 초반부터 홍 대표는 겁박과 막말로 줄세우기에 여념없다”며 “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br/> <br/>4선인 한선교 의원도 이날 홍 대표 사당화를 막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0'>계속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바퀴벌레로 시작해 이제는 암 덩어리, 나아가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있다</span>”고 비판했다. 특히 “마침 어제 저녁 식사 도중 텔레비전에 나오는 홍 대표의 ‘고름’이란 말을 듣고 체하고 말아서 더 이상 식사는 할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br/> <br/>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오후 정론관에서 당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이에 홍 대표는 이날 SNS에 “<span class='quot1'>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 하더니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야 나타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느냐</span>”고 핏대를 세웠다. <br/> <br/>홍 대표와 중진 의원 간 충돌은 원내대표 경선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주영·나경원·유기준·조경태·한선교·홍문종·김성태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나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선 “<span class='quot2'>아직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것</span>”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br/> <br/>홍 대표는 이날 이주영 의원 견제에도 들어갔다. “<span class='quot3'>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span>”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의원이 그동안 홍 대표의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개명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반박한 셈이다. <br/> <br/>한편 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진상조사위’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라며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심 부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2.txt

제목: [뉴스 투데이] "나를 지키면서 죽고 싶다"…의향서 작성자 2000명 넘어  
날짜: 20171128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181353001  
ID: 01100701.2017112818135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7명이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와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00명을 넘어섰다. <br/> <br/>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상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암 말기 등 임종이 임박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해 숨진 환자는 7명이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지난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7명 중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시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는 2건으로 나타났다. <br/> <br/>환자가 의사 표시를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 2인(담당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환자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결정은 4건이었다. 환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없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을 때에는 환자의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1건이었다. <br/> <br/> <br/>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가 있다. 7명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명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나머지 6명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은 ‘유보’ 사례였다. 이들 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뒤 사망에 이른 시간은 일주일을 넘지 않았다. <br/> <br/>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 1월15일까지 진행되고 내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과 정식 시행 사이 20여일간의 공백기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br/> <br/>성인이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이 작성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 기관이 5곳(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에 불과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안할 때 관심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3.txt

제목: 오진으로 엉뚱한 사람 전립선 떼 낸 뒤 합의종용까지  
날짜: 20171128  
기자: 김영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170513001  
ID: 01100701.201711281705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이 조직검사 과정에서 검체가 바뀐 줄도 모르고 암에 걸렸다며 엉뚱한 환자의 전립선을 대부분 절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이 대학병원은 상담사를 내세워 환자에게 일방적인 합의금을 통보하는 등 인격 모독까지 자행해 해당 환자가 법정 대응을 준비중이다. <br/> <br/>28일 수원 A대학병원에 따르면 올해 8월 B(68)씨는 혈뇨 증상으로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지난달 11일 7시간 넘게 수술을 받아 전립선 대부분을 떼어낸 뒤 20일 퇴원했다. <br/> <br/>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같은달 27일 외래진료가 잡혀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병원 측은 당일 오전 전화를 걸어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외래진료 날짜를 이달 1일로 연기했다고 B씨는 밝혔다. <br/> <br/>수술 후 첫 외래진료에 온 B씨는 주치의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오진으로 수술하지 말았어야 할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A병원은 조직검사 과정에서 B씨의 검체가 다른 암환자의 검체와 바뀐 사실을 모르고 B씨를 전립선암으로 진단한 뒤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B씨의 몸에서 떼어낸 전립선 등 인체 조직을 재검사했지만, 암세포는 나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 중엔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r/> <br/>황당한 실수로 전립선을 절제 당한 B씨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게 소변이 줄줄 새는 증상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부 주변에는 다섯 군데의 수술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br/> <br/>더욱이 B씨는 의료진 안내에 따라 7일 아들 둘과 함께 수원 A대학병원 고객상담실을 찾았으나 상담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멸감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합의금 얘기를 한 적도 없는 해당 직원은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내며 “<span class='quot0'>흥정은 없으니 제시한 돈을 받던지 아니면 제3의 의료분쟁조정 기관을 통하라</span>”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br/> <br/>B씨는 “합의금보다 먼저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소변이 새는 후유증을 어떻게 해줄 건지 등 건강상의 후속조치를 안내받을 줄 알고 갔더니 제시한 합의금을 받고 끝내라는 식의 상담만 이어졌다”며 “마치 ‘우린 이것밖엔 못주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r/> <br/>B씨는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암도 아닌데 전립선을 떼어낸 탓에 소변이 줄줄 새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br/> <br/>A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환자에게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환자와 가족분께 사과드린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A병원은 조직검사 과정에서 실수한 병리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한편, 의료사고 책임을 물어 주치의와 병리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B씨와 가족들은 A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br/> <br/>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4.txt

제목: 나경원 “홍준표 막말,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  
날짜: 20171128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142429001  
ID: 01100701.20171128142429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br/> <br/> <br/> <br/>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사진)이 28일 홍준표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br/> <br/>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0'>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어제도 홍 대표는 고름, 암 덩어리의 막말을 쏟아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나 의원은 “<span class='quot0'>원내대표 선거는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선택이 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구태, 기득권, 부패 등 당에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안보와 경제위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보수정당, 신뢰할 수 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장이 되어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한편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12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br/> <br/>이번 경선에는 나경원 의원 이외에도 유기준, 조경태, 홍문종, 김성태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연합뉴스

언론사: 세계일보-1-65.txt

제목: [세계는 지금] 산 채로... 혹은 일부만... 그렇게 팔려나간다  
날짜: 20171128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8060314001  
ID: 01100701.2017112806031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새끼 2마리, 각각 7500달러(약 815만원), 특가.</span>” 케냐에 거주하면서 영장류 밀수범을 추적하고 있는 대니얼 스타일스(72)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새끼 오랑우탄을 판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이메일로 오랑우탄 2마리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자신을 태국 방콕에서 사는 톰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즉시 거래조건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다. 멸종위기 상태인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는 SNS를 중심으로 영장류 밀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빼앗긴 영장류’의 저자인 그는 “<span class='quot0'>사체인 상아, 코뿔소 뿔, 호랑이 뼈는 물론 살아있는 영장류 새끼 밀수도 성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밀수범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해보면 마피아는 아마추어 수준</span>”이라고 지적했다. <br/>불법 야생동물 밀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십년간 진행된 밀렵으로 코뿔소 등 멸종위기종들이 늘었지만 오히려 개체 수 하락에 따라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르면서 범죄 조직이 야생동물 밀수에 뛰어드는 등 범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스타일스의 사례처럼 SNS를 이용하거나 살아있는 생물을 거래하는 방식의 새로운 밀수 방식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야생동물 밀수는 해당 개체 수를 멸종시키며 공공보건 등의 측면에서 인간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지만 국가 간 공조 부족, 낮은 처벌 수위 등 성긴 규제 환경과 맞물리면서 확산하고 있다. <br/> <br/>◆야생동물 밀수 실태와 원인은 <br/> <br/>27일 야생동물 밀수 범죄를 감시하는 국제 시민단체 ‘TRAFFI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밀렵 행위로 7100마리의 코뿔소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3년 1000마리, 지난해 1160마리의 사체가 확인되는 등 2010년 이후 남아프리카 지역 전체 코뿔소의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밀수를 위해 살해된 아프리카코끼리 개체 수는 10년 전 대비 현재 약 2배 증가했고, 적발된 상아는 3배 정도 늘었다. 야생의 호랑이 개체 수는 한 세기 만에 10만마리에서 현재 3500여마리 정도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마트라 호랑이 사망 원인의 78%는 밀수를 위한 불법 밀렵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br/> <br/>야생동물 밀수 하면 떠오르는 이런 동물 외에도 밀렵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지난 40년간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중 대표 생물 1만종을 선정해 개체 수를 측정한 결과 52%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상태 생물종의 멸종 속도에 비해 1000~1만배 빠른 것이다. WWF는 “<span class='quot1'>거주지가 사라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밀수를 위한 사냥과 밀렵이 이런 비극의 중요한 원인</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야생동물 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야생동물 밀수로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처벌되는 사례가 적고, 건강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원하는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환경범죄대책기구(EFFACE)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야생동물 밀수 규모는 약 200억달러(약 21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밀수 항목별 가격을 보면 코뿔소 뿔은 ㎏당 4만유로(5160만여원), 호랑이 뼈는 ㎏당 900유로(116만여원), 가공되지 않은 상아는 ㎏당 620유로(80만여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시장에서 멸종위기란 딱지가 붙으면 가격이 치솟는데 희귀 앵무새 한 쌍은 5만유로(6500만여원)에 판매되기도 했고, 고릴라 새끼 한 마리는 25만달러(2억7000만여원)에 달한다. 밀수 시장의 소비자들은 주로 건강 증진 및 미용, 패션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찾는데 최근에는 애완용 소비도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애완용 도마뱀 밀수가 많고, 남미에는 부활절에 하얀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해 바다거북 밀수가 폭증한다. <br/> <br/>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밀수되다 압수된 벵갈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야생동물 밀수 반대 행사에서 사육사와 함께 놀고 있다.◆밀수로 죽는 동물들 <br/> <br/>야생동물 밀수는 공항 세관 등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밀렵과 밀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다수 동물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남미의 한 밀수업자는 “100마리의 앵무새, 도마뱀 중에서 밀수 과정 중 살아남는 개체는 불과 5~10마리밖에 안 된다”며 “앵무새의 경우, 동물원 소속 앵무새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야생 앵무새에 링을 끼우는데 이것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실토했다.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는 밀수가 어려운 성체 대신 새끼를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밀수업자들은 새끼 한 마리를 생포하기 위해 가족 전체를 몰살하기도 한다. NYT는 “<span class='quot2'>성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난폭해 밀수가 어려워 새끼를 노린다</span>”며 “<span class='quot2'>작은 공이나 기내용 가방에 새끼를 구겨넣은 사례가 이집트에서 적발되는 등 밀수는 영장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span>”고 전했다. 또 뱀, 거북, 열대어, 앵무새가 마약 운반에 활용되고, 운반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앵무새의 경우 90%가 밀렵 또는 밀수 과정 중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밀수업자들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TRAFFIC이 456건의 야생동물 밀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밀수업자들은 밀렵 장소에서 수요자가 있는 국가로 직접 동물을 밀수하기보다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면서 감시를 피하고 있다. 또 중국계 밀수업자들이 직접 남아공으로 건너가 코뿔소 뿔로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만들어 아시아 지하 시장에 유통하는 등 현지에서 직접 밀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뿔이나 상아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 기계 부품, 땅콩 봉지에 숨겨서 들여오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치약, 샴푸 속에 넣어 반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2017년 6월12일 남아공 경찰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요하네스버그의 한 공장에서 가루 형태의 세공된 코뿔소 뿔을 발견하기도 했다.  <br/> <br/> 인도네시아 경찰이 지난 16일 공개한 희귀종 뉴기니아 앵무의 밀수 모습. 이 앵무새는 파이프 속에 넣어져 반입되다 적발됐다. <br/>AFP통신◆야생동물 밀수 범죄는 인간에게도 해악 <br/> <br/>야생동물 밀수는 희귀동물의 멸종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범죄를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한다. EFFACE는 각종 범죄조직들이 야생동물 밀수에 뛰어드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이 무기 구매나 테러 자금 등에 전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러시아의 테러 조직은 한 마리당 10만달러(약 1억원)에 독수리를 팔아 조직원 훈련비용으로 사용했고, 수단의 반군들은 무기를 사기 위해 코끼리를 죽여 상아 매매에 나서고 있다. 또 동물에 마약을 숨기는 등 전체 밀수 범죄의 40%가 다른 범죄에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고 브라질 당국은 지적했다. 아울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경우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EFFACE는 밝혔다. 특히 코뿔소 뿔이 열을 내려주고, 암을 치료해준다는 속설 탓에 최근 중국, 베트남에서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의학적 근거는 없다. <br/> <br/> 밀수업자가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비단원숭이 <br/>자료사진야생동물 밀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돼 3만5000여종이 거래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적발될 확률이 낮고 처벌이 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CITES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은 야생동물 밀수가 적발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사 자격 요건을 폐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규정이 유럽연합에서 적용된 적은 없었다. <br/> <br/>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의 전면적인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국가 간 사법 협조체계 구축, 엄한 처벌 적용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밀수 전면 금지는 야생동물의 시장 가치를 높여 밀수업자들이 오히려 범죄에 나서도록 하고, 국내 밀수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유리 페도토프는 “적합하지 않은 법과 제재, 수사 기관의 인력 부족, 국가 간 협조 부재가 야생동물 밀수 적발을 어렵게 한다”며 “특히 범죄 조직이 연관된 야생동물 밀수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TRAFFIC은 “동물을 압수하는 데서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밀수조직의 검거가 수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밀수 경로 및 방법이 실시간으로 국가 간 공유돼야 하고, ‘야생동물밀수 퇴치를 위한 국가 통합 체계’(NISCWT)와 같은 협약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하루빨리 비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6.txt

제목: 洪 vs 친박,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또 ‘전운’  
날짜: 20171127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7185047001  
ID: 01100701.20171127185047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친박계가 ‘홍준표 사당화’ 논란에 불을 지피며 공세를 펴자, 이에 맞서 홍 대표가 ‘친박 청산’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격하고 있다. <br/> <br/> 자유한국당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pan class='quot0'>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 민망한 표현을 하고 있다</span>"고 말하고 있다.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 공격에 포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span class='quot0'>주말 이틀 동안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계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야기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기에 유감</span>”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화합과 보수우파 가치 재건, 범보수 통합으로 가야 하는데 당대표가 되고 제대로 하나 이뤄진 것 없이 오히려 역행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가 지난 주말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보수의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친박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br/> <br/>김 최고위원은 사당화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제 문을 닫아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당무감사를 통한 조직 정비를 한다고 해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br/> <br/>그러자 친홍(친홍준표)계인 이종혁 최고위원이 “예우를 갖추라”고 맞받아쳤다. 이 최고위원은 “<span class='quot2'>여당이,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당대표를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당내 인사를 보지 못했다</span>”고 꼬집었다. <br/> <br/>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br/>서상배 선임기자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친박계를 겨냥해 “<span class='quot1'>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화합과 통합은 안 된다</span>”며 “암 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 청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연말까지 새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며 “배후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암 덩어리를 안고 가자는 것은 같이 죽자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br/> <br/>홍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경선 시점에 대해 재차 의견을 나누며 “<span class='quot1'>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7일에 경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span>”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전교조 합법화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7.txt

제목: 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 사무장병원비리 101명 적발  
날짜: 20171127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7154927001  
ID: 01100701.20171127154927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일명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1억원대 보험사기와 42억원대 대출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br/> <br/>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br/> <br/>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br/> <br/>이 병원 환자 91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r/> <br/>경찰은 또 대출 브로커 C(49)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49) 씨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행정원장 A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2017년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또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키고 나서 진료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여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다. <br/> <br/>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1인당 3200만∼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br/> <br/>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켰다. <br/> <br/>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br/> <br/>A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br/> <br/>브로커 C씨는 다른 병원 3곳의 원장들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8.txt

제목: 사무장 한방병원 입원환자 91명 중 일부는 국내여행까지…  
날짜: 20171127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7133505001  
ID: 01100701.2017112713350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과 짜고 61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부산의 한 사무장 한방병원은 면접을 통해 환자를 골라 뽑았다. <br/> <br/>입원환자 중 일부는 신용카드를 사용, 국내여행까지 즐길 것으로 드러났다. <br/> <br/>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유인책까지 놓고 보험사기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적으로 영입했다. <br/> <br/>의사들은 '환자 면접'을 거쳐 입원 환자를 뽑았다. 암 수술을 받았지만,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고객'이었다. <br/> <br/>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있는 암 수술 전력이 있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br/> <br/>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병원이 자의적으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고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br/> <br/>이 병원은 이들 환자를 입원시킨 뒤 사실상 외출·외박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r/> <br/>그러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보험사기 수사에 대비해 '무단 외출·외박 지침'까지 내렸다. <br/> <br/>먼저 외출·외박하는 환자들에게 병원 밖에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했다. <br/> <br/>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병원 밖에서는 병원에서 쓰지 않는 다른 휴대전화를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경찰이 보험사기 수사를 하면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br/> <br/>실제 해당 병원 간호사의 근무인계서를 보면 '외출·외박 때 밖에서 본인 신용카드 쓰지 않도록 설명해주세요'라고 표기돼 있다. <br/> <br/>그러나 이들 환자는 설마하는 생각으로 입원기간 중 외출해 마트와 식당, 백화점, 아웃렛, 술집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마구 긁었고, 일부는 국내여행을 즐겼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69.txt

제목: 日 자민당 중의원 막말·비리 잇따라  
날짜: 20171126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6203038001  
ID: 01100701.20171126203038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막말’과 ‘금전 문제’ 등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고질병이 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r/> <br/>2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중의원인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전 지방창생담당상은 지난 23일 기타큐슈에서 같은 당 소속 미하라 아사히코(三原朝彦) 중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그는 미하라 의원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span class='quot0'>왜 그렇게 검은 것을 좋아하느냐</span>”고 말했다. 이후 비판이 확산하자 “인종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r/> <br/>아베 총리 측근인 야마모토 의원은 지난 4월 시가현 오쓰시에서 열린 지방 활성화 관련 세미나에서 “가장 큰 암은 학예사”라며 “<span class='quot1'>이 패거리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소용없다</span>”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학예사들의 활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br/> <br/>자민당 중의원인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전 방위 부상은 정치자금 중 19만엔(약 185만원)을 들여 잠수함 조립식 모형과 전시용 케이스를 구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같은 당 가미타니 노보로(神谷昇) 중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시의회 의원 14명에게 210만엔을 촌지로 건넨 사실이 발각됐다. <br/> <br/>아베 정권은 주요 인사들의 망언과 비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집권으로 오만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 급락을 경험했다. 이후 ‘겸허함’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고 한동안 말썽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총선 승리로 자민당의 집권이 4년 연장되자 다시 오만함이 고개를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0.txt

제목: [박태훈의 만리경] 기생충박멸사…4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감염율 세계 1위 국가였다!  
날짜: 201711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5150203001  
ID: 01100701.20171125150203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1970년대 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충 검사 장면. 요충은 항문을 간질이던 기생충으로 사진처럼 손가락을 이용한 촉지법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 <br/>[박태훈의 만리경] 악착같았던 기생충 '박멸 운동사', 감염률 세계 1위 국가에서 30여년 만에 사실상 완전 퇴치···온 국민이 발벗고 나선 결과  <br/> <br/>▲40여년 전 우리를 돌아보게 한 JSA 귀순 북한 병사 <br/> <br/>죽었다고 모두가 믿었던 사람을 살려 놓은 중증외상치료의 권위자 이국종 아주대 외상외과 교수는 지난 15일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br/> <br/>이틀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필사의 도주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응급 수술한 결과를 전하면서 "외과의사 경력 20년 만에 이렇게 큰 기생충을 본 건 처음으로, 첫날 눈에 띄는 것만 해도 50마리 이상이었다"고 했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몸에서 발견된 가장 큰 기생충은 길이가 27㎝로, 회충의 성충인 것으로 추측된다</span>"고 밝혔다. <br/> <br/>그는 기생충에 따른 추가 감염 위험으로 귀순 병사의 건강 회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다행히 병사는 강건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고비를 넘겼다. <br/> <br/>이 교수의 발언에 중년층 이상은 자연스럽게 40~50년 전을 돌아봤다. <br/> <br/>그 시절 우리 국민은 북한군 병사처럼 기생충을 몸에 달고 살았다. <br/> 1963년 9월 9살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회충 1063마리(왼쪽 사진). 엄청난 수의 회충이 장을 막는 바람에 이 소녀는 장폐색증으로 숨졌다. 이에 격분한 당시 전북 전주예수병원장인 폴 크레인 박사가 한국의 열악한 보건상태를 고발, 전세계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후 기생충박멸운동이 국가적 대사로 등장해 30여년 만에 퇴치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15일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이 "<span class='quot1'>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장에서 기생충 50여마리가 나왔다</span>"고 알리는 모습. 기생충 수에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위생과 영양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50여년 전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br/>▲전세계를 경악시킨 9살 소녀의 죽음, 그 원인은 장을 막았던 회충 1063마리 <br/> <br/>1963년 말 전세계는 9살짜리 한국 소녀의 죽음에 경악했다. 소녀를 숨지게 한 원인은 다름아닌 기생충(회충)이었다. <br/> <br/>1947년부터 22년간 전북 전주예수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 선교활동을 펼쳤던 폴 크레인 박사는 1963년 9월 분노에 떨었다. <br/> <br/>크레인 박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던 9살 소녀를 진단한 결과 장폐색증임을 확인, 급히 수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소녀의 장을 막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회충이었음을 확인했다. <br/> <br/>열악한 위생상태에 분노를 넘어 절망한 크레인 박사와 의료진은 소녀의 몸에서 꺼낸 회충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었다. <br/> <br/>그 결과 무려 1063마리가 나왔다.  <br/> <br/>'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크레인 박사는 이런 사실을 영자지에 제보해 전세계에 널리 전하도록 했다. <br/> <br/>이어 1964년 2월19일 밤 열린 '주한 민간 구호단체 연합회'(KAVA) 모임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알린 뒤 협조를 호소했다. <br/> <br/>이에 KAVA는 한국의 기생충 박멸사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br/> <br/>▲1964년 2월20일 범국민적 기생충 박멸사업 시작, 1966년 4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br/> <br/>KAVA의 결의 다음날 당시 보건사회부는 기생충 박멸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얼마나 심각했으며 퇴치가 아닌 '박멸'이라는 섬뜩한 단어까지 동원했을까. <br/> <br/>같은해 4월 기생충박멸협회가 출범했다. <br/> <br/>심각성을 느낀 정치권도 동조, 1966년 4월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br/> <br/>▲감염률 세계 1위에서 30여년 만에 사실상 퇴치  <br/> <br/> 기생충박멸협회가 밝힌 연도별 기생충 감염률. 1971년 84%에 이르던 것이 1997년 2.4%까지 급강하해 사실상 박멸됐다. 특히 회충과 편충의 감염 사례는 희귀하다고 할 정도까지 없어졌다. <br/>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에 대한 통계가 공식 집계된 것은 1971년. 이전까진 몇몇 지역을 토대로 한 추론에 의지했다. <br/> <br/>1960년대 초반엔 기생충 감염률이 90%에 육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생충을 달고 살았다는 얘기일 게다. 굶주림에 기생충에 시달렸으니 우리 국민의 영양·건강상태는 극히 나빴다. <br/> <br/>기생충 감염률이 처음 공표된 것은 1967년 8월3일로 "국민 80%가 감염됐다"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발표됐다. <br/> <br/>기생충박멸협회에 따르면 감염률은 1971년 84.3%에 달했으나 5년 후 63.2%로 뚝 떨어졌다. <br/> <br/>이어 1981년 41.1%로 절반 넘게 하락했고, 1997년 2.4%로 사실상 퇴치 판정을 받았다. <br/> <br/>▲1969~1995년 연 2회 학생 대상 기생충 검사와 투약이 박멸 일등공신 <br/> <br/> '초·중·고생의 70%가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1970년 7월23일자 경향신문 기사. <br/>정부와 기생충박멸협회는 초점을 학생층에 맞췄다. <br/> <br/>1970년 7월 초·중·고생의 감염률이 70%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기생충은 학생 성장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였던 탓이다. <br/> <br/>학생층을 상대로 박멸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교육과 학습 전파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도 정책 실행 요인으로 작용했다. <br/> <br/>기생충박멸협회는 1969년부터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했다. 기생충이 있는 학생에겐 국가가 무료로 약을 나눠줬다. 한두 알이 아닌 상당량이었기에 먹어야 하는 부담감도 상당했다. <br/> <br/>기생충 검사를 받은 학생 수는 1969년부터 폐지된 1995년까지 26년 동안 3억766만명에 달했다. <br/> <br/>▲채변 검사···감염 급감과 좌변기 보급 등으로 사라진 추억  <br/> <br/> 1969년부터 시작된 초·중·고 기생충 검사 때 어김없이 등장했던 채변봉투. 노란 봉투 속에 작은 비닐 봉지가 들어 있으며 그 속에 자신의 배변을 넣어가야 했다. <br/>기생충 검사라 하면 채변봉투를 먼저 떠올리는 이가 적잖을 것이다. 채변봉투를 채우는 일은 학생들이 가장 꺼렸던 것 중 하나였으나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했다. <br/> <br/>1970년대만 해도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대부분 썼다. 화장실에서 채변하기란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에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본 뒤 행해야 했다. <br/> <br/>이런 어려움 탓에 몇몇은 다른 이의 변을 슬쩍 자기 것인 양 집어넣었고, 이 글을 쓰는 기자도 당시 길거리에서 흔했던 소똥과 개똥으로 주워 넣었던 기억이 있다. <br/> <br/>채변봉투는 기생충 감염 급감과 좌변기 보급 등에 따라 역사 뒤로 사라졌다. <br/> <br/>40여년 전 감염률은 바다가 등지에선 편충이 압도적이었으며, 회충과 요충의 순으로 많았다. <br/> <br/>요충은 육안으로도 검사할 수 있었는데, 손가락을 이용한 촉지법(사진 참조)이 행해지기도 했다. <br/> <br/>▲기생충 박멸운동 성공 확인 시점은 1982년 <br/> <br/>기생충 박멸운동의 역사는 협회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64년 4월 탄생한 협회는 1982년 건강관리협회로 재출범했다. 그 무렵부터 국민건강 관리의 최고 관심사가 기생충 박멸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br/> <br/> 1999년 4월 KBS는 한국 의학 100년을 빛낸 10대 사건에 기생충 박멸운동을 선정했다. 같은달 17일 KBS 2TV는 관련 방송을 내보냈다. 사진은 당시 방송 내용을 담은 신문 기사.  <br/>우리나라의 기생충 박멸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적 사회보건활동이다. 1999년 4월  KBS는 저물어가는 20세기를 기념하는 특집방송의 하나로 '한국 의학 100년 10대 사건'을 뽑았는데, 기생충 박멸운동도 그 대열에 함께했다. <br/> <br/>▲이따금 온 가족 구충약 복용할 필요성 <br/> <br/>기생충 감염률은 1990년대 말 1%선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4~5%로 올라섰다. 이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연식을 즐기는 한편 날 것을 먹는 횟수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br/> <br/>의료계는 기생충 감염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몇년에 한번씩 온 가족이 구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약도 한두 알 정도면 퇴치할 수 있어 과거와 같이 복용에 따른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1.txt

제목: [이광형의 미래학 향연] 인간·AI가 협업하는 시대…'코딩'은 기계도 춤추게 한다  
날짜: 20171125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5100522001  
ID: 01100701.2017112510052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지난 5월 중국의 저장성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바둑대회는 커제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유명하다. 알파고가 커제 9단을 3대 1로 이겼다. 그러나 나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 시합은 그 기간에 있었던 인간과 AI 혼식 페어 바둑이었다. 페어 바둑은 복식 바둑이다. 테니스나 탁구처럼 두 명이 팀을 이루는 대국이다. A팀은 구리 9단과 알파고A가 팀을 이루고, B팀은 렌샤오 8단과 알파고 B가 한편을 먹었다. 많은 사람은 A팀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B팀이 220수로 불계승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인간끼리의 복식경기에서도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와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AI와 함께하는 시합에서도 마찬가지다. 알파고의 사고 작용과 행동패턴을 이해하고 호흡을 맞추어준 렌샤오 8단이 이긴 것이다. 미래사회의 삶의 방식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br/> <br/>◆컴퓨터와 소통력을 배우는 코딩교육 <br/> <br/>내년부터 중학교에 코딩교육이 의무화되고,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코딩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영국·미국·중국 등 발 빠른 나라에서는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코딩교육을 준비해 2015년에는 초·중·고교에서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코딩교육을 강조해 ‘1주일에 1시간 코딩하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br/> <br/>2016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초·중·고 학생 중에 약 4분의 1이 코딩교육을 받고 있으며, 51개주 중에 28개주가 고등학생 대상의 코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코딩교육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교육의 다른 말이다. 예를 들어 AI 알파고를 만드는 일, 게임이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 그리고 윈도나 백신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모두 코딩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명령어를 배우는 것이다. <br/> <br/>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언어를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코딩교육은 컴퓨터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언어에는 한국어·영어·일본어·프랑스어가 있듯이, 컴퓨터언어에도 포트란(Fortran), 베이직(Basic), C, C++, 자바(Java), 파이선(Python) 등 다양한 언어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언어를 알지 않아도 되듯이 컴퓨터언어도 모두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 개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면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프로그램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컴퓨터의 사고작용과 논리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br/> <br/>◆컴퓨터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코딩교육 <br/> <br/>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컴퓨터에게 시킬 일을 정의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규정하고 입력과 출력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스스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거스름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이고 자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람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돈을 넣는다(입력), 자판기는 선택된 물건과 함께 거스름돈을 돌려준다(출력). <br/> <br/>두 번째는 자판기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세분화해 정의한다. 입력된 돈과 선택된 물건의 가격을 비교한다. 입력된 돈이 크면 물건과 거스름돈을 준다. 그 반대이면 물건을 주지 않고 돈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표시한다. 거스름돈을 계산할 때에는 단순한 뺄셈을 한다. 이와 같이 계산과정을 논리적으로 설계한 것을 알고리즘이라 부른다. <br/> <br/>세 번째는 앞에서 정의된 알고리즘을 컴퓨터언어로 변환한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마치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든 영어로 말하든 상관없듯이 말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특별히 코딩이라 부르기도 한다. <br/> <br/>◆인간 기계 협업이 중요한 미래 공존사회 <br/> <br/>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AI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계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AI의 능력 향상 속도를 보면 부정하기 어려운 예측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는 AI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대신해 일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인간과 AI가 파트너가 돼 공동 협력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br/> <br/>이미 병원에서 암을 진단할 때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공동 협력해 진단결과를 하고 처방하는 협업 시스템이 시작됐다. 이미 AI 제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에 맞추어 일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존사회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파트너 AI를 나에게 편리하게 만드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기계와 일한다면 피곤한 삶이 될 것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AI를 사서 쓰게 되면 나의 취향은 반영될 여지가 없다. 결국 AI를 만드는 사람이 활용방식을 규정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사회의 규범처럼 되고 만다. <br/> <br/>예를 들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즈가 널리 사용되다 보니, 윈도즈가 제시하는 데이터 입출력 방식이 데이터 사용의 규범처럼 되고 말았다.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도 모바일 데이터 사용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남이 만들어 놓은 방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현재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어려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며 놀던 사람들이다. <br/> <br/>◆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생활 <br/> <br/>두 번째는 협력 방식에 관한 것이다. AI 기계와 함께 협력하며 일해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병원에서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협진을 하고 있다. 알파고의 페어 바둑 시합에서 보았듯이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잘하는 팀이 우승한다. 공동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맞춰 주어야 한다. 미래 파트너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파트너와 호흡을 맞출 수 없다. 기계와 하는 소통의 첫걸음은 기계의 언어를 이해하고, 기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기계의 행동을 예측해 그에 맞추어 주는 것이다. 만약 기계에 맞춰 주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br/> <br/>미래 사회에는 높은 수준의 AI를 가진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공존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기계가 작동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기계와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은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기계를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br/> <br/>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코딩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나는 당연히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도 영어를 모르고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 다만 영어를 모르면 정보 습득이 늦고 외국인이 있는 곳을 슬슬 피하며 살게 된다. 코딩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남들이 규정해 놓은 방식에 따라 데이터 생활을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를 이용하며 살면 된다. <br/> <br/>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언론사: 세계일보-1-72.txt

제목: [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 (11) 과학으로 찾은 커피 사용법  
날짜: 20171125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5100316002  
ID: 01100701.20171125100316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겨울이면 따뜻한 카페라테가 생각납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싶어집니다. 이렇듯 언젠가부터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 속에 과학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r/> <br/>◆커피는 하루에 1~2잔 <br/> <br/>   <br/>커피를 마시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은지는 항상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설명된 바는 없으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적정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br/>   <br/>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노리스 종합암센터의 세티아완 박사팀은 18년 동안 백인과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의 성인 남녀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하루에 1잔에서 3잔까지 마신 이들은 그보다 덜 마신 사람에 비해 간암 위험이 29% 낮았으며, 4잔 이상 마시면 42%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와 폴리페놀, 카페인 등 100여가지의 활성 물질이 간 효소 수치를 줄여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r/> <br/>비슷한 실험이 일본에서도 진행되었는데요. 40세 이상 6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혀 마시지 않는 이의 간암 발생률이 1이라고 했을 때, 하루 평균 1잔을 마시는 사람의 간암 발생률은 0.71, 날마다 한잔 이상 마시면 0.5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한두잔을 섭취하면 당뇨병과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br/> <br/>   <br/>그렇다면 커피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커피에는 카페인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내성과 금단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에는 100~150㎎(300㏄ 아메리카노 기준)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400㎎이기 때문에 1~2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br/> <br/>◆커피 닦은 휴지로 만든 종이 배터리 <br/> <br/>   <br/>커피를 마시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쏟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쏟아진 커피도 아깝고, 커피를 닦기 위해 사용한 휴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커피에 적신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로 만드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br/> 출처=머독대 <br/>슈퍼 커패시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을 텐데요. 슈퍼 커패시터는 커패시터의 전기 용량 성능을 강화시킨 대용량 축전지를 가리킵니다. 슈퍼 커패시터는 단지 몇초 만에 충전할 수 있으며, 100만 번 이상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배터리와 달리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커패시터는 순간적으로 고출력이 필요한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r/> 출처=산림청  <br/>연구팀은 흘린 커피를 닦기 위해 휴지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커피에 있는 알칼리 금속 이온을 활성화 촉매로 쓰는 방식으로 활성 탄소를 생성시키고, 커피에 적신 휴지를 사열해 친환경 종이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를 태우는 것보다 커피 처리를 한 종이가 2배나 높은 정전용량(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경제성까지 확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커피를 닦은 휴지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br/> <br/>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잔에도 다양한 과학이 숨어있었는데요. 오늘은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 속의 과학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br/> <br/>한화케미칼 블로거 <br/> <br/>\*이 기고는 한화케미칼과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언론사: 세계일보-1-73.txt

제목: '휴대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꾸중한 시어머니 살해한 베트남 며느리  
날짜: 201711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4095642001  
ID: 01100701.2017112409564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휴대폰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꾸중하는 시어머니를 죽인 베트남 출신 며느리가 붙잡혔다. <br/> <br/>24일 경북 영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 <br/> <br/>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시어머니 B(72)씨가 "휴대전화 요금이 왜 이리 많이 나오냐"며 꾸짖자 흉기로 B씨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서 100ｍ 떨어진 농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남편이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4.txt

제목: 지나치기 쉬운 전립선암·방광암 신호  
날짜: 20171124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4031357001  
ID: 01100701.201711240313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4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전립선암과 방광암에 대해 살펴본다. <br/> <br/>한상현(48)씨는 2009년 처음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았다.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지만 당시 진단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검사했을 때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br/> <br/>윤창순(69)씨는 우연히 병원을 찾았다가 방광암을 발견했다. 방광암 3기 판정을 받았지만 이전까지 빈뇨 외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윤씨는 방광암 수술을 받은 뒤 3년 동안 요실금으로 고생했다. 매일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br/> <br/>명의에서는 지나치기 쉬운 전립선암, 방광암의 증상과 암을 진단하기 위한 방광 내시경 및 조직 검사 방법,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5.txt

제목: [Cheer Sports] 암 딛고 돌아온 김선태 사령탑  
날짜: 20171123  
기자: 안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3204536002  
ID: 01100701.20171123204536002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국내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한국은 지난 19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끝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하는 등 선전하며 올림픽 개인전(500·1000·1500m) 및 남녀 계주 전 종목의 출전권을 따냈다. 그러나 여자 계주에서 중국의 궈이한이 김예진(18·평촌고)을 밀쳐 넘어트리는 사고가 났고, 남자 개인전 기대주 임효준(21·한국체대)과 막내 황대헌(18·부흥고)이 대회 도중 부상을 당해 컨디션 회복이 급선무다. <br/> <br/>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남 일’같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김선태(41·사진) 감독이다. 김 감독은 “<span class='quot0'>평창에서 2014년 소치올림픽 때 못 딴 메달까지 다 따겠다</span>”고 자신하면서도 선수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불의의 부상 탓에 빛을 보지 못했고, 지도자로 변신한 뒤에는 예기치 않은 병마와 싸웠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br/> <br/>그에게 1998년 나가노동계올림픽은 두고두고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김 감독은 1994년부터 99년까지 국가대표로 뛰었다. 그러나 나가노 대회를 앞두고 치른 대표선발전에서 넘어진 앞 선수의 스케이트날에 무릎을 크게 다쳤다. 결국 그는 추천선수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가고도 경기를 뛰지 못했다. <br/> <br/>이후 짧은 선수생활을 마감한 그는 4년 동안 스케이트장 강사, 카페 운영, 샐러리맨 등 다양한 일을 하며 방황했다. 그러나 스스로도 “누구보다 좋아하는 운동”이라고 밝힌 쇼트트랙을 도저히 떠날 수 없었다. 이어 빙상연맹의 제안을 받아 2003년 국가대표 ‘장비 담당 지도자’로 복귀한 그는 중국,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을 거쳐 2014년 5월부터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2015년 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잠시 지휘봉을 내려놨지만, 지난해 4월 기적처럼 대표팀에 돌아와 선수단에 따뜻한 감동을 안겼다. <br/> <br/>김 감독은 “선수들이 ‘우리 감독님은 암을 이겨내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평창에서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한다. 김 감독의 바람대로 대표팀이 유독 변수가 많은 쇼트트랙 경기에서 투혼을 발휘해 전관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r/> <br/>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6.txt

제목: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사례 나왔다  
날짜: 20171122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2100835001  
ID: 01100701.201711221008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환자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존엄사를 택한 것이다. <br/> <br/>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의료기관에 입원한 한 암 환자가 최근 숨졌다. 의료진은 이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든 이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 표명을 근거로 의료진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다. <br/> <br/>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10개 의료기관(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br/> <br/>임종기의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들도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648명이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의 5개 기관(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br/> <br/>아직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생명윤리 예산 확충을 통해 TV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7.txt

제목: 日 호흡기 학회 "가열식 담배 간접흡연 피해준다"  
날짜: 2017112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1144029001  
ID: 01100701.201711211440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기로 담뱃잎을 가열해 증기를 피우는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 등 실내에서 피우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br/> 가열식 담배 연기를 맡은 여성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일본 호흡기학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며 가열식 담배(이하 담배)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실내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br/> <br/>학회는 또 기업이 ‘냄새와 재가 발생하지 않아 실내에서도 안심하고 피워도 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br/> <br/>학회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br/>■ 담배가 안전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설은 추측에 불과하며 과학적 증거는 없다. <br/> <br/>■ 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은 니코틴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1~3배 포함되어 있으며, 잎담배를 기화함으로써 토양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폴로늄’이 흡입될 위험성이 있다. <br/> <br/>■ 담배가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는 설이 나돌지만, 특수 레이저로 호흡을 관찰한 결과 대량의 연기를 발상하는 게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br/> <br/>학회는 흡연자들이 불쾌한 냄새가 일반 담배보다 덜하다는 이유로 이 담배를 선호하고 심지어 실내에서도 사용한다며, 가열식 담배와 전자담배의 사용은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br/> <br/>한편 스위스 베른대학 레토 아우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열식 담배는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암 관련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미첼 박사 역시 “<span class='quot0'>가열식 담배는 발암물질을 주위에 퍼뜨리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span>”고 경고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8.txt

제목: 자브라, 오는 12월 무선 헤드셋 '이볼브 75e' 출시  
날짜: 20171121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21133947001  
ID: 01100701.20171121133947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br/> <br/> 통신 사운드 솔루션 기업 자브라(Jabra)가 기존 이볼브 헤드셋 시리즈에 '이볼브 75e'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자브라의 이볼브 헤드셋 시리즈는 2014년 출시 후, UC 및 스카이프용 헤드셋 시장을 선도해 오며 기능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br/> <br/>자브라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을 소음과 주변의 방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무실 내의 소음으로 업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자브라의 사운드 전문가들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과 방해금지 및 통화중을 헤드셋에 표시할 수 있게 하여 UC 및 스카이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무선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br/> <br/>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시끄러운 사무실 환경 혹은 외부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이로 인해 개방형 사무실에서 별도의 회의 공간이 없어도 스카이프 회의, 화상 회의 등 다양한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br/> <br/>자브라 측은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여 음악 감상 및 스트리밍 등 개인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자브라 고유의 마이크로폰 전문 기술을 적용하여 마이크용 붐 암을 없애면서도 최고의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전했다. <br/> <br/>또한 이볼브 75e는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어버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헤드밴드, 이어후크에 이어 스테레오 이어버드 형태를 추가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소비자들의 착용방식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켜 준다. <br/> <br/>자브라 부회장(SVP) 홀거 라이징거는 "<span class='quot0'>자브라의 혁신적인 마이크 기술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함께 사용되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늘날 모바일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이볼브 75e를 출시했다</span>"고 밝혔다. <br/> <br/>한편, 자브라 이볼브 75e는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며, 시험 사용 및 사전 구매 예약이 가능하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79.txt

제목: bhc치킨, 가맹점주에 의료비 지원  
날짜: 20171118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8030351004  
ID: 01100701.20171118030351004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bhc치킨이 상생 경영 방침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br/> <br/>bhc 치킨은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화산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의료비를 전달했다. 화성화산점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지난 9월 남편이 침샘암 수술을 받았다.  <br/> <br/>bhc치킨은 이날 가맹점주가 암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치료비를 후원했다. <br/> <br/>화성화산점 가맹사업주는 “암 발병으로 치료비가 다소 부담스러웠는데 수술비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본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r/> <br/>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맹점 사업주의 개인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bhc의 상생 경영 방침으로, BSR(bhc+CSR) 활동의 일환이다.  <br/> <br/>bhc치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br/> <br/>bhc치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하루빨리 병이 호전되어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기원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 사업주와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상생경영 방침을 이어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0.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아름다운 마지막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해야”  
날짜: 20171117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7214812001  
ID: 01100701.2017111721481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오랜 지인이 폐암에 걸려 병문안을 갔어요. 의료진이 목에 호스를 넣으려 하는데 그분이 밀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과 의료진은 고통스러워하는 분께 결국 호스를 끼워 넣었어요. 며칠 뒤에 돌아가셨지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의료장비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심폐소생술을 격하게 받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상해보세요. 그런 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br/> <br/>각당복지재단(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기관 중 한 곳) 산하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김양자(73) 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강의 등으로 최근 쉴 틈이 없다. 지난달 23일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에 위치한 각당복지재단에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겠다며 찾아오는 이들이 매일 끊이지 않는다. <br/> <br/>개인적인 신청 외에 재단 내 호스피스 강의나 외부 강의 등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6일까지 전국 1353명이다. 각당복지재단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400명이 넘는다. <br/> <br/>“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몸과 마음이 참 건강해요. 자식들에게 걱정이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들을 하셔요. 결국 좋은 죽음이란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br/>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 <br/> <br/>“예전엔 ‘죽음’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했어요. 어른들은 ‘재수 없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 지금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br/> <br/>김 회장은 20년 가까이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다. 40세까지는 ‘우아한’ 가정주부로 살았다. <br/> <br/>“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찬양단 지휘를 했는데 한양대병원에서 자주 자원봉사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 환자분들 돌봐드리고 음식도 해다 드리면서 지냈죠. 그땐 그게 호스피스인 줄도 몰랐어요.” <br/> <br/>한국 자원봉사의 대모로 불리는 김옥라(99) 이사장이 1987년 설립한 각당복지재단은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한국에서 처음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한 곳이다. 김 회장은 김 이사장의 부름으로 1995년 각당복지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br/> <br/>“본격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니 더 많이 알고 싶고 잘 하고 싶었어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지, 편안해할지 고민하면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br/> <br/>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각당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김양자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장은 “<span class='quot0'>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지금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span>”라고 말했다. <br/>남제현 기자요법 치료의 필요성을 느낀 김 회장은 발마사지를 배워 환자들에게 해주기 시작했다. 이어 아로마 마사지,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도 배워 현장에서 적용했다. 그 덕에 “무지개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인기가 좋다”고 김 회장은 귀띔했다. <br/> <br/>아픔과 죽음을 함께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그는 안타까운 점도 많이 느낀다. <br/> <br/>“임종기까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 죽음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죠.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계획하는 문화가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1.txt

제목: [이슈탐색] 느슨한 가향담배 규제, 여성·청소년 흡연 부추긴다  
날짜: 2017111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7164144001  
ID: 01100701.20171117164144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캡슐형을 비롯한 가향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r/> <br/>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가향담배는 필터에 캡슐을 넣어 각종 과일이나 멘톨 등의 향을 첨가하거나 필터에 설탕 등을 바른 것으로, 최근 5년간 판매량이 급증해 시장 조사기관 닐슨 기준 지난해 점유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br/> <br/>이들 담배 중 각종 감미향을 필터에 바르고, 캡슐도 삽입해 이중 가향한 제품도 모두 31종에 달한다. 이들 담배는 특유의 역한 냄새에 따른 거부감을 상쇄시켜 청소년을 흡연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br/> <br/>17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른바 담배맛을 순화한 캡슐담배는 흡연자들이 연기를 더 깊게 빨아들이는 만큼 그 속의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해 중독은 물론이고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br/> <br/>실제로 질본 측이 올해 1월 국내에서 시판 중인 캡슐담배에서 128종의 성분을 검출했으며, 9월에는 "가향담배가 흡연 시도를 쉽게 하고 여성과 청소년 등을 신규 흡연자로 유인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br/> <br/>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가향담배에 대한 근거 연구를 추진한 뒤 내년부터 규제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한 상태다. <br/> <br/>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내년 규제 입법 시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일까지 상당기간 동안 캡슐담배 시장이 확대돼 규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이어 "필터 감미 담배에 대해서는 규제 방향 설정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캡슐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되레 규제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을 더했다. <br/> <br/>국회 역시 가향담배 규제에 미온적인 실정이다.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데, 통과 여부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br/> <br/>이런 가운데 가향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돈이 된다'는 이유로 담배 제조업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끓는다. <br/> <br/> <br/>업계에서는 보건당국의 계획대로 내년에 규제 법안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담배회사의 로비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향담배의 보급이 확대되면 그만큼 규제 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효성이 클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br/> <br/>시민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앞서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규제저항을 최소화한 것처럼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도 캡슐담배 등 인위적인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필터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2.txt

제목: ‘故 김자옥 3주기’ 오승근 “아직도 아내 생각이 끊이지 않아”  
날짜: 20171116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6140319001  
ID: 01100701.20171116140319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br/> <br/> <br/> <br/>배우 김자옥이 세상을 떠난지 3년이 흘렸다. <br/> <br/>고 김자옥은 2008년 대장암 투병 이후  폐 등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면서 합병증으로 지난 2014년 11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해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치됐다. <br/> <br/>고인은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선발된 이후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br/> <br/>1996년에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가수에 데뷔하기도 했다. 당시 발표한 '공주는 외로워'는 대중들에 큰 인기를 끌었다. <br/> <br/>김자옥은 지난 1984년 가수 오승근과 결혼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불리기도 했다. <br/> <br/>한편 가수 오승근은 이날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세상을 떠난 아내 김자옥을 추억한다. <br/> <br/>오승근은 "<span class='quot0'>아직도 아내 생각이 끊이지 않고 떠오른다</span>"고 말한다. 그는 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고인의 봉안묘 근처로 집을 옮기기까지 했다. <br/> <br/>이사한 집 안에 김자옥과 같이 쓰던 가구는 물론이고, 아내가 남긴 사소한 메모와 사진들까지 모두 챙겨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16일 밤 10시 방송. <br/> <br/>뉴스팀 hm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3.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월 3만원으로 암·상해·생활까지 보장 외  
날짜: 20171115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5031011003  
ID: 01100701.20171115031011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월 3만원으로 암·상해·생활까지 보장 <br/> <br/>하나생명은 20∼49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월 3만원으로 암, 상해, 생활까지 보장받는 온라인·모바일 전용상품 ‘(무)싱글(Single)벙글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암, 상해, 생활보장 중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게 2개 이상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암 보장을 선택하면 암 진단금과 암 사망 시 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해 보장을 선택하면 재해로 외모특정상해(머리, 얼굴, 목 등)가 발생할 경우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을 욜로(YOLO)데이로 지정해 이때 장해가 발생하면 평일보다 2배 많은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생활보장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중이염, 위궤양 등의 입원·수술비와 강력범죄 상해 시 위로금과 일부 진료비를 보장한다. <br/> <br/>조건 충족하면 보험금 미리 지급 서비스 <br/> <br/>교보생명은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보미리미리CI(치명적 질병)보험’이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업계 최초로 요건 충족 시 장래 받을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확보를 보다 쉽도록 한 점을 인정받았다. 교보미리미리CI보험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다. 중대한 갑상선암, 중증세균성수막염, 뇌출혈, 뇌경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백소용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84.txt

제목: 항암 면역치료 효과 높이는 새 경로 발견  
날짜: 20171114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4210610003  
ID: 01100701.20171114210610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항암 면역치료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됐다. <br/>울산대학교는 생명과학부 권병석(53·왼쪽 사진)·의예과 조홍래(60) 교수팀이 암에 대한 면역력을 무력화하는 ‘CD137 리간드’의 다른 세포 분자와의 결합 신호를 차단해 면역력을 증강하는 새로운 항암 면역치료 경로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지금까지 면역치료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의 활성화에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암 환자의 면역시스템을 약화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CD137 리간드의 다른 세포와의 결합 신호를 차단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분화한 T세포가 면역력을 증강하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발견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5.txt

제목: 암 보험금 아들 모교에 기부한 요양보호사  
날짜: 20171114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4210508001  
ID: 01100701.20171114210508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충북 옥천에 사는 60대 여성이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 중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이 다닌 대학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br/> <br/>충북도립대학은 김소임(62·여)씨가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에 4557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돈은 몇 해 전 암 판정을 받은 김씨가 수술비와 치료비로 쓰고 남은 보험금 잔액이다. <br/> <br/> 김소임씨(오른쪽)가 충북도립대학을 찾아 함승덕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4557만원을 쾌척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r/>충북도립대 제공김씨는 대학 측에 “<span class='quot0'>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그러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치료를 마쳤는데도 보험금 잔액이 남아 전액을 아들의 모교에 내놓은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대학 측은 이 돈을 ‘김소임 장학금’으로 명명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김씨는 건강을 회복한 뒤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이웃을 돌보고 있다. <br/> <br/>옥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6.txt

제목: '깨끗한 석탄' 예찬론… “거짓말쟁이” 조롱당한 美  
날짜: 20171114  
기자: 정재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4205437002  
ID: 01100701.20171114205437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독일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화석 연료와 원자력 예찬론을 펼친 미국 대표단에 비난이 쏟아졌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을 대신하려던 중국은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파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br/> <br/>◆기후변화 회의서 화석연료 홍보한 美 <br/> <br/>AFP통신은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석연료·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가 진땀을 뺐다고 전했다. <br/> <br/> 美 행사장 앞에서 시위 독일 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열린 13일(현지시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미국 대표단의 부대행사장 앞에서 “<span class='quot0'>화석연료는 땅속에 그냥 두라</span>”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br/>본=EPA연합뉴스조지 데이비드 뱅크스 미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이날 행사에서 “<span class='quot1'>화석연료는 계속 사용될 것이고, 가능한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이에 객석에서 “거짓말쟁이”, “깨끗한 화석연료는 없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실의 프랜시스 브룩, 텔루리안·피바디 등 미 에너지기업 고위 관계자들의 발표가 이어진 이날 행사장 좌석의 절반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채웠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에너지협회 관계자가 발표하는 도중에는 “당신의 탐욕이 보인다”, “<span class='quot0'>석탄 머니 때문에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span>”는 질책도 이어졌다. <br/> <br/>유엔 도시·기후변화특사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트위터에 “<span class='quot2'>기후변화 회의에서 화석연료 등을 홍보하는 것은 암 학술회의에서 담배를 홍보하는 것과 같다</span>”고 비꼬았다. 영국 리즈대학의 기후변화학 교수 피어스 포스터도 “<span class='quot3'>석탄의 미래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를 진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장 안팎에서 최근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br/> <br/>◆여전히 온실가스 주범인 中…“미래엔 에너지정책 좌우” <br/> <br/>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이행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은 협약을 탈퇴한 미국의 빈자리를 노렸지만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고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이 전했다. 최근 3년간 정체됐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는 410억t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br/> <br/>중국은 최근 몇 년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은 전년보다 80% 증가했고, 풍력발전도 18% 늘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전 세계 예산의 30%에 육박한다.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4'>중국의 영향력은 아직 미국이나 브라질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정책 등에 따라 향후 세계 에너지정책을 좌우하게 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br/> <br/>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날 당사국총회에서 산호초, 빙하, 습지 등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IUCN은 2014년 35곳이던 ‘위험’ 자연유산이 3년 만에 62곳으로 늘었다고 각국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세계자연유산 중 29%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미국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케냐 투르카나 호수 등 7%는 ‘치명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고 IUCN은 밝혔다. <br/> <br/>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7.txt

제목: '비뇨기과' 알고보니 일본식 이름, '비뇨의학과' 명칭 변경  
날짜: 201711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4081948001  
ID: 01100701.20171114081948001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전립선 비대증 등 말못할 고민을 치료하고 있는 '비뇨기과' 이름이 사라진다. 그 대신 '비뇨의학과'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br/> <br/>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br/> <br/>비뇨기(泌尿器)는 일본식 명칭인데다 특정부분을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br/> <br/>비뇨기과학은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 남녀생식기, 고환, 후 복강 등 다양한 곳을 보는 과이고 암과 소아도 다루는 과이다. <br/> <br/>종합 병원 입원 환자의 50%는 비뇨기 암 환자들이지만 비뇨기과라는 명칭 때문에 남자들만 찾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br/> <br/>이에 비뇨기과학계에서는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과 진료영역 정립을 위해 전문진료과목 명칭을 바꾸려고 추진해 왔다. <br/> <br/> <br/>2016년 4월 비뇨기과학회 평의원회에서 전문진료과목 명칭 변경 추진안의 승인받은 후 모든 회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총 721명 중 499명(69%)이 찬성했으며 지난 3월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도 명칭 변경을 인준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8.txt

제목: 한국 암 진료 수준 'OECD 상위권'…만성질환 관리 미흡  
날짜: 20171113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3192827001  
ID: 01100701.2017111319282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의 암 진료는 선진국과 견줄 만큼 우수한 수준이지만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한눈에 보는 보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 진료의 성과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1차의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br/> <br/>국내의 암 진료는 대부분의 지표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br/> <br/>이번 보고서의 기준 시점인 2015년 대장암과 유방암의 5년 순생존율(암 환자가 진단 후 5년간 생존할 누적확률)은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각63.0%, 85.0%)보다 높았고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br/> <br/>급성기 진료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국내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입원 후 30일 안에 사망한 입원환자 비율)은 3.9%로 OECD 평균(8.2%)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급성심근경색증도 2008년 11.3%에서 2015년 8.1%로 꾸준히 감소했다. <br/> <br/>하지만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만성질환은 동네병원 등 1차의료 기관을 통해 관리를 잘 하면 입원 등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천식, 만성폐색성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br/> <br/>천식 환자의 인구 10만명당 입원율은 94.5명으로 OECD 평균(46.7명)의 2배 이상이었고 만성폐색성질환 입원율은 214.2명(OECD 평균 189.8명), 당뇨병은 281.0명(137.2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br/> <br/>항생제 사용량도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로 증가 추세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하루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람의 수(DDD, 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는 24.3명으로 OECD 평균(20.6DDD)보다 많았다. <br/> <br/>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상 의료비는 2729달러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는 7.7%로 집계됐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89.txt

제목: 하리수, 한서희 저격했다가 역풍 맞은 이유  
날짜: 20171113  
기자: 한누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3131951001  
ID: 01100701.2017111313195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방송인 하리수(왼쪽 사진)와 아이돌 지망생 한서희(오른쪽 사진)가 온라인에서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br/> <br/>한서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트렌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br/> <br/> <br/>이어 "저는 퀴어포비아가 절대로 아닙니다.다만 트렌스 젠더분들만은 못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트렌스 젠더분들을 포용 안 하는 게 모든 성소수자분들을 혐오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br/> <br/>한서희는 "여성들의 여성상을 그들이 정한 '여성스러움'이라는 틀안에 가두고 그들만의 해석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짜 여성들이 보기에 불편함만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br/> <br/>이러한 한서희의 발언에 하리수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span class='quot0'>그냥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span>"이라는 것. <br/> <br/> <br/>이어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 맞다. 또 병 때문에 혹은 암에 걸려 자궁적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글(한서희의 글)에 따르면 그분들도 다 여자가 아닌 건가? 저 페미니스트도 뭐도 아니고 논쟁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br/> <br/>해당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일자 하리수는 다시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오늘 기사가 뜬 걸 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br/> <br/>하리수는 "제가 갑자기 의도와 다르게 악플들을 받다 보니 너무 감정이 격해서 글을 잘못 썼었네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등 자궁적출에 관한 이야기 등 제 스스로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이 크다는걸 다시한번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br/> <br/>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성 인권에 앞장서시고 힘쓰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뉴스팀 han62@segye.com <br/>사진=하리수, 한서희 인스타그램

언론사: 세계일보-1-90.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암 환자 맞아?'…모델 버금가는 투병 사진  
날짜: 2017111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3130210001  
ID: 01100701.20171113130210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약 1년 반에 걸친 싸움 끝에 유방암을 이겨내고 학생으로 돌아온 미국의 20대 여성이 암 투병 당시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br/> <br/>그런데 투병 중이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눈빛과 자세가 강렬해 마치 모델을 보는 느낌이 든다. <br/> <br/>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州) 탤러해시에 사는 제시카 플로렌스(24)는 작년 5월 처음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 그리고 절제수술 끝에 지난주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 <br/>제시카는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br/> <br/>2014년 처음 가슴에 멍울이 만져졌던 제시카는 오른쪽 가슴을 잘라내는 걸로 암과의 싸움을 끝냈다. 그는 외적으로 비치는 자기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br/> <br/>제시카는 “3주마다 병원에 갔다”며 “결국 학교도 그만둬야 했다”고 밝혔다. <br/> <br/>고통은 매우 컸다.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운 적도 있다. <br/> <br/>하지만 고통은 제시카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br/> <br/>치료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제시카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도 신었다. 아프다고 옷마저 환자처럼 입는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여겨서다. <br/> <br/>제시카는 “<span class='quot0'>기분이 무척 좋은 것처럼 옷을 입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강한 마음은 몸도 강하게 만든다</span>”고 덧붙였다. 몸이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아픔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r/> <br/>오른쪽 가슴을 잘라내고 여자로서의 모습을 잃은 것 같았지만 주위에서 자신을 응원해준 많은 이들 덕분에 우울함을 떨칠 수 있었다고 제시카는 말했다. 그는 머리카락과 가슴만이 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r/> <br/>제시카의 사진은 지난 2월, 방사선 치료를 끝낸 뒤 친구 카리사 글랜턴의 도움을 얻어 탄생했다. <br/> <br/>  미국 플로리다 주(州) 탤러해시에 사는 제시카 플로렌스(24·사진)는 작년 5월 처음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 그리고 절제수술 끝에 지난주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모델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사진은 올 2월, 방사선치료를 끝내고 친구의 도움을 얻어 탄생했다. 영국 메트로 홈페이지 캡처. <br/> <br/>제시카는 병원을 오갈 때 쓴 마스크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했다. 조금이라도 강하게 맞선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군인을 연상케 하는 밀리터리룩을 고집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br/> <br/>제시카는 모든 치료가 완전히 끝났을 때 자신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서 무척 기뻐했다. <br/> <br/>가슴 재건 수술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제시카는 자기 사진에 혐오감을 느낀 이들에게도 매우 당찼다. <br/> <br/>제시카는 “<span class='quot0'>한 남자가 내 사진을 보고 ‘그게 가슴이냐’는 말을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응원을 보내준 99%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제시카는 “<span class='quot0'>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용기를 내길 원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긴 싸움을 벌이는 환자들이 꼭 이겨내기를 바란다</span>”고 밝혔다. <br/> <br/>  미국 플로리다 주(州) 탤러해시에 사는 제시카 플로렌스(24·사진)는 작년 5월 처음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 그리고 절제수술 끝에 지난주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모델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사진은 올 2월, 방사선치료를 끝내고 친구의 도움을 얻어 탄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1.txt

제목: [기자가만난세상] 안 쓰면 녹스는 게 당연한 건데  
날짜: 20171110  
기자: 이동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0210216001  
ID: 01100701.2017111021021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You can ask me whatever you want.” <br/> <br/>궁금한 건 다 물어보라니, 이런 취재원이 또 있을까. 지난달 14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 씨름 페스티벌, 캐나다인 질스씨는 번외 경기인 관중 즉석 대결을 마치고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말했다. 신장 190㎝, 32세의 건장한 외국인의 경기 상대는 경기도 평촌에서 부인과 나들이를 나왔다가 사회자에게 지목된 63세 박대동씨였다. 기자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그림이다. 몰려든 구경꾼들은 박씨의 승리는 고사하고 그가 다칠까 염려했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큰아들(35)보다 젊은 질스씨를 바깥다리걸기 한판으로 보기좋게 무너뜨렸다. 사회자는 “역시 씨름은 힘보단 기술이죠”라며 박씨를 치켜세웠다. <br/> <br/>이쯤이면 내용도 좋다.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얘기되는’ 취재원이다. 질스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자신 있게 두드렸다. 영어 대화는 꽤나 오랜만이었지만 정규교육과정 12년 외에도 그동안 들인 사교육비만 중고차 한 대 값은 족히 넘는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매일 밤 습관처럼 듣던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가 채워주리라 믿었다. <br/> <br/>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칠 뿐, 입 밖으로는 실망스러운 수준의 영어 단어들이 나열됐다. 떠듬떠듬 이어가던 질문은 자괴감에 가로막혀 이내 침묵으로 변했다. 결국 질스씨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황급히 자리를 떠야 했다. <br/> <br/>흔히 말하는 문법 위주 한국식 영어교육의 폐해가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그럴리가 없다. 4년 전만 해도 해외 인턴십 과정에서 영어로 업무를 볼 정도로 영어는 자신 있었다. 따라서 영어 인터뷰쯤이야 어려울 리 없다고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예전 그 실력’이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 있던 셈이다. 돌이켜보면 인턴십 이후 영어로 대화해본 경험은 손에 꼽는다. 휴가차 떠난 해외여행에서 음식 주문할 때나 몇 마디 써본 게 전부다. 안 쓰는 칼 녹스는 게 당연한 건데. 고작 자막 달린 스탠드업 코미디 영상 몇 개 본 것으로 이전 실력이 그대로일 것이라 믿었다. 한편으론 이미 녹슨 실력을 알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로막은 측면도 있다. <br/> <br/> 이동수 체육부 기자비단 언어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정점에서 내려오길 거부한다. 항상 ‘왕년의’ 스타들이 좀처럼 예전의 화려한 지위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들은 안일함과 두려움 뒤에 숨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길 거부한다. <br/> <br/>신경과학 분야 권위자인 탈리 샤롯은 이를 ‘낙관주의적 편향(optimistic bias)’이라고 부른다. 샤롯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이 50%라 믿는 A와 10%에 불과하다고 확신하는 B가 있다. 샤롯은 이들에게 실제 평균이 30%라고 알려준 뒤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A는 자신의 암발병률을 실제 평균에 가까운 35%라고 수정하지만, B는 기존보다 고작 1%포인트 증가한 11%라 대답했다. B는 자신의 낙관주의적 편향을 반박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샤롯은 이런 작은 편향들이 합쳐져 더 큰 착각이 될 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자신에 대한 평가는 항상 짜게 내릴 필요가 있다. <br/> <br/>이동수 체육부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92.txt

제목: '가족 암투병' 친구 6000만원 빚 떠안은 20대男, 발만 구르다 목숨 끊어  
날짜: 201711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10100401001  
ID: 01100701.20171110100401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암투병하는 어머니를 둔 친구를 위해 빚보증을 섰다가 친구마저 세상을 등지는 바람에 6000만원에 일으는 떠안은 20대가 빚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br/> <br/>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 됐다. <br/> <br/>숨진 이는 A(28·남)씨와 B(25·여)씨로 큰 종이 상자에 번개탄 등을 담아 지난 8일 오후 6시께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br/> <br/>모텔 종업원은 오랫동안 인기척이 없자 9일 오후 8시 24분쯤 인터폰을 했지만 받지 않자 119에 연락,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욕실에 쓰러져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 <br/> <br/>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B씨는 머리와 옆구리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br/> <br/>욕실에는 불에 탄 번개탄 2장과 연탄 1장, 휴대용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다. <br/> <br/>A씨와 B씨는 사는 곳도 다르는 등 일면식도 없었지만 SNS를 통해 만나 막다른 길을 택했다. <br/> <br/>이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br/> <br/>울산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친구가 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자 걱정하며 위로했다. <br/> <br/>그러던 둥 치료비 마련차 은행문을 두드린 친구를 위해 기꺼이 보증을 섰다. <br/> <br/>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 어머니는 완치되지 못하고 숨졌고 희망을 잃은 친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 <br/>보증은 선 까닭에 빚 6000만원은 모두 A씨 책임으로 돌아왔다. <br/> <br/>모아놓은 돈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절반가량을 갚았지만 박봉의 A씨에게 남은 빚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다. <br/> <br/>결국 고민끝에 지난달 말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가지 말아야할 길을 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3.txt

제목: 대장암 발병 유전자 네트워크 원리 첫 규명  
날짜: 20171107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7210124001  
ID: 01100701.2017110721012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 돌연변이의 빈도는 백혈병과 소아암의 경우 10여개에 불과하지만 고형암은 평균 50여개, 폐암 등은 수백개에 이른다. 표적항암제를 개발 중인 세계 암 연구자들은 빈번하게 발견되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들을 파악하고 주요 암 유발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br/> <br/>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는 해당 유전자뿐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다른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유전자 간 네트워크의 원리를 모른 채 소수의 암 유발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치료법은 효과가 국한적이고 쉽게 약물 내성을 일으키는 한계가 있다. <br/> <br/>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사진) 교수 연구팀은 처음으로 대장암이 발병하면서 생기는 이 유전자 네트워크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조 교수팀은 대장암 환자의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다중 돌연변이의 협력적 효과의 수학모형을 구축했다.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에서 발표한 전암 유전체데이터베이스(TCGA)를 토대로, 유전자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의 영향력을 정량화하고 이를 이용해 대장암 환자군을 임상 특징에 따라 군집화한 것이다. 이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암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계전이(critical transition·시스템의 한 상태가 상태로 급격히 변하는 과정) 현상을 밝혀내 숨겨진 유전자 네트워크의 원리를 최초로 밝혀냈다. 이 수학모형을 활용하면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다수 유전자 돌연변이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표적 약물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4.txt

제목: [일상톡톡 플러스] '과체중'이 암 유발? '과지방'이 더 무섭다  
날짜: 20171106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6170217001  
ID: 01100701.2017110617021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A씨는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으니 소식해도 뱃살이 잘 안 빠진다"며 "'살 빼야지' 생각하면서 살아온 게 벌써 30년도 더 넘었는데 매번 작심삼일에 그치고 있다. 이미 배 안에 각종 질병이 자라고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br/> <br/>B씨는 "외국인들 보면 식습관 때문에 살 찐 경우가 많다. 한국인은 그에 비하면 약과"라면서도 "이제 밥 먹다가 배 부르면 남기는 게 맞다. 1960~70년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r/> <br/>C씨는 "다이어트용 음식도 많이 먹으면 다 살로 간다"며 "여러 음식 가운데서도 특히 라면이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r/> <br/>D씨는 "지나친 살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며 "최근 먹는 방송이 많은데, 이것도 다이어트의 적이다. 보고 있으면 더 배가 고파지니 아예 다른 채널로 돌리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br/> <br/>E씨는 "뱃살이 없어도 각종 암에 걸리는 사람은 다 걸린다. 유전적인 영향인 것 같다"며 "속칭 똥배 하나 없이 마른 이들도 암에 걸린다. 뱃살이 문제가 아닌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부비만인 경우 특히 내장지방이 많으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br/> <br/>이는 복강(腹腔)과 그 속의 각종 장기 등에 기름이 낀 내장지방이 많으면 간경변이나 당뇨 등 질환에 걸리거나, 여러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br/> <br/>다만 생체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암이 유발되는지는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br/> <br/>6일 메디컬뉴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대학 제이미 버나드 교수팀은 내장지방이 건강한 세포를 암성 세포로 바뀌게 하는 특정 단백질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br/> <br/>버나드 교수는 피부 바로 아래층에 자리 잡는 피하지방에 비해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 역할만 하지 않고, 대사활동이 더 활발하며 각종 염증성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한다고 밝혔다. <br/> <br/>◆내장지방 많으면 암 걸릴 가능성 ↑ <br/> <br/>연구팀은 상피세포의 암 성장과 생체 내 내장지방 조직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지방식을 잔뜩 먹인 쥐에게 암세포 형성을 유발하는 자외선B광선을 일정 시간 쏘았다. <br/> <br/>이후 복부 지방 제거 수술을 해 세포를 분석한 결과,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섬유아세포성장촉진인자-2(FGF2)를 훨씬 많이 생성한 것을 발견했다. FGF는 조직의 재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지만 FGF2는 암 발생과도 관련될 수 있다. <br/> <br/>연구팀이 추가 분석한 결과 내장지방에 의해 많이 분비된 FGF2는 자외선B광선 때문에 이미 FGF2에 취약해진 피부와 유방 세포 등을 암 세포로 바뀌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비만한 사람의 지방을 쥐에게 이식한 결과 내장지방 조직의 종양 형성 촉진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연구팀은 따라서 비만한 사람 가운데서도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이 유방, 췌장, 전립선, 요로 등 특정 암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외에 FGF2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r/> <br/>물론 버나드 교수는 암 발생에는 내장지방 외에 유전과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작용,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려면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고 흡연 등 위험요소를 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FGF2의 영향을 멈추고 암 조직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는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 <br/>◆과지방 vs 과체중…뭐가 다를까? <br/> <br/>다만 버나드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비만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신체질량계수(BMI)가 건강위험도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br/> <br/>몸무게와 키의 상관관계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등을 나타낸 BMI는 인종과 성,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데다 체내 지방의 양을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br/> <br/> 이에 따라 최근 학계에선 '과체중'(overweight)이 아닌 '과지방'(over-fat)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복부 비만, 정확히는 내장비만, 더 정확하게는 FPF2 수치를 암 발생 위험지표로 삼는 게 더 좋은 방안일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5.txt

제목: '밤도깨비' 타이거JK "윤미래, 과거 50억 사기…충격에 마이크 놓기도"  
날짜: 20171106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6092028001  
ID: 01100701.20171106092028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br/> <br/>   <br/> <br/>   <br/> <br/> <br/>래퍼 타이거JK가 아내 윤미래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놨다.  <br/> <br/>5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밤도깨비’에는 타이거JK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타이거JK는 아내 윤미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 ‘메모리즈’를 들은 후 “<span class='quot0'>윤미래가 전 소속사와 분쟁으로 5년간 소송을 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과거 사기를 당했는데 50억 원 이상 돈이 사라지고 5000 원이 남았었다</span>”고 전했다. <br/> <br/>그러면서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뻔 하고, 그때 아버지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충격으로 윤미래가 마이크를 놓아버렸다”고 밝혔다. <br/> <br/>타이거JK는 “<span class='quot0'>(자신도 역시)쭉 자신감이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상 망한 가수라고 하니 피해의식도 있었다</span>”고 털어놔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JTBC ‘밤도깨비’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1-96.txt

제목: 미군 ‘캠프마켓’ 오염대책 머리 맞댄다  
날짜: 20171105  
기자: 이돈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5221316001  
ID: 01100701.20171105221316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인천시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오염 치유방안을 시민과 더불어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연다고 5일 밝혔다. <br/> <br/>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하는 콘퍼런스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캠프마켓,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br/> <br/>또 캠프마켓 역사부터 최근 불거진 기지 내 환경문제와 미래 공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진전시회 등도 갖는다. <br/> <br/>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 내 다이옥신과 유류 오염을 완벽하게 정화하고, 인접 지역 대기·지하수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캠프마켓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군 측과 협의를 지속해 줄 것을 주장했다. <br/> <br/>최근 환경부가 캠프마켓 내 3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곳 토양 시료에서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류가 1000pg-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했다. 최고 농도는 1만347pg-TEQ/g에 달했다. <br/> <br/>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고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 중금속 오염도 확인했다. <br/> <br/>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7.txt

제목: '낭만닥터 김사부' ABU 드라마부문 최우수상  
날짜: 20171105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5134941001  
ID: 01100701.20171105134941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가 3일 밤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2017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상 시상식에서 TV 드라마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br/> <br/>한석규 주연의‘낭만닥터 김사부’는 시골 병원에서 활약하는 천재 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방송되며 자체 최고 시청률 27.6%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br/> <br/>KBS 1TV ‘KBS스페셜-앎’은 TV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KBS 월드라디오 ‘한국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한국어 세계와 꿈꾸다’’는 라디오 인터랙티브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br/> <br/>‘KBS스페셜-앎’은 4기 암 환자들의 투병과정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별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br/> <br/>KBS는 ABU상 수상을 기념해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 등 스페셜 메이킹 영상을 담아 오는 12월 22일과 23일 ‘KBS스페셜-앎’을 다시 방송할 예정이다. <br/> <br/>ABU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70여 개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ABU가 주관하는 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성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br/> <br/>올해는 50개 국가에서 280여 개 작품을 출품해 경쟁을 벌였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8.txt

제목: ‘KBS스페셜-앎’·‘한국어 세계와 꿈꾸다’,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상 수상  
날짜: 20171104  
기자: bok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4002332001  
ID: 01100701.2017110400233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KBS스페셜-앎’과 한국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한국어 세계와 꿈꾸다’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상을 수상했다. <br/> <br/>3일(현지시각)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7 ABU상 시상식에서 ‘KBS스페셜-앎’이 TV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br/> <br/>한국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한국어 세계와 꿈꾸다’는 라디오 인터랙티브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br/> <br/>지난해 12월 방송된 ‘KBS스페셜-앎’은 4기 암환자들의 투병과정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별하는 과정을 담담히 기록해 진한 감동을 전한 다큐멘터리다. <br/> <br/>KBS는 ABU상 수상을 기념해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 등 스페셜 메이킹 영상을 담아 다음달 22,23일 KBS1을 통해 다시 방송할 예정이다. <br/> <br/>한국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한국어 세계와 꿈꾸다’는 KBS 월드라디오가 한국어를 사랑하는 전 세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br/> <br/>이번 ABU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방송된 제3회 대회가 상을 받았다. <br/> <br/>ABU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70여 개 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ABU가 주관하는 상이다. <br/> <br/>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성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br/> <br/>올해는 50개 국가에서 280여개의 작품을 출품해 경쟁을 벌였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99.txt

제목: 말기암 진단 받은 엄마가 두 아들에게 쓴 글 “용기 있게 행동해라”  
날짜: 20171103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3154050001  
ID: 01100701.20171103154050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br/>뇌종양 진단을 받은 30대 엄마가 두 아들을 위해 쓴 편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3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세라 시버스(34)는 지난 3월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다. <br/> <br/>지난 2008년 처음 발견돼 병을 물리쳤지만 최근 다시 재발한 것이다. <br/> <br/>세라는 3살인 큰 아들 휴와 작은 아들 알피에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다.  <br/> <br/>세라는 편지에서 “나는 너희가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사실은 말하기 어렵고 마주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앞으로 너희 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다. 너희는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라고 전했다. <br/> <br/>세라는 편지에서 자신이 좋아했던 향수와 음식, 계절 등도 소개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br/> <br/>그러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고 감정 표현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과서보다 학교생활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며 “운동을 즐기고, 외국어와 악기를 배워야 한다. 많은 곳을 여행하라”고 조언했다. <br/> <br/>세라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버지를 잘 도우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br/> <br/>세라는 “<span class='quot0'>아버지가 새로운 파트너와 다시 행복을 찾기를 원할 때가 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의 선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너희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span>”고 전했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호주 ABC 방송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1-100.txt

제목: 암, 직접치료목적 아니면 입원보험금 못받아  
날짜: 20171102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2204844001  
ID: 01100701.20171102204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주부 A(46세)씨는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항암·방사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br/> <br/>2일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과 관련된 모든 치료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br/> <br/>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진단비의 경우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가 조직·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바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암을 뜻하는 ‘C코드(악성신생물)’가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면 진단비도 못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br/> <br/>암 입원비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만 지급된다. 암 치료 후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입원비를 못받을 수도 있다. <br/> <br/>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1.txt

제목: 노인 많은 농촌… 도시보다 진료비 2.6배 지출  
날짜: 20171102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2194846002  
ID: 01100701.2017110219484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노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진료비 지출이 많아 도시와 농촌 간 진료비 격차가 최대 2.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71조9671억원으로 2015년(64조8300억원)보다 11% 늘었다. 건보나 의료급여로 보장을 받은 사람은 5227만명이었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46만8000원으로 전년(133만5000원)보다 10.0% 증가했다. <br/> <br/>진료비 규모가 큰 곳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이었다. 전남 고흥의 1인당 진료비는 263만1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의령 260만4569원, 전북 부안 258만3566원, 전북 순창 254만6218원 등의 순이었다. <br/> <br/>진료비가 가장 적은 곳은 수원 영통(100만2654원)으로 고흥에 비해 2.6배 정도 낮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113만1040원), 용인 수지(113만198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상위 10곳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약 30%이고 하위 10곳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5∼10%로 노인이 많을수록 진료비 지출이 컸다. <br/> <br/>암과 만성질환 환자의 비율도 농촌이 높았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위암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함양(760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수원 영통(181명)의 4배 이상이었다. <br/> <br/>인구 10만명당 대장암 진료 인원은 충북 괴산(637명), 경북 봉화(547명), 경북 의성(546명) 등으로 역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이었다. 4대 주요 암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위암 311명, 대장암 280명, 폐암 162명, 간암 142명이었다. <br/> <br/>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10만명당 진료 인원이 1만1884명으로 충남 서천(2만4849명), 전남 진도(2만4096명), 경북 의성(2만3965명) 등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2.txt

제목: 담배만큼 해로운 다섯 가지  
날짜: 20171101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101100304002  
ID: 01100701.20171101100304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현대인의 생활 패턴 가운데 ‘백해무익의 아이콘’인 흡연만큼이나 해로운 행동이 있다면? <br/> <br/>31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앞으로 흡연문제처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위험요소 5개를 소개했다. <br/> <br/>미국 공중위생국장 비벡 머시는 외로움을 전세계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느는 만큼 대면 접촉이 줄면서 외로움도 커진다는 것이다. <br/> <br/>미 브링검영 대학 연구팀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점을 보이기도 했다. <br/> <br/>종일 앉아있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br/> <br/>2014년 한 연구에서는 하루종일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게 확인됐다. 연구팀은 400만명을 대상으로 TV시청, 근무, 통근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며 얼마나 앉아있는지를 조사했다. 앉아있는 시간이 두 시간 많아질 때마다 결장, 자궁내막, 폐의 암 발생률이 올라갔는데 심지어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br/> <br/>만성피로의 주범인 수면부족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br/> <br/>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밸러리 가파로브 교수는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의 뇌졸중과 심장마비 유병률을 보였다. <br/> <br/>몸을 구릿빛으로 태우는 태닝이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실내 태닝은 어떨까. <br/> <br/>2014년 미 의학협회지(JAMA)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실내 태닝이 피부암을 일으킬 확률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확률보다 높았다. <br/> <br/>마지막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br/> <br/>지나친 당분,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은 알콜, 마약, 위험한 성관계, 담배 이 모두에 노출된 사람의 사망 위험보다 높다는 연구가 지난해 발표되기도 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3.txt

제목: 간암 악성화·재발 막는 메커니즘 규명  
날짜: 20171031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31211558001  
ID: 01100701.2017103121155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 연구진이 간암의 악성화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br/> <br/>서울대는 생명과학부 정구흥(사진) 교수 연구진이 간암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의 일종인 AKT가 활성산소에 의해 활성화하면서 염색체 말단에 있는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연구진은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암세포의 이동과 투과 능력이 함께 향상돼 암세포가 악성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이 AKT 활성 억제제를 쥐에게 투여한 결과 암이 커지거나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것이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4.txt

제목: 미스코리아 진 서재원, '암 투병' 소방관 돕기 운동 벌여 '눈길'  
날짜: 20171031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31174914001  
ID: 01100701.20171031174914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미스코리아 진 서재원이 소방관 기부 활동에 적극 나섰다. <br/> <br/>2017 미스코리아 진 서재원이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소방모자 기부 캠페인’을 응원하고 소비자 참여를 독려하는 포토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 소방모자 기부 캠페인이란 에프알제이가 특별 제작한 소방모자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방동우회에 기부하는 행사다.  <br/> <br/>이 캠페인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나아가 암 투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br/> <br/>소방모자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가격은 화재재난 긴급 신고 번호인 ‘119’에 착안해 1만 1900원으로 정해졌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5.txt

제목: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 폐경 초기(10년 이내) 호르몬치료 시작하면 MHT 효과적  
날짜: 20171031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31134016001  
ID: 01100701.2017103113401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50대 여성들은 안면홍조, 땀 분비,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피곤감, 우울감, 관절통, 질건조증, 성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폐경 증상으로 많은 여성들의 건강에 적신호를 보낸다. <br/> <br/>폐경호르몬요법(MHT, Menopausal Hormone Therapy)은 폐경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여 삶의 질을 호전시킨다. 여러 관찰연구 결과, 폐경호르몬요법(MHT, Menopausal Hormone Therapy)은 골절 및 관상동맥질환 등 노화와 관련된 여러 만성질환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 <br/> <br/>하지만 미국 40개 기관에서 실시된 Women's Health Initiative(WHI) 임상시험 결과 (평균 연령: 63세)는 달랐다. 호르몬치료는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지 못했다.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영향이 없으나, 장기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medroxyprogesterone acetate) 병용요법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나와 폐경 여성이나 의료진에게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이에 폐경호르몬요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크게 줄었다. <br/> <br/>이런 WHI 연구결과가 처음 발표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WHI에 대한 재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돼 눈길을 끈다. 덴마크 연구 결과, norethindrone acetate를 사용한 병합요법은 유방암 위험에 영향이 없었다. 더불어 최근 의학 관련 전산 데이터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에 19개 임상시험(40,410명)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심혈관질환에 대한 폐경호르몬요법의 효과가 발표됐다. 임상시험의 메타분석 결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br/> <br/>이런 코크란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폐경호르몬요법은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지 못하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호르몬치료가 주로 행해지는 폐경 10년 이내에서 시작한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48% 감소(RR 0.52, 95% CI 0.29-0.96)시킬뿐 아니라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전체 사망률을 30% 감소(RR 0.70, 95% CI 0.52-0.95)시킨다. 그리고 뇌졸중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코크란 메타분석 결과는 결국 폐경 후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폐경호르몬요법의 심혈관질환 효과가 달라진다는 타이밍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br/> <br/>이번 메타분석 결과에 대해 대한폐경학회 윤병구 회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은 “<span class='quot0'>폐경호르몬요법으로 50대 폐경 여성의 전체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획기적이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동안 WHI 연구 결과에 따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임상적 이득이 저평가 되어 왔는데, 이번 메타분석 결과 폐경 초기에 시작하는 통상적인 폐경호르몬요법은 효과적일 뿐 아니라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며 또한 대장암, 위암 등 암 위험을 낮추는 이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br/> <br/>이어 윤 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메타분석 결과를 계기로 폐경호르몬요법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폐경 초기 (10년 이내) 호르몬치료 시작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폐경 증상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한편 대한폐경학회는 199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 폐경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난소호르몬의 기능과 폐경호르몬요법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 연수강좌를 통하여 폐경 진료 의료인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 <br/>김정환 기자 hwnai8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아픈 부모에 대한 연명치료,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  
날짜: 2017103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31050213001  
ID: 01100701.201710310502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발효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존엄사(尊嚴死)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처음 공식화한 것은 대법원입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 본인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br/>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존엄사 제도화를 권고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벌이다가 작년 1월에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한해 사망자의 약 20%가 항암치료를 받거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현실이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br/>그간 잡음이 적지 않았던 법인 만큼 시범사업 기간에 점검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관계 당국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법률상 기준과 절차가 이같은 문제를 막기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br/> <br/>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성 환자가 24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다. <br/> <br/>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br/> <br/>의사는 계획서에 환자 서명을 받기 전 △질병 상태와 치료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등록·보관·통보 절차 △호스피스 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br/> <br/>◆사망자 20%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눈 감아 <br/> <br/>첫 사례자는 말기에 가까운 암 환자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이 환자가 향후 임종기에 들어설 때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br/> <br/>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된다. <br/> <br/>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통과됐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r/> <br/>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개인의 정보는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내달 중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r/> <br/>◆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의향서…뭐가 다른가? <br/> <br/>이같은 일반인들의 반응과 달리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중에는 아직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br/> <br/>몸이 아프기 전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br/> <br/> 의료계는 대부분의 환자가 막상 임종이 임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대한 치료받길 원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효(孝) 사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br/> <br/>아직 의료기관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시범사업부터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7.txt

제목: 손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최지우·최민호와 호흡  
날짜: 20171030  
기자: 김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30151553001  
ID: 01100701.20171030151553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그룹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사진)이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출연한다. <br/> <br/>일간스포츠에 따르면 tvN 드라마국 측은 "손나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br/> <br/>손나은은 드라마에서 최지우, 최민호, 원미경, 김영옥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br/> <br/>12일 방송을 앞둔 tvN 새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1996년 MBC에서 방송된 노 작가의 동명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4부작으로 예정됐다. <br/> <b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노 작가의 대표 명작 중 하나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br/> <br/>1997년 3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과·작품상을, 같은해 방송위원회 대상과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각각 거머쥔 바 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08.txt

제목: 우리 일상의 삶은 ‘독소’로 오염돼 있다  
날짜: 20171028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8030607001  
ID: 01100701.2017102803060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로랑 슈발리에 지음/이주영 옮김·흐름출판/1만3000원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로랑 슈발리에 지음/이주영 옮김·흐름출판/1만3000원 <br/> <br/>아침 7시에 일어나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머리를 스프레이로 마무리한다. 주말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을 입고, 회사에서 간식으로 먹을 과일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가방에 넣는다. 향수를 살짝 뿌리고 문을 나서 출근길에 오른다. <br/> <br/>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의 아침 모습이다. 건강을 해칠 만한 요소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 삶을 위협하는 ‘독소’가 가득하단 사실은 잘 모를 것이다. <br/> <br/>올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합성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갓난아이에게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 살충제 달걀, E형 간염을 유발하는 소시지에 이르기까지…. 비록 직접 피부로 느낄 순 없으나 화학물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br/> <br/>현대사회는 화학물질로 가득하다. 화학물질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아니다. 생존을 위해 인간은 화학물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신체 유지를 위해 허용된 양 이상이 축적되지 않는 한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br/> <br/>하지만 화학물질은 ‘친화성’이라 불리는,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려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특성은 다른 화학물질들과 결합되어 독성을 띠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합성화학물질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라는 것이다. 합성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br/> <br/>현대에 들어 소화기 계통보다는 신경계와 호르몬계통 암발생률이 점점 높아가는 추세는 결국 합성화학물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근대기에 비해 현대기 합성화합물질 소비량은 수백배나 늘었다. 합성화학물질은 1리터당 몇 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만 들어있어도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올림픽 수영경기장 물속에 소금 알갱이 하나를 넣은 정도의 미량일지라도 그 독성은 대단하다. <br/> <br/>저자가 제시한 일상 속 대표적인 합성화합물의 목록이다. 첫째 색소, 방부제, 유화제, 감미료 등 각종 식품첨가물 그룹이고, 둘째 인스턴트식품, 각종 가공육, 통조림 등 가공식품류이다. 셋째, 식품을 저장하는 플라스틱 용기 및 각종 주방용품, 암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 첨가된 농산물, 담배연기 등의 유해 연기, 선크림, 향수를 포함한 각종 화장품 등이다. <br/> <br/>식품첨가물은 건강에 가장 적신호를 보이는 합성화학물질이다. 산화방지제 BHA는 껌이나 인스턴트 수프, 퓌레처럼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식에 첨가된다. 이는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암을 유발하기 쉽다. 식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알루미늄은 소화기 내벽을 손상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퇴행성 신경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물질이다. 알루미늄은 조린 과일이나 베이킹파우더, 식용 색소에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장기가 형성되는 태아 시기나 유년기, 성장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br/> <br/>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및 쥐약 등의 농약은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기억장애를 유발한다. 불임이나 선천적 기형, 혈액암이나 뇌종양 같은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당뇨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br/> <br/>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 호르몬이 다른 화학물질보다 무서운 건 여러 세대에 그 영향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전립샘암, 갑상샘암 등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이다. 치과 치료에 사용하는 레진에 함유된 비스페놀A라는 환경 호르몬은 유방암 등을 유발하며, 유아의 과다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br/> <br/>물은 과연 안전할까? 시중에 팔리는 대부분의 생수는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다. 플라스틱은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졌다. 이 물질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불임이나 과체중을 유발한다. 세제, 탈취제 등은 오염물질로 실내에 쌓여 알레르기, 기관지염, 피부염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선크림, 향수, 염색약, 보습제품이나 클렌징오일, 디오더런트 같은 화장제품 속 화학물질은 피부암을 유발한다. 의류 염색에 쓰이는 아조화합물, 표백제나 세탁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염이나 산성화합물은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심각한 유독물질이다. <br/> <br/>저자는 “<span class='quot0'>기업이 주도하는 현대경제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시장의 침체를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span>”고 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결국 화학물질의 세계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span>”고 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09.txt

제목: 반환예정 부평 미군기지 부지서 발암물질  
날짜: 20171027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7193913001  
ID: 01100701.20171027193913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우리나라에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 마켓’이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기름, 중금속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환경부는 27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두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캠프 마켓의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br/> <br/>이번 발표는 한·미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현장조사는 2015년 7월∼2016년 3월과 2016년 3∼9월 두 차례 진행됐다. 정부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조사 결과를 반환이 이뤄지기 전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한·미 양국은 현재 SOFA에 따라 캠프 마켓 총 면적 47만9622㎡ 중 22만8793㎡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br/>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옥신류는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1000pg-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했고 최고 농도는 1만347 pg-TEQ/g에 달했다. <br/> <br/>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다이옥신은 국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토양환경)유사 국가인 일본의 기준을 적용한 수치</span>”라고 설명했다. <br/> <br/>다이옥신류는 유기적 오염물질로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호르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br/> <br/>유류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 농도가 2만4904㎎/㎏까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500㎎/㎏)의 5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벤젠 최고 농도는 1.6㎎/㎏(기준치 1㎎/㎏), 크실렌 최고 농도는 18.0㎎/㎏(기준치 15㎎/㎏)으로 나타났다. <br/> <br/>중금속은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의 오염이 확인됐다. <br/> <br/>납 최고 농도는 5만1141.6㎎/㎏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치(200㎎/㎏)을 255배 초과했고 구리 최고 농도는 2만9234.2㎎/㎏으로 기준치(150㎎/㎏)보다 200배 가까이 검출됐다. <br/> <br/>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br/> <br/>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span class='quot1'>정부는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빨리 기지 내 다이옥신류 등 오염토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주한미군 측도 우리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 <br/> <br/>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span class='quot2'>부평 미군기지의 DRMO(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의 환경오염이 여타 미군기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임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2'>즉각 위해성평가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미군 측에 오염정화를 요청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0.txt

제목: 대종상 ‘택시운전사’ 품으로  
날짜: 20171026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6211759001  
ID: 01100701.20171026211759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대종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4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택시운전사’는 최우수 작품상과 기획상을 받았다. <br/> <br/>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독일 기자와 그를 태우고 광주에 갔던 택시운전사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올해 유일한 ‘1000만 영화’(관객수 1218만명)로 역대 박스오피스 9위에 올랐다. <br/> <br/>‘택시운전사’ 제작사 더램프의 박은경 대표는 수상을 위해 두 차례 무대에 올라 “<span class='quot0'>이 상을 ‘택시운전사’에게 준 것은 아픈 현대사에 대한 위로와 바른 언론에 대한 응원이 아닌가 생각된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다룬 영화 ‘박열’은 5개 부문을 휩쓸었다. <br/> <br/>이준익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최희서가 신인여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박열’은 이외에도 의상상과 미술상을 받았다.  <br/> 설경구(왼쪽), 최희서 <br/>남우주연상은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의 설경구에게 돌아갔다. 남녀조연상 수상자로는 ‘더킹’의 배성우와 김소진이 선정됐고, 신인 남우상은 ‘청년경찰’의 박서준이 받았다. <br/> <br/>한국 영화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지난 4월 암으로 별세한 배우 김영애에게 돌아갔다. <br/> <br/>이날 무대에 오른 고인의 아들은 “배우로서 어머니가 얼마큼 애정을 가지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돌아가시고 나서 느끼는 것 같다”며 “계속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다음은 수상자 명단. <br/> <br/>△최우수작품상 택시운전사 △감독상 이준익(박열) △남우주연상 설경구(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 △여우주연상 최희서(박열) △남우조연상 배성우(더킹) △여우조연상 김소진(더킹) △신인남우상 박서준(청년경찰) △신인여우상 최희서(박열) △신인감독상 엄태화(가려진 시간) △의상상 심현섭(박열) △미술상 이재성(박열) △시나리오상 한재림(더킹) △음악상 달파란(가려진 시간) △편집상 신민경(더 킹) △조명상 김재근(프리즌) △기획상 최기섭·박은경(택시운전사) △촬영상 박정훈(악녀) △기술상 정도안·윤형태(악녀) △특별상 고(故) 김영애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1.txt

제목: 죽음 없는 세상… 꿈과 희망이 무슨 의미 있을까  
날짜: 20171026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6211654001  
ID: 01100701.2017102621165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자연사하는 것만도 복된 세상인가. 소설가 이현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가 최근 펴낸 신작 장편 ‘사라진 요일’(자음과모음)을 읽어보면 의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이 결코 축복일 수만은 없는 여러 조건들이 상세하게 펼쳐진다. 이 소설에는 평균 수명이 150세인 라론 증후군 환자가 등장한다. 이 증후군은 성장호르몬 신호의 이상으로 당뇨나 암에 걸리지 않으며 성장이 중지되어 죽을 때까지 외모가 늙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늙지 않고 왜소하며 쉬 죽지 않는 라론 증후군 환자는 지구상에 300명 정도 존재하는 희귀 난치병이다. <br/> <br/>특이한 소재를 취해 우리시대 죽음과 삶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말하는 이 소설은 이현수가 급격한 변신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는 ‘신기생뎐’이나 ‘토란’ ‘장미나무식기장’ 같은 소설들을 통해 전통적인 단아한 문체로 주로 과거의 삶을 웅숭깊게 그려낸 작가였다. 이번 소설은 다르다. 추리소설 기법을 차용해 장르 문법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곳에서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추구한다. <br/> <br/>아이 둘을 키우며 소설을 쓰는 한정원.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협박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한다. ‘널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복수할 그날을 위해 난 또 오늘을 산다.’ 고민하던 한정원은 그 편지를 보낼 만한 사람들을 떠올리다가 고향 마을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 그곳의 강 가운데 있는 ‘동동섬’, 동동 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남매의 근친 사연이 깃들어 안타까움 때문에 동동거린다는 그 섬이 중심 무대다. 이 동동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라론 증후군 김경훈이 이들을 기다렸다가 바야흐로 복수극을 시작한다. <br/> <br/> 과거를 말하는 고전적인 문체에서 현재 시점의 추리소설 문체로 변신을 시도한 소설가 이현수. 그는 이 새 장편에서 “수명 연장의 폐해와 존엄사,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세력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말한다.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지만 한정원은 점차 어이없게도 학창시절 써주었던 연애편지가 이 사달의 실마리였음을 알게 되고 사태는 본격적인 추적, 액션, 탈주극으로 이어진다. 고향 친구들의 과거에 얽힌 작은 이야기로 시작된 서사는 개인의 평범한 일상을 옥죄는 검은 세력의 음모로까지 확대된다. 부모는 물론 형과 사랑하던 여동생까지 죽고 고아가 된 김경훈은 마태오 신부의 주선으로 같은 처지의 환자가 많은 에콰도르로 가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자 했지만, 그 이주는 결국 검은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힘겹게 탈출해 16년 만에 동동섬으로 돌아온 김경훈은 자신의 피붙이를 죽게 만든 고향 후배들에게 소리친다. <br/> <br/>“너희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나에 관해 알고는 있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걸 간절하게 원했을 뿐이야. 중후하게 나이든 노신사가 되고 싶었고 심신이 쇠약해져 자연사하는 게 꿈이었다고. 나에게는 그조차도 쉽지 않아. 이젠 지쳤어. 끝내고 싶어.” <br/> <br/>김경훈은 “<span class='quot0'>희로애락을 골고루 느껴야 참다운 인생</span>”이며 “<span class='quot0'>죽음이 없는 세상에선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어(死語)가 될지도</span>”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 고요한 무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평범한 종족이기를 소망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설 쓰기가 힘들어서 2013년 계간 ‘자음과모음’에 이 소설을 연재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원고를 매만지기만 하다 이제야 펴냈다는 이현수는 이 소설에서 “<span class='quot1'>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대 세력과 수명 연장의 폐해, 존엄사에 주목했다</span>”고 말했다. <br/> <br/>“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존엄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소설 구상 당시만 해도 법제화가 안 됐었는데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존엄사 법제화를 계기로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고, 이 소설이 그런 마당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br/> <br/>소설 속 라론 증후군 환자 김경훈은 어떤 세력에게는 같은 종의 인간이라기보다 생체실험 대상자로 이용당하는 코드명 ‘AP-598’일 뿐이었다. 악하기도 하고 이해할 만한 선한 구석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작가에게는 고민을 안겨준 인물이기도 했다. 이현수는 “<span class='quot1'>퇴고에 시간을 많이 쏟은 것은 악 속에 숨은 선, 선 속에 숨은 악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아서였다</span>”고 말미에 적었다. 구체적인 세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성실성은 이번 소설에서도 여전하거니와 이현수는 짧게 등장하는 수송기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공군을 찾기도 했다. <br/> <br/>글·사진=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2.txt

제목: ‘택시운전사’ 대종상 최우수작품상…‘박열’은 감독상·여우주연상 등 5관왕  
날짜: 20171026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6103804001  
ID: 01100701.2017102610380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대종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br/> <br/>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4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택시운전사’는 최우수 작품상과 기획상을 받았다. <br/> <br/>두 차례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제작사 더램프의 박은경 대표는 “<span class='quot0'>이 상을 ‘택시운전사’에게 준 것은 아픈 현대사에 대한 위로와 바른 언론에 대한 응원이 아닌가 생각된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다룬 영화 ‘박열’은 5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준익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주연배우 최희서가 신인여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박열’은 이외에도 의상상과 미술상을 수상했다. <br/> <br/>남우주연상은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의 설경구에게 돌아갔다. <br/> <br/>남녀조연상 수상자로는 ‘더킹’의 배성우와 김소진이 선정됐고, 신인 남우상은 ‘청년경찰’의 박서준이 받았다. <br/> <br/>한국 영화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지난 4월 암으로 별세한 배우 김영애에게 돌아갔다. <br/> <br/>이날 무대에 오른 고인의 아들은 “배우로서 어머니가 얼마큼 애정을 가지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돌아가시고 나서 느끼는 것 같다”며 “계속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3.txt

제목: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밀문서 공개…54년 이어진 음모론 해소될까  
날짜: 20171025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5210236001  
ID: 01100701.20171025210236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됐던 1963년 11월22일, 당시 11세 사춘기 소녀였던 토니 글로버는 그 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케네디 대통령을 본다면 많은 고민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았다’는 순수한 마음에 그는 아침부터 대통령 퍼레이드가 예정된 딜리 플라자에 자리를 잡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통령과 영부인 재키가 (내게) 손을 흔들며 웃어줬다”며 “차가 모퉁이를 돈 이후 ‘대통령 차가 사라질 때까지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대통령이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탓에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한 그는 “음모론자들을 믿지 않지만 여러 정부 조사관들조차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br/> <br/>음모론의 단골 소재 중 하나로 거론되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문서 전부가 26일(현지시간) 공개된다. 이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기록 일체를 25년 내에 공개하라는 1992년 미 하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은 88%가 전부 공개돼 있고, 11%는 민감한 부분을 가린 상태로 대중에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부분은 나머지 1%다. <br/> <br/>25일 영국 BBC방송은 케네디 암살 사건의 기밀문서 해제를 앞두고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문점들을 전했다. <br/> 리 하비 오즈월드. <br/>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암살 사건은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 3년차였던 1963년 11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덮개 없는 리무진 차량을 타고 퍼레이드를 하던 중 발생했다. 세 발이 총탄이 발사돼 이 중 마지막 총탄이 케네디 대통령 머리를 관통했고, 그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댈러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리 하비 오즈월드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고, 12시간 만에 케네디 암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케네디 암살 사건의 전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오즈월드는 체포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감옥으로 압송되던 중 나이트클럽 사장 잭 루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형을 선고 받은 잭 루비는 수감 생활 중 암이 발병해 1967년 항소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br/> <br/>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은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케 했다. 이듬해 나온 워런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총탄은 모두 암살 현장 인근 텍사스 교과서 배급 건물 6층에서 발사됐고, 리 하비 오즈월드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또 오즈월드와 잭 루비 모두 어떤 외교적, 국내적 음모에 연루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후 1975년 록펠러 위원회는 미 CIA가 연루됐다는 어떤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1979년 미 의회위원회는 워런의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면서도 오즈월드 외에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br/> <br/>이처럼 각종 조사가 실시됐지만 케네디 암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그치지 않고 있다. 먼저 미 의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제2의 범인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워싱턴포스트 기자 제퍼슨 폴리는 마지막 총알이 케네디 대통령 기준으로 뒤쪽인 건물 6층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 앞에서 발사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남긴 제프루더 필름에 따르면 케네디의 머리는 총을 맞고 뒤쪽으로 움직였는데 이는 차량 앞쪽에 오즈월드 외에 다른 범인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아울러 경찰이 오즈월드를 체포한 이후 화약 성분을 탐지하는 파라핀 테스트를 뺨에 실시했는데 음성이 나온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br/> <br/>오즈월드가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행 동기가 주된 관심사다. 토머스 월런 보스턴대 부교수는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오즈월드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다. 가장 큰 질문거리는 그가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 여부다”고 지적했다. 오즈월드가 1959년 소련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지만 실패한 상태에서 1962년까지 머물렀고, 공산 국가인 쿠바는 물론 사건 두 달 전인 1963년 9월에 멕시코시티 내 소련 대사관을 방문한 경력이 밝혀지는 등 매우 정치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그가 멕시코시티에서 쿠바나 소련 정보원과 만났고, 그들이 케네디 암살에 관한 지시를 오즈월드에게 내렸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며 “미국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당시 피델도 케네디를 죽일 동기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br/> <br/>사진=BBC방송, AFP통신

언론사: 세계일보-1-114.txt

제목: 유상무 "응원 감사…많은 것 경험하고 느꼈다"  
날짜: 20171025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5111855001  
ID: 01100701.201710251118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br/> <br/>대장암 투병 중인 개그맨 유상무가 심경을 밝혔다. <br/> <br/>25일 새벽 유상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To. 소중한 내 사람들”이라는 글을 공개했다. <br/> <br/>유상무는 글을 통해 “견디기 힘들 때 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 듣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원 전까지 약 10일 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건 사실 저를 위함 이었습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이어 “잠시나마 암에 걸렸단 사실을 잊을 수 있었고, 몇 기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항암제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맙습니다”고 전했다. <br/> <br/>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 역시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br/> <br/>유상무는 지난 4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br/> <br/>마지막 항암치료를 앞둔 그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는다”면서 “가장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 평생을 두고 갚을게. 고맙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며  연애 사실을 밝혀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언론사: 세계일보-1-115.txt

제목: 유상무, 대장암 3기 항암 치료 완료…일반인 연인에 "평생 갚을게"  
날짜: 20171025  
기자: 김현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5103813002  
ID: 01100701.20171025103813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개그맨 유상무가 24일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근황과 옆을 지켜준 연인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다. 사진=유상무 인스타그램 <br/>유상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근황과 함께 일반인과의 열애 사실도 공개했다. <br/> <br/>개그맨 유상무는 지난 4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아 일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마다 1회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br/> <br/>그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드디어 마지막 항암. 가장 힘들때 옆을 지켜준 사람. 평생을 두고 갚을께. 고맙고, 그동안 고생많았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br/> <br/>사진에는 병원에서 링거 바늘이 꽂혀있는 유상무의 손과 그 여자친구로 보이는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br/> <br/>6개월간의 항암치료를 마친 유상무는 추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판정을 받게 된다. <br/> <br/>오랫동안 알고 지낸 일반인 회사원 지인과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유상무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으로 활동하고 있다. <br/> <br/>뉴스팀 chunjaeh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6.txt

제목: 뚝심의 큰스님 “신심·원력·공심으로 불교 부흥”  
날짜: 20171024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4203056001  
ID: 01100701.20171024203056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네가 남의 물건에 손댔다는구나. 어찌 된 일이냐?” “그런 일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바른대로 말해라.” “안 그랬습니다!” <br/> <br/>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76·사진) 스님에 얽힌 일화다. 열한 살 난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다. 일제강점기 충남 예산에서 주역의 대가로 이름을 날린 아버지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장부다운 삶’임을 강조한 대쪽 같은 선비였다. 베틀의 뱁댕이 막대 몇 개가 부러지도록 맞은 아들은 집을 나왔다. ‘나는 집과 인연이 없는가 보다’고 생각한 아들은 낮부터 내린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던 저녁 나절, 맨발로 30여 리의 길을 무작정 걸고 또 걸었다. 그 일로 동상에 걸려 발을 자를 뻔했다. <br/> <br/>이후로 아버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끝장을 보는 아들의 성정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 아들이 오는 31일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설정 스님이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자”는 게 스님의 철학이다. <br/> <br/> 오는 31일 제 35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설정 스님은 “<span class='quot0'>위기에 몰린 종단을 개혁하고 신도의 신뢰를 회복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불교신문 제공종단 원로회의 좌장인 종회의장을 지낸 이후 2009년부터 수덕사의 방장으로 추대된 스님은 후학 양성의 길을 걸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 당시 학력 위조 또는 은처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스님은 담담했다. 오히려 “내가 당선돼 못된 종단 풍토를 바로잡아야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사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삼류 정치판과 다름없는 타락상을 보였다. 스님을 욕보일 요량으로 일부 징계승들은 사력을 다해 헛된 소문을 퍼뜨렸으나 스님은 이겨냈다. 선거 직후 조계종 안팎에선 “설정 스님은 ‘큰스님’이다. 스님의 살아온 길이 얼마나 올곧고 담박했는지 새삼 드러난 선거전이었다”면서 “이미 되었어야 할 인물”이라고 당연시했다 <br/> <br/>스님 특유의 강직함은 유명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임명된 수덕사 주지 시절이었다. 주지를 맡은 지 1년도 채 안 된 1980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의 시작이었다. 느닷없이 군인 몇명이 수덕사 대웅전을 짓밝고 들어와 스님을 대전 보안대로 끌어갔다. 스님은 신문을 당하면서도 잠을 자지 않은 채 단식하며 좌선했다. 매일같이 군부를 지지한다는 조서를 쓰라고 윽박지르는 군인의 강요에도, 한 줄 쓰지 않고 버텼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도 단호히 거절했다. 고문으로 부러진 몽둥이가 널부러져 험악한 보안대 지하 감방에서 그렇게 열흘간 버티다 석방되었다. 그 얼마 후엔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으러 서울로 오라는 얘기를 듣고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어릴 적 부친에게 오해받아 매 맞을 당시에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버틴 스님의 뚝심이었다.  <br/> <br/>1975년 수덕사 분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스님은 수완을 발휘했다. 당시 수덕사의 일부 관계자와 사기꾼이 결탁하는 바람에 절 소유 땅이 팔려 나갔고, 일주문 앞에까지 가게들이 들어찼다. 스님은 재판 열 건을 모두 이겨 원금을 돌려주고 팔린 땅을 되찾았다. 이때 췌장암을 얻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또 한 번 스님은 참선 기도에 집중해 암을 이겨냈다. 한번 걸리면 대부분 사망에 이른다는 췌장암을 이겨낸 경험으로, 스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끊어낼 수 있었다. <br/> <br/>스님은 “<span class='quot1'>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수행자 본연의 삶을 선택한 것은 결국 나의 의지를 시험한 것</span>”이라고 회고했다. 20대 후반 늦깎이 대학생이 되려고 공부했으나 시험에 떨어졌고 땡전 한 푼 없었다. <br/> <br/>“생을 놓아 버리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배가 고팠다. 두 달 동안 목포에서 해남까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나락을 줍는 일도 거들어 주고 밥을 얻어먹었어. … 밥이며 잠자리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절박하고 극한 상황에 나를 몰아넣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너무 나약했고 덜 치열했고 덜 하심(下心)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br/> <br/>설정 스님의 설법은 알아듣기 쉽다. 선사들의 말이나 경전을 인용하기보다 자신의 언어로 바꿔 부처의 설법을 전한다. 유연한 마음으로 한 수행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개성적인 수행법을 따른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몸으로 부딪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넓고 깊어진 것이라고 했다. <br/> <br/>스님은 “승려는 먹을 것, 입을 것, 잠, 이렇게 세 가지가 부족해야 하며 공부와 노동이 함께해야 힘 있는 공부가 된다”면서 승려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생명줄로 신심, 원력, 공심(公心)을 들었다. 스님은 “60여 년 동안 이(理)와 사(事)를 겸비하여 수행에 매진해왔다”며 “수행자로서 결코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7.txt

제목: 눈먼 아내에게 찾아온 유방암의 그늘  
날짜: 20171024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4030557001  
ID: 01100701.20171024030557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24일 오후 11시35분 EBS1 ‘메디컬 다큐-7요일’(사진)에서는 자린고비 남편과 유방암에 걸린 눈먼 아내의 묵직한 사랑이야기를 소개한다. <br/> <br/>구자숙씨의 세상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다.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야 사물의 윤곽을 간신히 구분하는 정도다.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구씨는 25살 때 눈앞이 부옇게 흐려지면서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눈이 어둡다 보니 넘어지거나 그릇을 깨는 일이 잦다. 몸이 성할 날이 없고, 최근엔 허리에 무릎까지 아파졌다. <br/> <br/>그러던 중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발견됐다. 유방암, 종양 크기가 큰 편은 아니지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가슴을 모두 절제해야 한단다. <br/> <br/>아내보다 더 충격이 큰 건 남편 양수영씨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치료비까지, 아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18.txt

제목: 탄수화물 중독을 끊는 8가지 꿀팁  
날짜: 20171023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3164237002  
ID: 01100701.20171023164237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br/>쌀밥, 라면, 과자, 빵 등... 다이어트 중엔 유난히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곤 한다. 이를 그저 꾹꾹 참다 폭식-과식을 해 절망하는 다이어터도 많다. 최근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탄수화물 섭취 욕구를 줄이는 8가지 팁을 제시했다. <br/> <br/>1.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라 <br/> <br/>빵, 라면, 시리얼 등은 대표적인 ‘백색 탄수화물’이다. 정제된 흰 밀가루가 주원료다. 소화가 빠르고 가공된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 현미보다 도정을 많이 한 백미도 살이 찌기 쉬운 음식인 건 마찬가지. 영양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더 많은 탄수화물을 요구한다</span>”고 입을 모았다. <br/> <br/>2.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라 <br/> <br/>탄수화물은 크게 콩류, 과일류, 녹말채소류, 흰빵류 등 4가지 분류로 나뉜다. 이 중 복합탄수화물은 앞의 3가지를 말한다. 주로 땅에서 자란다.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당뇨병, 심장병, 암 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이 당긴다면 빵, 라면 등이 아닌 채소와 과일에서 섭취하자. <br/> <br/> <br/>3.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먹자 <br/> <br/>몸에 좋은 ‘착한 지방’은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하기 좋은 영양소다. 아보카도, 견과류, 땅콩버터 등이 그 예다. <br/> <br/>이러한 ‘착한 지방’은 우리 몸속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돕는다.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허기를 심하게 느껴 다이어트 시 폭식을 할 수 있다. <br/> <br/>매끼 든든하게 단백질을 먹는 것도 탄수화물 욕구를 다스리는 데에 효과적이다. <br/> <br/>4. 아침을 거르지 마라 <br/> <br/>오후에 탄수화물 생각이 간절하다면 아침을 거르지 않았나 곰곰이 살펴보자. 아침 식사는 밤사이 텅 빈 속을 채워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인다. <br/> <br/> <br/>5. ‘치팅 데이’가 아닌 ‘치트 밀’ <br/> <br/>다이어트 시 하루 종일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는 ‘치팅데이’를 갖는 다이어터가 많다. 하지만 삼시 세끼 ‘불량 식사’를 하면 원래의 건강한 식사로 돌아오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식사의 75%가 균형 잡혀 있어야 좋은 다이어트라고 본다. <br/> <br/>따라서 일주일 중 한 끼 정도만 자유식을 하는 ‘치트밀’이 효과적이다. 이는 다이어트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br/> <br/>6. 무엇을 먹는지에 집중하라 <br/> <br/>한 끼 식사를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전체 식단의 50%를 채소, 25%를 고기 및 콩 등의 단백질류, 10~15%를 탄수화물로 채우길 권장한다. 음식 색깔이 형형색색 화려할수록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확률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1'>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콩류, 퀴노아, 스파게티 스쿼시 등 녹말채소류는 점심과 저녁에 여성은 1/4컵, 남성은 1/2컵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span>”고 권고한다. <br/> <br/>7. 사과식초를 마셔라 <br/> <br/>식사 전 사과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면 당류 소화가 수월해지고 식욕을 다스릴 수 있다. 다만 가공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골라야 효과가 있다. <br/> <br/>8. 크롬 영양 보충제를 먹자 <br/> <br/>소위 ‘당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크롬 영양 보충제를 구비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크롬은 근육량 증가, 지방 감소,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 다만, 과다 섭취 시 두통, 묽은 변, 변비, 허약, 구토, 두드러기 증세를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19.txt

제목: “新수술법, 자가조직 이용한 유방 재건수술 시간 1시간20분 줄여”  
날짜: 20171023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3161416001  
ID: 01100701.2017102316141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 제거 후 자가 조직을 이용한 가슴 재건 수술 시간을 6시간20분에서 5시간으로 줄이는 수술법이 발표됐다. <br/> <br/>2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오득영 유방암센터 교수팀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유방암 재건술 중 깊은 하부 상복부 천공지 피판수술(배꼽아래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수술)을 시행 받은 24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이중 12명은 양극성 전기소작기, 12명은 초음파 절삭기를 사용하였다. <br/> <br/>초음파 절삭기로 수술한 경우 전체 유방재건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305.2분으로, 양극성 전기소작기 수술시간 380.3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 1시간20분이 단축됐다. <br/> <br/>이는 유방재건에 필요한 조직을 얻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 초음파 절삭기를 사용함으로써, 이 과정의 평균수술시간을 59.8분으로 양극성 전기소작기 145.9분보다 2.4배 단축해 얻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br/> <br/>초음파 절삭기는 가위처럼 생겨 절단과 지혈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현재 대장, 갑상선, 복강경 수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유방 재건술 적용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br/> <br/>유방암은 암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수술로 유방을 잃은 환자들의 유방 원형을 복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치료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유방암 수술 후 상실감, 우울감 등으로 항암치료 과정과 치료 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r/> <br/>오득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의 난제였던 긴 수술시간을 단축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br/> <br/>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수술법은 성형외과학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Plastic, Reconstructive & Aesthetic Surgery에 게재되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20.txt

제목: 美 시니어 미인대회…"나이서 나오는 우아함은 계속된다"  
날짜: 2017102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3125241001  
ID: 01100701.20171023125241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미국에서 60세 이상 할머니들을 위한 미인대회가 열렸다. <br/> 73세 캐롤린 슬레이든 하든 할머니가 우승을 차지했다. (가운데)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시니어 미인대회’가 개최됐다. <br/> <br/>이번 대회에는 전직 미국중앙정보국(CIA) 출신 할머니를 시작으로 마라토너, 주부였던 할머니 등 다양한 경력의 60세 이상 할머니들이 모여 미를 과시했다. <br/> <br/>대회에서는 196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故휘트니 휴스턴이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았던 73세 캐롤린 슬레이든 하든 할머니가 우승을 차지했다. <br/> <br/>할머니는 “나이에서 오는 우아함은 시니어 여성의 아름다움에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우아함에서 발산되는 미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한편 이날 대회에는 암과 이혼 또는 사별의 아픔을 극복한 할머니들의 사연이 전해져 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br/>대회에는 90대 할머니도 참여해 많은 시민의 박수를 받았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휴스턴타임즈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1-121.txt

제목: 변비·혈변… 치질 증상 알고보니 대장암?  
날짜: 20171022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2205513001  
ID: 01100701.2017102220551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육류 위주의 식단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 등 고지방·고칼로리 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늘고 있다. <br/> <br/>암 발생률만 봐도 1위인 갑상선암에 이어 위암·대장암이 뒤따르고 있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 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 사망률은 2001년 10만명 당 9.5명에서 2016년 16.5명으로 73%나 증가했다. <br/> <br/>일반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설사를 하는 등 변 보는 횟수가 바뀔 수 있다. 또한 피가 묻어나는 혈변이나 검은 흑변을 보게 된다. 대장암 세포 덩어리 때문에 대장이 좁아져서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거나 잦은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복부 팽만이나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br/> <br/>대한대장항문학회 조사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 7명 중 1명이 대장암 진단 전에 변비를 경험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혈변을 보면 단순 항문질환인 치핵(치질)을 의심하고 방치해 병을 키운다.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점이 혈변이기 때문에 착각하다 쉽다. 40대 이후 중장년층인 경우 과거에 없었던 치핵이 갑자기 생기거나 변비와 설사, 평소와 다른 배변습관 변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대장암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가족력(유전)으로 구분한다. 대장암의 약 80%는 고지방·고칼로리 음식, 비만, 흡연, 음주 등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김지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이상 생존율이 75.6%로 폐암이나 간암보다는 치명률이 낮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통해 대장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22.txt

제목: [기고] 인삼 종주국 위상 회복을 위하여  
날짜: 20171020  
기자: 이정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0212257001  
ID: 01100701.20171020212257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고려인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신초’(神草), ‘하늘의 정기를 받은 상약’으로 불렸던 고려인삼은 오랫동안 중국에 공물로 전달됐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주요 선물로도 활용됐다. 일본과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교역물품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을 사기 위해 ‘인삼대왕고은(人蔘代王古銀)’이라는 특별한 화폐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중국 청나라 때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인삼을 약으로 쓰며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다. 벨기에인 고셍은 1902년에 발간한 자신의 여행기 ‘조선’에서 “한국 인삼은 진귀한 특산물로, 태국의 사신이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를 알현할 때 진상했다”고 썼다. <br/> <br/>인삼은 예로부터 부족한 오장(五藏)의 기를 보완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대표하는 걸작 100선 중 하나인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에 “<span class='quot0'>병을 다스리려면 마땅히 인삼을 얻어야 한다</span>”고 기록돼 있어 2세기 무렵부터 인삼이 소중한 약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br/> <br/>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현대에 들어서는 인삼에만 들어 있는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가 항염증, 응집, 항당뇨, 항암, 심장강화, 혈압조절, 통증억제, 중추억제 및 신경안정 등에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암 치료 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원기 회복, 스트레스 경감, 방어 작용 강화, 기억력 증진, 협심증과 심근경색 예방, 난치성 빈혈 치료 등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 나오미 캠벨은 40대 후반임에도 균형 잡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비결이 인삼즙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 이외에 다른 물질의 효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 <br/> <br/>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인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캐나다와 중국 등에 생산은 물론 수출까지 밀리고 있다. 1970년부터 퀘벡주에서 인삼재배를 시작한 캐나다는 단기간에 생산은 물론 수출에서 1위 국이 됐다. 소매점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인삼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잘 돼 있고, 연구 인프라도 훌륭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br/> <br/>중국은 인삼재배면적 세계 1위 국가이며, 캐나다로부터 미국산 인삼 종자를 도입·재배해 공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인삼야생자원복원공정’을 펴며 인삼 고급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br/> <br/>요즘 인삼업계에서는 국내소비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장기침체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세계 인삼시장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은 지난 9월23일부터 금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인삼인들이 하나가 돼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br/> <br/>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관리를 비롯한 마케팅과 홍보, 수출전략, 법과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이다.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에서는 파마톤사가 오랜 기간 노력과 투자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세계 최초로 표준화하고 차별화된 인삼가공기술을 통해 ‘진사나(Ginsana)’ 등의 제품을 개발해 연간 3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인삼 종주국으로서 양질의 인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경쟁해야 할 때다. 산학연이 공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인삼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상을 되찾는 날을 기대해본다. <br/> <br/>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언론사: 세계일보-1-123.txt

제목: '사람이 좋다' 길건 "父 대장암 보험금으로 생활‥나쁜 생각까지"  
날짜: 20171020  
기자: 한누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20153324001  
ID: 01100701.2017102015332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오는 22일 오전 8시 5분에 방송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8년의 공백기를 깨고 다시 돌아온 가수 길건(사진)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br/> <br/>길건은 2004년 데뷔 이후 올해로 14년 차 가수이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이효리의 춤 선생’으로 더 익숙하다. <br/> <br/>‘한국의 비욘세’를 꿈꾸며 화제 속에 가수로 데뷔했지만 점점 그녀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은 식어갔다. <br/> <br/>설상가상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며 지난 8년간 무대에 오를 수 없었다. 암흑 같았던 8년 동안 그녀는 생계를 위해 분식집 서빙, 에어컨 필터 청소 등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br/> <br/>그러나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포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을 딸에게 보내주셨고, 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보험금까지 딸에게 보내줄 정도였다. <br/> <br/>길건은 2015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br/> <br/>당시 그는 "아버지가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내 생활비를 충당해주고 계신다"며 "나는 신앙인이지만 처음으로 나쁜 생각까지 들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길건은 그동안 댄스가수의 화려한 퍼포먼스뿐 아니라 드라마 OST와 발라드에 도전하며 다양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 중이다. <br/> <br/>“멋진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서른아홉 살 댄스가수 길건의 다재다능한 가수 길건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 <br/> <br/>뉴스팀 han62@segye.com <br/>사진=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언론사: 세계일보-1-124.txt

제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 내일] (9)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  
날짜: 20171019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9160255001  
ID: 01100701.201710191602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 <br/>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병원과  제약회사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업계는 이를 도입하고 적용한 여러 실험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1년 67억달러(약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IBM, 애플,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일찌감치 의료 관련 AI를 둘러싼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했으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br/> <br/>이 중 현재 헬스케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 널리 알려진 AI는 단연 IBM의 ‘왓슨‘(WATSON)'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왓슨을 도입해 암을 진단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헬스케어 분야에서 왓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br/>◆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br/> <br/>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AI 기반 의료 서비스인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는 IBM과 미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왓슨 기반의 암 치료 보조 솔루션입니다. 암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임상 결과, 학술지들을 분석해 개별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의사에게 치료법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의사가 암환자의 의료 기록과 검진 결과 등을 입력하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왓슨 포 온콜로지가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br/> <br/>같은 종류의 암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특성과 증상 등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맞춤형 치료가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왓슨이 의사의 효율적인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br/> <br/> 출처=IBM 왓슨 헬스 <br/> <br/>지난 4월부터는 국내에서도 SK주식회사 C&C와 건양대병원이 협력해 왓슨 포 온콜로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간 사용하고 있는 온콜로지 서비스에 대해 건양대 병원 측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바쁜 진료 스케줄로 최신 의료 정보와 문헌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왓슨이 추천해주는 치료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느끼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 증대, 의료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br/> <br/>◆고려대 의료원과 ‘에비브릴(AIBRIL) 항생제 어드바이저’ 공동 개발 발표 <br/> <br/>암 치료뿐 아니라 항생제 처방에도 왓슨 기반의 ‘에이브릴’(AIBRIL)이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SK㈜ C&C는 고려대의료원과 ‘AIBRIL 항생제 어드바이저’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는 국내외 논문과 가이드라인, 약품 및 보험 정보 등의 의료 문헌과 고려대 의료원 임상 케이스를 학습하여 환자 증상에 적합한 항생제를 추천합니다. 의사의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매우 높은 효용성이 기대됩니다. <br/> <br/> <br/>◆유의미한 데이터 베이스 확보가 중요 <br/> <br/>위에 소개한 온콜로지와 항생제 어드바이저 등과 관련해 가장 유의할 점 중 하나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 선별하는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임상 결과와 학술지 등이 AI 학습에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추천하는 암 치료법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개별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을 두고 의사와 AI 간 의견 차이가 빈번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br/>  <br/>예를 들어 온콜로지는 미국 내 사례를 학습한 결과 해당 기반의 치료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치료법이 미국과 진료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는 실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와 미국 간 보험 수가 및 인종 차이도 치료법과 항암제 선택 시 함께 고려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br/> <br/>온콜로지와 항생제 어드바이저 외에도 에이브릴 기반의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예정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관리, 연구 등의 영역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연구되고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에이브릴 기반의 여러 솔루션들이 점진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br/> <br/>그렇다고 해서 에이브릴이 인간 의사를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발전과 학습을 통해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해주는 조력자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리라 기대됩니다. <br/> <br/>채원우 SK주식회사 C&C

언론사: 세계일보-1-125.txt

제목: 최지우·최민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 확정  
날짜: 20171019  
기자: 홍미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9135336001  
ID: 01100701.2017101913533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br/> <br/> <br/> <br/>배우 최지우(사진 왼쪽), 최민호(오른쪽)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을 확정했다.  <br/> <br/>4부작 드라마 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극본 노희경, 연출 홍종찬)이 이 세상 딸, 아들들의 마음을 대변할 자식세대 라인업을 공개했다. <br/> <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노희경 작가의 대표적인 명작 중 하나다. <br/> <br/>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중년의 부인이 어느 날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br/> <br/>1996년 방송 당시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이 작품은 3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거머쥔 수작 중의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br/> <br/>가족의 의미가 퇴색된 요즘, tvN을 통해 21년 만에 리메이크가 전격 결정되며, 안방극장에 또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r/> <br/>앞서 원미경과 김영옥이 각각 엄마 역할과 시어머니 역할에 캐스팅되며 화제를 모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최지우와 최민호의 출연 확정에 힘입어 완벽한 신구 조합을 완성, 예비 시청자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최지우는 극중 원미경의 딸 '연수' 역을 맡는다. 연수는 맹목적인 엄마의 사랑을 부끄러워했지만, '엄마 같은 아내', '엄마 같은 엄마'를 꿈꾸며 살아가는 딸이다. <br/> <br/>최지우는 자연스러운 일상 연기와 섬세한 감정 연기로 이 세상 많은 딸들의 공감대를 자아낼 예정. 최지우가 만들어내는 딸 연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높인다. <br/> <br/>철부지 아들 '정수' 역으로는 최민호가 캐스팅됐다. 최민호는 철없는 모습으로 엄마의 속을 태우지만, 지금껏 받기만 했던 사랑을 엄마에게 돌려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br/> <br/>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변혁의 사랑' 후속으로 오는 12월 중 4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br/> <br/>뉴스팀  hms@segye.com <br/>사진=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언론사: 세계일보-1-126.txt

제목: '마이웨이' 임동진, 기적 같은 삶? "소뇌 30%만 기능"  
날짜: 20171018  
기자: 한누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8105702001  
ID: 01100701.20171018105702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탤런트 임동진(사진)의 인생 스토리가 공개된다. <br/> <br/>19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임동진은 급성 뇌경색 후유증을 털어놨다. <br/> <br/>임동진은 1964년 연극 ‘생명’으로 데뷔, 장르를 불문하고 굵직한 배역을 맡으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왔다. <br/> <br/>그러던 중 2000년경 갑상선 암 수술 이후 연이어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며,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br/> <br/>집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임동진은 죽음을 직감하고 아내에게 “<span class='quot0'>거실에서 임종을 맞게 해 달라</span>”고 유언을 남기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br/> <br/>쓰러진 지 3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곧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을 만큼 위험했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br/> <br/>하지만 반신불수가 됐고,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갈 만큼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br/> <br/>임동진은 후유증에 대해 “현재 좌측 소뇌의 30%만 정상적이다.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은 듯 한 작열감, 얼음을 얹어 놓은 듯한 감각이상, 어지러움 증세가 있다”고 털어놨다. <br/> <br/>이후 그는 2003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2015년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탤런트로 돌아왔다. <br/> <br/>뉴스팀 han62@segye.com <br/>사진=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언론사: 세계일보-1-127.txt

제목: 나노 기술 적용 침으로 암 치료 가능성 열었다  
날짜: 20171017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7210738001  
ID: 01100701.2017101721073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전공 인수일(사진) 교수 연구팀이 나노기술을 적용한 침을 이용해 대장암과 같은 암 치료의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 <br/> <br/>17일 DGIST에 따르면 인 교수 연구팀은 DGIST 동반진단의료기술융합연구실 김은주 박사 연구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한의학에서 널리 활용하는 치료법인 시침(施鍼)만으로도 항암효과와 관련된 분자생물학적 지표가 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비교적 간단한 전기화학적 나노기술을 적용해 침 표면에 나노미터(㎚=10억 분의 1m)에서 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에 이르는 미세한 구멍을 만든 나노다공성 침을 개발했다. 이 침은 표면적을 수십배 증가시켜 침 자극에 의한 전기생리적 신호 발생 기능을 배가시켰다. <br/> <br/>연구팀은 대장암 유도 물질인 아족시메탄을 쥐에 투여한 뒤 주기적으로 시침했으며, AOM 투여 후의 시간을 기점으로 대장암 개시 단계(6~9주)와 진행 단계(45~48주)로 나눠 대장암의 변화를 관찰했다. <br/> <br/>나노다공성 침으로 주기적인 시침을 받은 쥐는 개시단계에서 대장암 발생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맥관군집 형성이 대조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노다공성 침으로 장기간 시침을 받은 진행단계 쥐들은 대장암의 진행을 나타내는 지표인 베타카테닌(β-Catenin)의 발현량이 감소했다. <br/> <br/>인 교수는 “<span class='quot0'>나노기술과 한의학 기술을 접목한 이번 연구는 침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침이 가진 잠재적 효능을 규명하는 후속 융합 연구를 수행해 새 의료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전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28.txt

제목: 복지위 국감…살충제 달걀, 생리대 논란 관련 식약처 질타  
날짜: 20171017  
기자: engine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7170706001  
ID: 01100701.20171017170706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span class='quot0'>생리량 감소, 자궁질환 등 여성질환과 시중 생리대의 연관성에 대한 불안이 큰 데 이 조사는 언제하나?</span>”(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span class='quot0'>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문제가 돼서 10종에 대한 위해 평가를 먼저 했다.</span>”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br/> <br/>“<span class='quot0'>(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측의 생리대 유해성분 검출실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해놓고 왜 대리 공개를 하나?</span>”(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span class='quot0'>제품 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생리대 업체에서도 내용 공개에 동의했다.</span>” (류 처장) <br/> <br/>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한 식약처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의 미흡한 안전예방조치가 드러난 가운데 오락가락한 행보까지 보이며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것이다. <br/> <br/>일부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나왔고 생리대 안전 관련 조사가 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 먹어도 안전하다’, ‘시중 생리대를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써도 안전하다’고 발표하며 안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br/> <br/>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준치 이상으로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도 나왔는데 왜 안전하다고 발표하나? 안전하다고 할 게 아니라 덜 위험하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식품 당국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br/> <br/>식약처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생리대 위해평가는 위해도가 높은 10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평가였다. 시중 생리대로 인해 암이 유발되거나 인체 장기가 상할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생리량 감소 등 여성질환과 관련된 결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평생 써도 무방하다”며 안전과 관련해 호언장담을 했다. 생리대와 여성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는 식약처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이제 막 착수한 상태다. <br/> <br/>식약처의 생리대 위해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span class='quot1'>식약처는 경피(피부에 닿았을 때)가 아니라 실험동물에 나타난 경구(먹었을 때) 독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생리를 하는, 인체와 유사한 생물구조를 지닌 동물을 대상으로 경피실험을 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일련의 사태 대응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식약처는 매번 ‘위험하지는 않지만 수거는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험하지 않다’는 발표에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식약처 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br/> <br/>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의 업무는 국민의 하루하루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며 “식약처가 (생리대 논란 당시) 관련 단체와 접촉해 간담회를 열고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서비스 직제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조언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29.txt

제목: [박병진의 밀리터리S] '댓글부대 축소·은폐' 軍수사당국은 책임 없나  
날짜: 20171015  
기자: 박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5160811001  
ID: 01100701.20171015160811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번 주중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서다. 드러난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br/> <br/>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br/> <br/>댓글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13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무렵 그는 국방부 장관에 부임해 군 내부의 견제와 그 위기국면을 이겨내고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진 시기였다. <br/> <br/>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이버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3년 10월.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이어진 조사 끝에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관리책임 소홀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는 댓글 사건이 김관진 장관, 국가정보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내용도 언급됐다. <br/> <br/>연제욱과 옥도경을 희생양 삼아 김관진과의 연결고리를 자른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br/> <br/>하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만큼 김 장관의 위상은 서슬이 퍼랬었다. 조사본부가 조사에 나선 2013년 10월에 터진 당시 장경욱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사건은 단적인 예다. <br/> <br/>장 전 사령관은 부임 직후 “<span class='quot0'>‘장포대’(장군을 포기한 대령)의 잦은 발탁이 군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좀 먹는다</span>”고 고언을 했다가 김 장관의 눈밖에 났다. 장 전 사령관은 이후에도 김 장관의 인사 전횡이 계속되자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가 오히려 부임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직에서 쫓겨났다. <br/> <br/>군 관계자는 15일 “당시는 김관진 세상이었다. 누구라도 김 전 장관을 거슬린다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했다”면서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통해 현재 민간 검찰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관진과의 연관성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br/> <br/>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등 2013년 사이버사 수사를 진행했던 조사본부와 군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김 전 장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덮은 과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국방부 장관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br/> <br/>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적폐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2'>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다 개편할 것</span>”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조사본부와 군 검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축소·은폐한 조사본부와 군 검찰이 더 큰 적폐인데도 말이다. <br/> <br/>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0.txt

제목: [단독] JDC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중증병원 대신 미용성형 병원  
날짜: 20171015  
기자: 나기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5151502001  
ID: 01100701.20171015151502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이 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계획된 내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br/> <br/>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실이 공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헬스타운개발은 2008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까지 잔여부지가 전체의 47.8%나 되고, 특히 핵심시설인 의료시설 개발이 착공되지 않았다. <br/> <br/>또 헬스케어타운 부지 중 절반 이상은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시설은 24.7%에 불과한데도 현재 ‘녹지국제병원’ 부지를 제외하고는 진척이 없다. <br/> <br/>녹지국제병원도 당초 계획된 중증전문병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br/> <br/>JDC는 원래 이 부지에 암, 뇌, 심장 등 중증질환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현재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에는 없다. 그런데 JDC는 이후 계획을 바꿔 노인진료 등 만성질환 중심의 장기케어 서비스센터를 오픈하려다 현재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심의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병원(녹지국제병원)을 세우고 있다. <br/> <br/>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고 있는 부지 역시 당초에 의료 R&D(연구개발)용으로 계획된 땅이라서 추후 변경되어 개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나머지 의료시설 부지도 56.9%가 분양을 하고 나면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자문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의료시설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수요 기반이며, 의료수요 확보의 현실성을 위해 서귀포시 등 지역의 의료수요를 주요 고객군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의료시설 개발 컨셉을 고가의 영리 국제병원에서 비영리 중증전문병원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사업을 진행 중인 녹지그룹이 1992년 창립한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주로 상업 부동산 개발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기업이며 의료시설 개발 사업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다. JDC는 제주헬스케어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평균 1.5년마다 교체되어 전문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br/> <br/>보고서는 “2~3단계 및 미분양 부지개발이 헬스케어타운의 취지에 맞고, 적시 시행되기 위해서는 타운의 근간이 되는 중증전문병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 개원전략과 자금 조달방안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JDC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전현희 의원은 “<span class='quot0'>당초 계획과 다른 형태의 국제병원 추진, 중증전문병원의 운영사업자 유치난항 등 사업추진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목적에 맞도록 구성되기 위해 JDC의 전략방향을 수정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전 의원은 특히 “<span class='quot0'>JDC는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준높은 병원을 유치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이라는 취지에 맞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나기천 기자 n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1.txt

제목: [이슈탐색] "축구·야구도 스크린으로?" 진화한 스포츠 트렌드의 명과 암  
날짜: 20171014  
기자: 안승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4150245001  
ID: 01100701.20171014150245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종합 스포츠 게임센터에서 실내 야구를 즐기고 있는 윤모군. <br/>“제구력이 부족하다. 공에 좀 더 신경을 써봐” <br/> <br/>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종합 스포츠 게임센터를 찾은 윤승용(44)씨는 두 아들의 피칭(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공을 던지는 일) 동작을 바로잡았다. 리틀 야구단 활동을 한다는 아들 윤모(9)군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100km에 가까운 구속을 뽐내고 있었다. 윤군은 “실제 야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다”며 스크린 야구를 신기해했다. 윤씨는 “<span class='quot0'>야구를 좋아하지만 실제 야구장에서 즐기기에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 스크린 야구장을 종종 찾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span>"고 흡족해했다. <br/> <br/>운동장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스포츠가 최근 실내 스크린 속에 담기고 있다. 몇 년 전 스크린 골프나 야구 등이 유행했던 모습에서 나아가 요즘에는 축구, 양궁, 사격, 경마, 테니스, 컬링, 볼링 등 상당수의 스포츠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왔다. 바쁜 일상 속 여럿이 모이기 힘든 현대인들은 2~3명 소수 단위로 모여 종합 스포츠 게임센터를 찾아 운동을 즐기고 있다. <br/> <br/> 서울 강남의 한 스크린 축구 시설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는 대학생. <br/>대학생 홍은기(22)씨는 시험기간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종합 스포츠 게임센터를 찾았다. 스크린 축구기계에 ‘페널티킥 모드’를 주문하자 화면에 축구경기에 대한 설명이 나타났다. 축구공을 지정된 표시에 가져다 놓자 공을 차라는 카운트가 등장했다. 홍씨가 화면 속 골키퍼를 피해 있는 힘껏 공을 차자 이내 슛의 성공여부가 표시됐다. 이후 축구공의 속도, 성공률, 스코어, 랭킹(순위) 등 홍씨 데이터가 화면에 집계돼 실력을 가늠해볼 수도 있었다. <br/> <br/>홍씨는 “<span class='quot1'>(게임에 사용되는 공이) 실제 축구공보다 가벼워 비교적 잘 차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축구는 22명이 모여야 하고 실력이 안 되면 주변에 폐를 끼치게 돼 미안한데, 스크린 축구는 이런 부담이 없어 좋다</span>”고 전했다. 이어 “다음번에는 여자친구랑 같이 와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홍씨 옆에서는 한 남자가 여자에게 운동 동작을 알려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br/> <br/>미세먼지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친구들끼리 즉흥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크린 스포츠는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br/> <br/>강남에 위치한 한 종합 스포츠 게임센터의 점원은 “주변에 회사가 많은데 퇴근 후 20~30대가 이곳을 즐겨 찾는다”면서 “워크숍인 것처럼 보였는데 직원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 스포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비까지 모두 대여 가능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br/> 종합 스포츠 게임센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실내스포츠.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경마, 축구, 컬링, 사격. <br/>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에만 8곳 이상의 실내 스크린 스포츠 시설을 찾을 수 있었다. 일부 스포츠 게임센터는 월 정액제로 회원을 모집했고, 이미 대형 프렌차이즈로 전국 여러 곳에 지점을 둔 업체도 있다. <br/> <br/>일각에서는 이같은 실내 스크린 운동의 증가가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순 있을지 모르나 제대로 된 운동이라기보다 단순한 놀이·오락에 가깝다는 것이다. <br/> <br/>정희준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스크린 체육은 일종의 변종 스포츠</span>”라며 단순한 동작으로 단발성으로 즐기는 실내스포츠의 한계를 지적했다. <br/> <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2'>스포츠는 ‘놀이-플레이-스포츠’ 진화했다</span>”며 “<span class='quot2'>단발성으로 즐기는 것이 놀이라면, 여기에 제대로 된 모양새와 룰을 갖추면 플레이가 되고, 이게 조직화하면 스포츠가 된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스크린 체육은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체력을 기르는 스포츠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br/> <br/>글·사진=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2.txt

제목: 운동·보온·습도…3가지만 지켜도 알레르기 비염 예방  
날짜: 2017101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4101246001  
ID: 01100701.2017101410124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왔다. 비염 환자들은 갑작스런 날씨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다. 가을철의 큰 기온 변화는 외부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코 기능을 방해하여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수면장애나 일상생활 장애를 동반한 비염은 중증 비염으로 분류한다. 중증 비염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수면장애와 집중력저하로 건강한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br/> <br/>한방에서는 비염 치료를 위해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가 있는 소청룡탕, 보중익기탕, 신이산과 같은 한약을 처방해 증상 완화와 염증 조절을 돕고있다. <br/> <br/>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김민희 교수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형개, 연교, 당풍, 시호, 백지 등의 약재로 구성된 형개연교탕이 증상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복약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알레르기 비염은 가을부터 증상이 심해져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한약은 지속효과가 길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도 가루약이나 캡슐약 형태로 간편해져 비염이 심한 학생이나 성인에게도 치료가 용이하다</span>”라고 말했다. <br/> <br/>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의 염증으로 콧물, 코막힘, 재치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월별 알레르기 비염과 부비동염 환자 수는 여름(6~8월)보다 가을(9~11월)에 약 67% 이상 급증해(368만329명 → 617만246명) 겨울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br/> <br/>알레르기 비염은 대부분 만성화되어 수년간 증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환절기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는 사람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기간이 길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비염 치료에 많이 처방되는 형개연교탕이나 소청룡탕에 산조인, 복신, 원지 등과 같은 한약재를 추가하고 침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침 치료는 자율신경과 면역계를 조절해줘 알레르기 비염 개선에 효과적이며 특히 증상이 심하고 반복되는 환자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증강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온도와 습도에 신경쓰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br/> ■ 알레르기 비염의 생활 속 예방법 <br/> <br/>1. 운동 <br/> <br/>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내부의 열원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비염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운동을 통해 호흡기도 튼튼해지고 공부할 체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운동을 챙겨야 한다. <br/> <br/>2. 보온 <br/> <br/>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호흡기 질환 관리의 기본이다. 날씨가 추울 때는 목을 보호하는 스카프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다. 매일 배에 뜸을 뜨거나 찜팩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따뜻한 온도의 반신욕도 도움이 된다. <br/> <br/>3. 가습 <br/> <br/>가을부터는 날이 건조해지므로 차지 않은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가습기는 세척이 쉬운 제품으로 구입하여 매일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br/> <br/>■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차 <br/> <br/>- 허한(虛寒)한 타입 <br/> <br/>생강차 <br/> <br/>생강차는 주로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따뜻한 성질의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돕는다. 생강의 살균 작용과 면역력을 증강 시켜주는 효능은 비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목련차 <br/> <br/>목련을 차로 마신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목련 봉오리를 말려 차로 만든 ‘신이화차’는 폐와 기관지, 호흡기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비염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 <br/> <br/>- 실열(實熱)한 타입 <br/> <br/>녹차 <br/> <br/>녹차는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몸에도 굉장히 좋다. 체내 중금속 해독에 도움을 주고 외부 알레르기에 대한 저항도를 높여준다. 특히 면역력을 높여 비염 치료에 효과가 높으며,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신체 노화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br/> <br/>유근피차 <br/> <br/>유근피란 느릅나무의 껍질로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을 하는데, 특히 코의 분비물 억제에 효과가 있어 비염 및 축농증에 효과가 좋다.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3.txt

제목: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몸 건강 돕는 삶의 묘약이야!  
날짜: 20171014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4030528001  
ID: 01100701.2017101403052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르스 빌만 지음/장혜경 옮김/심심/1만6000원스트레스는 어떻게 삶을 이롭게 하는가/우르스 빌만 지음/장혜경 옮김/심심/1만6000원 <br/> <br/>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기억을 매섭게 하는 것이다. 이때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기억에 잘 새겨진다. <br/> <br/>신간 ‘스트레스는 어떻게 삶을 이롭게 하는가’는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우르스 빌만은 ‘스트레스가 삶의 묘약’이라고 피력한다. <br/> <br/>저자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인체가 겪는 현상, 즉 스트레스 반응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한다. 스트레스를 겪으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스트레스 반응은 짧은 순간 인체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이 메커니즘은 운동선수에게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반사 행동 속도를 높여준다. 부상하거나 수술을 받을 때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스트레스 반응의 일종이다. <br/> <br/>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 정신병리학 실험실의 피르다우스 다바르 교수는 쥐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키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정기검진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은 집단의 혈액에서 ‘경고 물질’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쥐들의 혈액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인터류킨’,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막아내는 ‘인터페론’, 신체 내에서 적군과 싸우는 ‘케모카인’이 다량 존재했다. 다바르는 “스트레스를 받은 집단에서는 암으로 변질된 세포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br/> <br/>그러나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단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형성됐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현상을 처음 발견한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인 경보기와 2단계 저항기에 이어 3단계 소진기로 진행된다. 이때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유기체는 병이 든다. 저항반응이 평생 이어져 3단계 소진기로 접어들면 스트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br/> <br/>저자는 “스트레스는 병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못 사용했을 때뿐이며 결코 그 자체가 질병의 원인은 아니다”면서 “스트레스를 밋밋한 일상의 양념으로 생각할 이유는 많다. 장담하건대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멋진 선물”이라고 말한다. <br/> <br/>권구성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34.txt

제목: [기자가만난세상] “아들 만나러 갑니다”  
날짜: 20171013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3212239001  
ID: 01100701.2017101321223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아들 만나러 벽제 ○○추모공원 가요.” “아들이 거기에 근무하나요?” “아니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br/> <br/>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정오 무렵. 서울 도심을 출발해 경기 파주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구파발을 지나 막 벽제에 접어들고 있었다. <br/> <br/>성묘객들로 꽉 찬 버스 안에서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가진 것이라곤 오랫동안 손에 꼭 쥐어 꼬깃꼬깃해진 종잇조각 하나가 전부였다. 어느 정거장에 내려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할머니를 보며 다들 안쓰러워했다. <br/> <br/>사정을 들어보니 이랬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39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간 할머니는 매년 기일에 맞춰 둘째 아들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벽제 어느 추모공원에 있는 큰아들 묘소에 갔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워낙 길다보니 기일과 무관하게 큰아들 무덤이 꼭 찾고 싶었단다. 그런데 평소 군말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던 둘째가 이번에는 “연휴라 차도 엄청 막힐 텐데 나중에 가자”고 만류했다는 것이다. <br/> <br/>할머니는 기어이 둘째네 자가용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성묘를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br/> <br/>추모공원 이름이 적힌 쪽지를 들고 벽제행 버스에 오른 것까진 괜찮았다. 그런데 이제껏 한번도 대중교통으로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어디서 내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급하게 집을 나서느라 휴대전화를 빠뜨려 둘째와 통화할 길도 막혔다. <br/> <br/>사연을 접한 주변 승객들은 딱히 도움을 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종이에 적힌 상호로는 스마트폰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다. “<span class='quot0'>추모공원 근처에 뭐가 있느냐</span>”는 질문에 할머니는 “<span class='quot0'>(비석용) 돌을 깎는 작업장에서 가깝고 바로 옆에 절도 있었는데…</span>”라고 말끝을 흐렸다. 벽제 지리를 제법 안다는 승객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br/> <br/>결국 할머니는 벽제 승화원 앞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span class='quot0'>오래 다녔으니까 조금만 걸으면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span>”이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입안에 몇 개 남지 않은 치아가 더욱 서글퍼 보였다. 승객 모두 한마음이 돼 ‘먼 길’ 떠나는 할머니를 응원했다. 부디 헤매지 말고 얼른 큰아들과 만나길. <br/> <br/> 김태훈 사회부 기자옛말에 ‘부모는 산에,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br/> <br/>부모를 잃은 자식의 심정이 아무리 비통해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만큼은 아닐 것이다. <br/> <br/>문득 배우 김해숙과 박진희가 열연한 영화 ‘친정엄마’가 떠오른다. 30대 한창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등진 딸을 그리워하는 어느 엄마의 얘기다. <br/> <br/>영화 말미에 막 장례를 치른 엄마의 독백이 관객의 눈가를 적신다. ‘그거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것은 너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제일로 후회하는 것은 그것도 너를 낳은 것이다. 사랑한다, 내 새끼.’ <br/> <br/>열흘가량 이어진 올 추석 연휴가 누군가에겐 즐거운 시간이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북받치는 서러움과 외로움에 목놓아 울고 싶은 나날이었을 수도 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명절마다 슬픔을 곱씹어야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또 하나의 어두운 그늘을 본다. <br/> <br/>김태훈 사회부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35.txt

제목: ‘케뱅’ 특혜 인가 의혹·금감원 채용비리 집중포화 예고  
날짜: 20171013  
기자: 염유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3204607001  
ID: 01100701.20171013204607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필두로 내주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본격화한다. 금융권 국감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등이 주요 쟁점이다. <br/> <br/>16일 개최되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br/> <br/>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뱅, 카뱅을 지배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지분 재조정’ 계약을 주요 주주들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카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분 재조정 계약의 경우,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주주들 간 지분 조정을 명료하게 한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16일 국감에 나가 직접 해명한다. <br/>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암 치료약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험료 산정과 지급 문제에 대해 주로 질의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박광일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노조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자 정치권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제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관치금융’ 행태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br/> <br/>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금감원의 채용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기관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고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지방인재 전형으로 둔갑해 채용하는 등 5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span class='quot2'>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을 금융위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pan>”며 “<span class='quot2'>국회가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23일에는 한국은행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24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산업은행), 조선업 구조조정(수출입은행) 등이 쟁점이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 거래 위반을 문제 삼으며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br/> <br/>한편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금융권 산별교섭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을 이유로 16일 불참키로 확정했다. 이들은 30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함 행장을 상대로 과거 최순실씨의 독일 금융 거래를 지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승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 회장은 시중은행장들로부터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에 대한 결정을 위임받은 상태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산별교섭 복원 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r/> <br/>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6.txt

제목: [일상톡톡 플러스] "저녁이 있어야 아침도 있다…그걸 누가 모를까?"  
날짜: 201710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2182420001  
ID: 01100701.20171012182420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A씨는 "'헬조선'에서는 다들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서로 혐오하며 푸는 것 같다"며 "이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 <br/> <br/>B씨는 "우리나라 구조상 어느 직업이든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주장했다. <br/> <br/>C씨는 "여전히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 시대와 새마을운동기 장시간의 후진적인 노동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남을 짓눌러야 자신이 더 우월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꼰대'들이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br/> <br/>D씨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라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친하건 친하지 않건 매너를 지킨다. 하지만 우린 조금만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막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br/> <br/>E씨는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오전 7~9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4~6시면 다 끝난다. 야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며 "일과 생활의 분리야말로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활동영역은 직장, 생활, 학교, 가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송선미 부연구위원이 낸 '스트레스 관리: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만500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 주기로 시행하는 통계청의 스트레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br/> <br/>스트레스 정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동안 각 생활 영역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br/> <br/>조사연도를 통틀어 '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의 합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직장이었다. <br/> <br/>◆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 직장 > 학교 > 가정 順 <br/> <br/>2008년 77.8%, 지난해 73.4% 등으로 직장인의 75% 정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직장 스트레스는 중년층과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더 심했다. <br/> <br/>지난해 조사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73.6% △30대 80.9% △40대 78.7% △50대 72.4% △60세 이상 55.0%로 직장에서 성과 압박을 많이 받는 30∼49세가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월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각각 56.8%, 69.9% 정도였지만 200만∼400만원은 76.2%로 더 높았다. <br/> <br/> 사무직 종사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소득도 더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br/> <br/>결혼상태에 따른 직장인 스트레스 보고율은 미혼이 75.3%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이혼(73.9%) △기혼(73.5%) △사별(56.8%) 순이었다. <br/> <br/>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4.8%였다. 생활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높은 특징을 보였다. <br/> <br/>◆우리사회에 만성화한 스트레스 줄이려면? <br/> <br/>이혼상태인 응답자는 66.6%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혼(57.0%) △미혼(51.2%) △사별(44.6%) 순으로 비율이 감소했다. <br/> <br/>가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한 응답자는 전체의 42.7%였다. 가정 스트레스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br/> <br/>이혼한 이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54.8%로, 기혼자(46.8%)나 미혼자(33.3%)보다 많았다. <br/> <br/>가정 스트레스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도 관련이 있어 여성의 스트레스 보고 비율은 49.4%로, 남성 35.7%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br/> <br/>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2.9%였으나, 성별과 재학중인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59.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지만 남학생은 그보다 적은 47.3%였다. <br/> <br/> 학교별로는 대학생 이상(58.4%)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응답 비율을 보였다. 고등학생(54.4%), 초·중학생(41.7%) 등 학령이 낮아질수록 학교 스트레스도 덜했다. <br/> <br/>이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입시나 취업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br/> <br/>보고서는 "우리사회에 만성화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장애, 당뇨, 암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 문화와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7.txt

제목: 폭포처럼 쏟아지는 가을 낭만  
날짜: 20171011  
기자: 박연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1233359002  
ID: 01100701.20171011233359002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서울 중랑구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017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br/> <br/>중랑구는 오는 20∼21일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자리한 용마폭포공원에서 주민공감형 축제인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br/> <br/> 지난해 열린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모습. <br/>중랑구 제공용마폭포공원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시원한 폭포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으며 폐버스를 활용한 ‘책깨비 도서관’, 공중전화부스를 리모델링한 이색적인 ‘꿈꾸는 작은 책방’이 자리 잡고 있다. <br/> <br/>행사 첫날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최정원, 앙상블 더 뮤즈의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펼친다. 둘째 날에는 가을밤을 낭만으로 수놓을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을 마련한다. 인기 가수 정동하와 박기영이 출연해 가을 서정과 어울리는 가요를 선사한다. <br/> <br/>구는 용마폭포공원에서 매년 개최한 가을음악회를 지난해부터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종합문화예술 축제 열고 있다. <br/> <br/>올해 축제는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민다. 중랑문인협회, 중랑미술협회, 중랑서예협회, 중랑사진가회의 작품을 전시하며 중랑구립여성합창단, 중랑유스오케스트라, 면목주니어합창단 등이 공연을 펼친다. <br/> <br/>또 둘째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용마폭포공원 광장에서 중랑 청소년·구민 백일장을 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깨비 광장에서는 북페스티벌을 벌인다. <br/> <br/>이와 함께 중랑패션봉제조합과 사회적기업, 우수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전시·판매, 면목4동 바리스타마을의 바리스타 체험 등 폭포카페를 운영한다. <br/> <br/>나진구 중랑구청장은 “<span class='quot0'>봄을 대표하는 ‘서울장미축제’, 가을을 대표하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대한민국의 명품 축제로 발전시키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8.txt

제목: 한국인 1만명 게놈 분석 프로젝트 닻 올려  
날짜: 20171011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1195340001  
ID: 01100701.2017101119534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한국인 게놈 빅데이터를 만드는 국내 최대 ‘게놈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 <br/> <br/>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병원은 오는 25일까지 게놈 프로젝트 1차년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br/> <br/>‘게놈 프로젝트’는 한국의 게놈 표준정보를 분석·가공해 게놈 빅데이터와 2·3차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들이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DNA와 함께 유전정보의 전달에 관여하는 RNA, 단백질, 대사물질 등의 정보까지 분석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인에게 꼭 맞는 암, 심장병 등의 질병 치료방법을 만들 수 있다. <br/> <br/>모집인원은 280명이다. 올해 계획된 1000명 중 720명은 대학병원의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분양받아 게놈을 해독·분석 중이다. 내년엔 2000명, 2019년엔 7000명의 정보를 분석, 모두 1만명분의 임상정보와 건강정보, 유전정보 등을 확보한다. <br/> <br/>참가자에게는 ‘게놈 분석 연구리포트’가 제공된다. 본인의 유전자형을 확인하고, 기존에 알려진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39.txt

제목: 푸껫· 파타야서 담배 피우면 '징역1년 또는 벌금 340만원', 초강력 금연책  
날짜: 2017101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1112832001  
ID: 01100701.20171011112832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태국이 자랑하는 푸켓 해변 백사장 모습. 태국 관광당국은 백사장에 쌓이는 담배꽁초에 골머리를 앓다가 초강력 금연책을 내 놓았다. <br/>태국이 초강력 금연책을 내 놓았다. 오는 11월부터 유명 해양 휴양지인 푸껫과 파타야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만바트(약 3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r/> <br/>11일 태국 현지 언론은 "<span class='quot0'>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다음 달부터 전국 20개 인기 해변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span>"고 전했다. <br/> <br/>금연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푸껫의 빠통, 푸껫 인근 카이녹, 카이나이섬, 파타야, 사무이 섬의 보 풋, 후아힌의 까오 따끼압, 남동부 라용주(州)의 매 핌, 짠타부리주의 램 싱, 촌부리주의 방 샌과 좀티엔, 펫차부리주 차-암, 타오 섬의 하드 사이 리 등이다. <br/> <br/>태국은 이들 20곳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했다. 그 외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양공원법을 적용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40만원)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br/> <br/>태국이 초강력 금연책을 내놓은 것은 이들 해변 모래밭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이다. <br/> <br/>안다만 해안자원개발센터가 최근 푸껫의 빠통 해변 일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1㎡당 0.76개의 버려진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빠통 해변 길이가 2.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해변에 10만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버려졌다는 뜻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0.txt

제목: 교통대 이용규 교수팀, 먹는 간암·당뇨2형 유전자 치료제 생산 기술 개발  
날짜: 20171011  
기자: 이정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1030801003  
ID: 01100701.20171011030801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먹는 간암·당뇨2형 유전자 치료제 생산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br/> <br/>한국교통대는 10일 이용규 교수팀(화공생물공학과)이 유전자 간암·당뇨2형 경구형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유전자 치료제는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고치거나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물질 자체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이다. 약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난치성 질병의 치료 가능성이 큰 신약으로 불린다. <br/> <br/>하지만 이 치료제를 입으로 투여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소화액으로 인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사로만 투약해왔다. <br/> <br/>이 교수팀은 “<span class='quot0'>천연 고분자와 담즙산을 이용, 코팅된 유전자가 소화액에 파괴되지 않고 표적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동물실험을 통해 기존 항암제보다 효율적으로 간암과 당뇨2형을 치료하는 능력을 검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ACS 나노’와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스’ 최신호에 각각 실렸으며 국제특허(PCT)에도 등록됐다. 이 교수팀은 새로 개발한 치료 기술의 사업화에 집중하는 한편 제약회사와 협업해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br/> <br/>충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1.txt

제목: 8년후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비만'  
날짜: 20171010  
기자: 정재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0210333002  
ID: 01100701.20171010210333002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2025년 전 세계 비만·과체중 성인 인구가 27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만 관련 질병 치료비 등 처리비용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영국 등 각국 의료보험 서비스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세계비만연맹(WOD)은 세계비만의날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 전 세계 국가의 비만 관련 질병 처리비용이 1조2000억달러(약 1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br/> <br/>비만은 암이나 심장마비,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비만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국가는 미국이다. 2014년 비만 관련 질병 처리비용이 3250억달러였는데 2025년 5550억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190억달러에서 31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사이먼 스티븐스 국장은 “<span class='quot0'>비만 관련 질병 탓에 NHS가 파산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br/> <br/>주요 국가들이 향후 8년 동안 비만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도 상당하다. 미국 4조4000억달러, 독일 3900억달러, 브라질 2510억달러, 영국 2370억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WOD는 성인 비만 인구가 매년 급증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33%가량인 27억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r/> <br/>2014년 34%였던 미국 성인의 비만·과체중 비율은 2025년 41%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도 같은 기간 비만·과체중 비율이 27%에서 34%로 오르고, 이집트는 31%에서 37%, 호주와 멕시코는 28%에서 3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WOD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비만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각국 의료보험 체계 등에 재앙이 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2.txt

제목: '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 이대학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받아  
날짜: 201710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10140057002  
ID: 01100701.20171010140057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10일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고법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r/>'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br/> <br/>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 대해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r/> <br/>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학장은 "<span class='quot0'>하늘에 맹세코 정유라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상식적으로 어떤 학장이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비교육적인 부탁을 교수들에게 할 수 있겠나</span>"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r/> <br/>이어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br/> <br/>변호인은 "<span class='quot1'>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span>"고 재판부의 선처를 청했다. <br/> <br/>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3.txt

제목: ‘거대세포종’ 폐 전이 여부… 수술 후 4년까지 검사해야  
날짜: 20171008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08193900001  
ID: 01100701.201710081939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뼈에 생기는 거대세포종은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중 하나다. 관절 주변의 뼈에 주로 생기는 경계성 종양(양성과 악성종양의 중간 정도)이다. 현미경으로 종양을 관찰했을 때 수십개의 세포가 특징적으로 뭉쳐있는 형태를 보인다. 연간 100만명 당 1.2명꼴로 나타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국내 발병자는 연간 100∼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20∼45세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한다. <br/> <br/>거대세포종은 초기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파괴돼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 환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상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는다. <br/> <br/>주된 치료법은 수술이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후 신체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제거된 부위를 골시멘트로 채워준다. 골시멘트 재건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골·연골이식 등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br/> <br/> 관절 주변 뼈에 발생한 거대세포종거대세포종은 악성종양(암)은 아니지만 약 9%의 환자에서 폐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거대세포종의 폐 전이를 확인하는 검사기준을 처음으로 세웠다. 병원에 따르면 한일규 정형외과 교수팀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받은 거대세포종 환자 333명을 대상으로 폐 전이 경과를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7%의 환자에서 폐 전이가 발생했다. 전이는 대부분(76%) 수술 후 4년 이내에 나타났다. <br/> <br/>특히 수술 부위에 거대세포종이 재발하면 폐 전이 빈도가 6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때 재발 후 3년간 전이가 집중됐다. 즉, 거대세포종 환자는 수술 후 4년까지, 재발한 경우엔 재수술 후 3년까지 폐 전이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br/> <br/>한일규 교수는 “<span class='quot0'>거대세포종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폐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운데, 이번 기준이 치료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종양 외과학’(Journal of Surgical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44.txt

제목: [건보상식 Q&A] Q:호스피스·완화의료란  
날짜: 20171008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08190443002  
ID: 01100701.2017100819044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Q. 10월 둘째주 토요일이 호스피스의 날이라고 하던데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무엇인가요? <br/> <br/>A.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를 말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한다. 호스피스는 ‘암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됐고,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내용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됐다.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 비암 질환 말기환자도 지난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명확해졌고 제공 기관도 요양병원으로 확대됐다.

언론사: 세계일보-1-145.txt

제목: “가족과 함께 선물받자” 보험업계 추석맞이 이벤트 풍성  
날짜: 20171004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04030306001  
ID: 01100701.20171004030306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추석을 맞아 보험사들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거나 가족의 정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br/> <br/>3일 인터넷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연휴 기간 보험가입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영업하고, 멤버십 포인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br/> <br/>온라인 금융커뮤니티 360°플래닛에서 멤버십 포인트인 ‘씨드포인트’ 오픈 100일을 기념해 지인을 초대하면 씨드포인트를 평소의 2배 적립해주는 ‘소문난 소원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적립한 포인트로 첫 회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온·오프라인 교보문고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br/> <br/>360°플래닛 회원을 대상으로 자신이 바라는 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해당 소원에 어울리는 깜짝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하면 레고하우스, 카카오프렌즈 인형 등 경품을 받을 기회도 있다.  <br/> <br/>ABL인터넷보험은 추석을 맞아 부모님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효도도 할 수 있는 ‘#부모님과의이야기 이벤트’를 22일까지 실시한다. <br/> <br/>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부모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담은 사연과 사진을 ABL인터넷보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면 된다. 내부심사를 거쳐 총 10명에게 부모님께 선물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건강검진 상품권을, 2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ABL인터넷보험 가입 고객이 당첨되면 10만원 상당의 가족 외식 상품권도 함께 증정한다. 당첨자는 11월 3일 ABL인터넷보험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된다. <br/> <br/>동부화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마음우체통 추석카드 보내기’ 이벤트를 회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진행한다. <br/> <br/>동부화재 가족사랑 캠페인 사이트의 마음우체통 메뉴에서 메시지 전송 방법과 마음에 드는 추석카드 이미지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작성해 전달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된다. 100만원 상당의 단풍여행 상품권, 디지털 액자, CGV 영화예매권 등 경품이 마련됐다. <br/> <br/>흥국생명은 칭찬과 격려의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인 ‘베리굿’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한다. ‘베리굿’은 최근 흥국생명이 출시한 변액보험 브랜드이기도 하다. <br/> <br/>흥국생명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영상을 감상하고 빈칸을 채운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참여자에게 외식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영상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제작된 우리 주변 보통 가족들의 이야기로, 평소 조용했던 아빠의 고민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아내와 자녀가 알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br/> <br/>하나생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방문한 회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3.3.3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약 3개월간 3번에 걸쳐 총 3333명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다. 먼저 본인의 보험계약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하는 1500명의 기존 계약자에게 바나나우유 쿠폰이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이어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하면 바나나우유 쿠폰을, 암보험료를 알아보면 하나머니를 주는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br/> <br/>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6.txt

제목: "한국인 癌 사망률 OECD 국가 중 최고 낮다" 통계청 발표  
날짜: 20171002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02111755001  
ID: 01100701.20171002111755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br/> <br/> <br/>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부동의 1위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br/> <br/>29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국내 사망자 28만 827명 가운데 원인이 암(악성신생물)이었던 이들은 7만 819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암 때문에 사망한 셈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암 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br/> <br/>OECD 표준인구로 변환한 한국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작년 165.2명이었다. 한국의 암 사망률은 2012년 183.3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3년 178.9명, 2014년 175.0명, 2015년 168.4명에 이어 작년 160명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br/> <br/>국가별로 집계 시점이 다르지만 가장 최신 자료로 보면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비교대상 34개국 중 멕시코(2014년 114.6명) 뿐이었다. <br/> <br/>일본(2014년 176.6명), 프랑스(2013년 196.3명), 캐나다(2012년 207.3명), 이탈리아(2012년 205.4명), 독일(2014년 200.9명), 영국(2013년 221.9명), 미국(2014년 187.8명) 등 주요 7개국(G7) 국가 모두 한국보다 암 사망률이 높았다. <br/> <br/>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무 건강검진이 확대되고 진단이 잘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치사율을 떨어뜨렸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암 정책도 암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pan>”고 분석했다. <br/> <br/>반면 운수사고(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작년 OECD 기준 변환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명을 기록했다. <br/> <br/>한국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2014년 15.7명), 칠레(2014년 12.3명), 미국(2014년 12.0명), 라트비아(2014년 11.9명), 터키(2013년 10.3명) 뿐이었다. 영국(2013년 2.8명), 스웨덴(2015년 3.1명), 일본(2014년 3.7명)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은 안전한 국가였다. <br/> <br/>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크게 감소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시점부터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다</span>”고 평가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7.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한화생명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판매 외  
날짜: 20171002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1002030329001  
ID: 01100701.201710020303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화생명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판매 <br/> <br/>한화생명은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 ‘한화생명 간편가입 생활비받는 종신보험’을 판매한다. 고혈압·당뇨 등 환자나 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다. 젊을 때는 사망중심의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사망보장을 줄이는 대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이면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형태다. 최대 73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br/> <br/>NH농협손보, 다이렉트 전용상품 확대 <br/> <br/>NH농협손해보험은 고객이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전용 보험상품을 확대했다. 다이렉트 전용 보험몰(www.nhfire.co.kr)에서 기존의 암보험,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 2종과 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적하보험 등 일반보험 3종 상품에 실손의료비보험과 레저상해보험을 추가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상품별, 플랜별 보험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험 가입 청약과 보험료 수납까지 할 수 있다.  <br/> <br/>PCA생명, 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출시 <br/> <br/>PCA생명은 안정형 계좌와 투자형 계좌를 분리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무)PCA 글로벌 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자산관리 목적에 따라 안정형 계좌와 투자형 계좌를 선택해 고객별 자산관리 성향에 따른 맞춤형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저연금액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 지급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펀드 투자로 최저연금액 이상의 연금수령을 기대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강화했다. <br/> <br/>백소용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48.txt

제목: 울산대병원 파업 16일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  
날짜: 20170930  
기자: 김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30021327001  
ID: 01100701.20170930021327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울산대학교병원 노사가 파업 16일만에 올해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br/> <br/>노사는 29일 마라톤 교섭을 벌이며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기본급 대비 임금 3.5% 인상, 노조 전임자 1명 추가(현 4명) 등이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추석 연휴 이후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br/> <br/>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견례를 시작해 지금까지 50차례가 넘는 교섭을 벌여왔다. 노조는 기본급 11% 인상과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간호사 충원과 업무 개선, 근무시간 외 환자정보 접근 금지, 생명안전업무직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br/>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자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16일간 이어진 파업은 울산대병원 노사협상 과정에서 처음이다. <br/> <br/>조합원 1300여명 중 수술실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병원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진료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br/> <br/>파업 기간 동안 병원은 전체 984개 병상을 절반 이하로 운영했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한편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못했다. 암을 비롯한 중증 환자의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했다. <br/> <br/>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49.txt

제목: [뉴스분석] "생리대 안전" 결론 났지만 소비자 불안해소엔 찜찜  
날짜: 20170928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8182956001  
ID: 01100701.20170928182956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생리대 유해성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당국이 ‘생리대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로 인해 생식독성이나 암이 유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특정 제품의 생리대 생산 중단 사태까지 몰고온 유해성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8일 발표로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날 결과는 식약처가 조사하기로 한 전체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10종에 대한 평가인 데다 일부 여성이 호소한 생리량 변화나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과 관련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br/> <br/>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br/>이제원기자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최대 검출량을 대입했을 때조차 모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각종 VOCs가 나오긴 했지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VOCs는 공기와 흙, 생활용품 등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 여부보다는 ‘위해 여부’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인체 독성을 나타내는 ‘독성 참고치’를 유해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 노출량’으로 나눠 안전성 여부를 평가했다. 나눗셈 값인 ‘안전역’이 1보다 크면 안전함을 뜻하는데 일회용 생리대는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등이 나왔다. <br/> <br/>식약처는 “<span class='quot0'>유해성분을 섭취·흡입이 아닌 피부에 접촉했을 때의 독성 기준치는 아직 세계적으로 규정된 게 없지만 섭취기준을 토대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정했을 때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 <br/> <br/>전문가들의 독성실험을 통해 ‘무해’ 결과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이번 생리대 파동은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로 번졌다. 당국의 늑장 대응과 일부 시민단체의 불공정한 문제 제기 방식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28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br/>청주=연합뉴스식약처는 각종 화학성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20년 전 기준만을 적용해 그간 생리대 안전성 검사를 해온 데다 유해성 평가 일정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생리대 유해성 이슈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김만구 교수의 실험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실만 놓고 특정 제품에 대한 피해 사례 제보를 받으며 소비자 불안을 키웠다. 이번 결과는 생리대로 인해 생식독성, 암 등 극단적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생리량 변화,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과의 여부가 입증된 건 아니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수집된 부작용 사례를 토대로 향후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기에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1'>당국의 1차 조사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나왔으니 차분하게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0.txt

제목: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심혈관질환 예방법은?  
날짜: 20170928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8154714001  
ID: 01100701.2017092815471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짐에 따라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나 심혈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r/> <br/>‘심혈관질환’ 이란 심장과 온 몸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지방질이 쌓여 이상이 생기는 병을 일컫는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무섭게 뒤쫓고 있는 심혈관질환은 최근 10여 년간 사망률이 약 40% 증가하는 등 명실공히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br/> <br/>심혈관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은 체내 혈관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국내산 축산물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좋다. 신선한 우리 축산식품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와 특장점을 알아보자. <br/> <br/> <br/>◆심혈관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한우 <br/> <br/>많은 사람들이 육류의 지방이 비만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창본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팀은 지난 2012년 연구를 통해 한우를 섭취하면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의 함량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실험결과, 한우를 먹은 쥐가 미국·호주산 쇠고기를 먹은 쥐보다 혈액 속 중성지방 함량이 적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br/> <br/>또한 한우에 함유된 올레인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인체에 해로운 저밀도 지질단백질(LDL)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작용도 한다. 한우의 지방산 중 올레인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48%로 높다. <br/> <br/>올레인산 외에도 한우의 주요 포화지방산인 스테아르산은 본래 포화지방산이 비만과 각종 혈관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질단백질(HDL)의 수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밝혀진 바 있다. <br/> <br/> <br/>◆심장에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 <br/> <br/>돼지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라드’라는 돼지지방이 웰빙 기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돼지고기를 즐기는 중국의 고혈압 환자 수가 적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br/> <br/>올해 초 미국심장협회(AHA)는 돼지고기 등심을 심장에 좋은 식품 목록(Heart-Healthy Food)에 추가했다. 현재 미국에선 돼지고기 등심에 ‘하트체크(Heart-Cheak)’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돼지고기 안심이 심장에 좋은 식품으로 인증 받기도 했다. <br/> <br/>긴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이처럼 심장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를 맛보는 건 어떨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고기 본연의 맛도 포기할 수 없다면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추천한다. 한돈은 산지부터 식탁까지 오르는 기간이 3~7일로, 유통·검역절차 등의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수입산에 비해 신선하고 영양소 파괴가 적다. 또 한돈은 생산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br/> <br/> <br/>◆한 잔의 우유, 꾸준한 예방습관 <br/> <br/>심혈관질환 예방에 하루 한 잔의 우유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br/> <br/>스페인 발렌시아대학 예방의학과 Dolores Corella 교수는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Nature Scientific Report)’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포도당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 어떤 연관성도 없음을 증명했다. <br/> <br/>지난 해 영국 영양학회지가 발표한 ‘31개의 예상 집단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도 우유와 유제품의 섭취가 뇌졸중 위험을 9%로 낮추고, 그 중에서도 칼슘은 위험도를 31%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더불어 미국심장협회(AHA)는 우유와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압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에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챙겨먹을 것을 권장하는 등 우유가 심혈관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자료=축산자조금연합 제공 chas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1.txt

제목: 장시원 울진군의회 부의장, 전국 친환경 최우수의원 선정  
날짜: 20170928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8000318001  
ID: 01100701.20170928000318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경북 울진군의회 장시원 부의장이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br/> <br/>(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250개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해 광역 23명, 기초의원 29명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br/> <br/>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와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br/> <br/>또 기존 협의의 개념인 물, 공기, 쓰레기 문제를 포함해 기후변화, 지속가능, 에너지,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해 평가했다. <br/> <br/>장 부의장은 울진 한울원전 안전가동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환자 공동소송을 제안해 현재 갑상선 암 환자와 가족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만과 일본에서 열리는 탈핵과 관련된 행사에 자부담으로 적극 참여한바 있다. <br/> <br/>이와함께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태양광전기와 태양열온수기,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조례 등 울진군이 친환경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번에 선정된 의원들의 공적내용은 ‘2017 열정 에코시티’라는 리스트 북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7일 개최됐다. <br/> <br/>울진=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2.txt

제목: [연구] 등푸른생선 먹으면 우울증 걸릴 위험 낮아진다  
날짜: 2017092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7140103001  
ID: 01100701.20170927140103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등푸른생선 등 해산물 섭취를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했다. <br/> 등푸른생선은 청어·정어리·고등어·전갱이·꽁치 등이 대표적이다.27일 시사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암연구센터 연구팀은 나가노현에 사는 40세~59세 남녀 1181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최근 미국 의학지에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실험대상의 식생활 조사에서 어패류 섭취량을 산출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룹별 하루 평균 섭취량은 A그룹 57g, B그룹 84g, C그룹 111g, D그룹 153g이었다. 그러면서 섭취량에 따른 우울증 발병 여부를 진단했다. <br/> <br/>그 결과 A그룹과 비교하여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반면 A그룹과 B그룹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C그룹과 D그룹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r/> <br/>또 어패류 섭취량에 따른 그룹별 분석에서는 C, D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불포화 지방산, 도코사펜타엔산(DPA) 등의 n-3계 지방산 비율이 일본 의학회가 정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구팀 마츠오카 유타카 국립암연구센터 건강지원 연구부장은 "꽁치를 예를 들면 하루 1마리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며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등으로 섭취해도 좋다"고 조언했다. <br/> <br/>한편 n-3계 지방산은 칼슘, 철,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며 뇌와 혈관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졌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3.txt

제목: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4파전’  
날짜: 20170926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6204420001  
ID: 01100701.20170926204420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다음달 12일 실시될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네 명의 스님이 출마했다.  <br/> <br/>기호 1번 설정(雪靖) 스님은 전형적인 산중도인이다.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운 스님은 14살 때인 1954년 부친의 생신불공을 위해 수덕사에 들렀다가 출가했다. <br/> <br/>1998년까지 중앙종회의장(11대)을 지낸 이후 2009년 덕숭총림(수덕사) 4대 방장으로 추대됐다. 80년 10·27 법난 때 대전 보안대로 끌려갔지만 사흘 동안 단식 좌선으로 버티면서 자술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신군부가 주도한 법회에 나가 “전두환 정권이 10만 병력을 동원해서 스님들을 잡아넣고 불교를 탄압했다. 이게 과연 국민화합인가”라고 꾸짖은 것으로 유명하다. 1998년 췌장암에 걸렸을 땐 좌선 치료로 암을 이겨냈다. 스님은 최근 출간한 자서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span class='quot0'>나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쉽고 편하게 살지 않을 것</span>”이라고 했다. <br/> <br/>기호 2번 수불(修弗) 스님은 간화선 대가로 이름을 알렸다. 스님은 “단 한 번도 출가를 후회한 적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으니까”라며 참선에 힘썼다. ‘닦되 닦은 바가 없다’는 의미의 수불이란 법명도 스님의 간화선 이력을 말해준다. 스님은 부산에서 안국선원을 열고,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인 7박8일 집중수행을 시작했다. 수행은 1989년부터 28년 동안 300여회에 달한다. 3만여 불자들이 수불 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혜민 스님도 그들 중 한명이다. <br/> <br/>기호 3번 혜총(慧聰) 스님은 포교 전문가로 알려졌다. 1956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span class='quot0'>포교원장 소임을 맡으며, ‘처음도 포교, 중간도 포교, 끝도 포교’라는 좌우명을 세우고 그 길에 어긋남이 없는 포교원장이 되려고 간단없이 노력했다</span>”며 남은 생도 포교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span class='quot1'>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베풀어야 한다</span>”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제5대 포교원장과 대한불교신문사 발행인 등을 지냈으며, 현재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부산 감로사 주지로 있다. <br/> <br/>기호 4번 원학(圓學) 스님은 불화 전문가이다. 스님은 붓을 들고 수행하면서 40여 년간 남종화의 맥을 이어왔다. 스님은 “문인화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무원 총무부장과 문화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후 중앙종회의원을 네 번이나 맡을 정도로 스님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4.txt

제목: 서울대병원 ‘꿈의 암 치료기’ 구축 지원  
날짜: 20170926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6191422001  
ID: 01100701.20170926191422001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서울대병원이 부산 기장군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도입해 2021년부터 암 환자 치료에 나선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올려 암세포만 파괴하고, 치료시간이 30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서울대병원이 투자를 확정함에 따라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주관기관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변경된다. <br/> <br/> 지난해 5월 기장군 장안읍에 건립된 중입자가속기 건물 전경. <br/>세계일보 자료사진기장군은 지난 25일 오후 해운대 벡스코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오규석 기장군수, 문일 연구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입자가속기사업 현장간담회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0'>750억원 투자를 결정한 서울대병원에 감사하며 부산지역 의료계도 중입자가속기 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이 배려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 서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지역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지역 의료기관과 진료·연구 분야에 상생하도록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오 군수는 “<span class='quot2'>지지부진하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사업에 물꼬를 트게 해준 여러 기관 모두에 감사드린다</span>”고 말했다. <br/> <br/>2010년 시작된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195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 있는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암 치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해 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5.txt

제목: 대구시민 사망원인 28%는 '암', 심뇌혈관 질환 포함 땐 50%  
날짜: 20170925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5103326001  
ID: 01100701.20170925103326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지난해 사망한 대구시민 둘 중 한 명은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br/> <br/>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사망자 수는 1만3502명으로 전년(1만3081명)보다 3.2%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전년보다 18.1명 증가한 547.4명을 기록했다.전남(874.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br/> <br/>사망 원인 중에서는 암이 가장 많았다. 대구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02.2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28.8%를 차지했다. 이어 고혈압이나 심장·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통 질환이 84.7명으로 23.8%였다. 특히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50.3%로 절반에 이르렀다. <br/> <br/>대구의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31.2명으로 울산(35.6명)에 비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심장 질환 사망률(45.2명)은 부산(43.5명)과 경남(45.3명)에 이어 3위였다. <br/> <br/>지역 고령층의 자살률은 낮은 편이었다. 대구의 자살률은 20.3명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19.8명)에 비해 두 째로 낮고, 전국 평균(21.9명)을 밑돌았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6.txt

제목: [건강 단신] 고려대병원 융복합센터 착공 외  
날짜: 20170925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5030343001  
ID: 01100701.2017092503034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려대병원 융복합센터 착공 <br/> <br/>고려대학교의료원이 26일 고려대 안암병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조감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병원의 약 3배인 약 13만㎡(4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새로운 공간에는 암, 심장, 뇌신경질환 등 3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센터가 중점 배치되며, 기존 공간에는 융복합 R&D 센터가 들어선다. 고대의료원은 이를 토대로 ‘정밀의료’에 기반을 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앞장서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r/> <br/>경희대병원 29일 대장암 강좌 <br/> <br/>강동경희대병원 다학제암센터가 ‘대장앎의 날’을 주제로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동구 경희대병원 본관 지하 1층 인산홀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1부에서는 ‘대장암, 혹시 나도’, ‘대장암의 수술’, ‘대장암 항암치료,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대장암 검사와 치료에 관한 내용을, 2부에서는 ‘방사선치료 무섭지 않아요’, ‘대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 바로 알기’ 등 예방과 수술 후 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석 가능하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57.txt

제목: 명절마다 지끈지끈 울화… 그냥 두면 병 키워요  
날짜: 2017092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4204955001  
ID: 01100701.201709242049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안정을 취하고 푹 쉬면 좋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던 경험.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해결하기 어렵고 막막하다. <br/> <br/>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때는 설과 추석 명절 직후다. 명절이 다가오면 신경 써야할 것들이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화병이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엔 취업, 결혼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도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br/> <br/>스트레스는 마음을 병들게도 하지만 호르몬 이상 등을 일으켜 신체 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관리와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더 문제다. 김동구 연세대 의대 교수(한국스트레스협회 회장)의 도움으로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각종 영향과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아본다. <br/> <br/>◆뇌세포 죽이고 면역력 약화… 각종 문제 일으키는 스트레스 <br/> <br/>인간이 살아가면서 대하게 되는 모든 환경자극이 스트레스이다. 모든 환경자극은 통제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제가능한 스트레스는 몸을 단련시키고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롭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다. 통제불가능한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죽일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일으키고 기존에 있던 질병도 악화시킬 수 있다. <br/> <br/>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는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감기나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목 안에 덩어리가 생긴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한다. 골다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의 경우 월경불순, 자궁출혈 등을 일으킨다. 그 외 각종 피부질환과 치과질환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br/> <br/>의학적 검사 결과로는 신체 기능에 이상이 없지만 본인은 이상을 느끼는 정신적 질환도 있다. 불면증, 편두통,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등이 그것이다. <br/> <br/>스트레스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학계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정 유전자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적은 없다. <br/> <br/>김 교수는 “간혹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이상이 나타나도 자신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위험하다”며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이고 외면하면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br/>◆‘해소’는 불가능… 자신만의 방법 찾아 ‘관리’해야 <br/> <br/>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악영향 미친다. 따라서 모든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신체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면 대부분 환경자극은 통제할 수 있다. <br/> <br/>스트레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관리법도 달라져야 한다. 명상, 운동, 수다, 예술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br/> <br/>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있다. 한국스트레스협회는 이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br/> <br/>첫 번째는 심호흡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호흡을 하는 것은 ‘응급처치’ 효과가 있으며 평소에도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에 스무 번 정도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가 50% 정도 감소한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두 번째는 신체 건강 관리, 즉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기이다. 운동은 ‘빨리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이 좋다. 하루 30분씩 하는 것이 좋고 세 번에 나눠 10분씩 해도 된다. 속도는 최대 속도로 걷다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br/> <br/>스트레스는 몸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좋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올리브오일, 견과류 등 ‘지중해식’으로 불리는 식단이다. <br/> <br/>다음은 ‘고민거리 털어놓기’다. 사람들은 종종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는 스트레스 원인이 평소 잠재의식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잠재된 원인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낸 뒤 말로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 <br/> <br/>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지했다면 ‘긍정적인 사고’로 상황을 다시 보려는 연습이 필요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 ‘양보’, ‘적극적 돕기’가 긍정적인 사고의 발전 단계인데, 모든 일에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br/> <br/>스트레스 관리법 중 가장 어려운 마지막은 ‘깨달음’이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정확히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으므로 스트레스 인지와 긍정적인 사고 단계를 실천한 뒤 시도하는 것이 좋다. <br/> <br/>김 교수는 “스트레스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스트레스라는 괴물의 손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괴물의 손을 놓고 그 두 손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스트레스가 괴물이 아니라 귀여운 강아지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58.txt

제목: 빙하 위 폴리스티렌…북극마저 플라스틱 오염  
날짜: 20170924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4201537003  
ID: 01100701.20170924201537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구의 가장 북쪽 지점인 북극점에서 불과 1600㎞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됐다. 그간 북극해의 경우 빙하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둬두거나 막는 역할을 해 비교적 깨끗이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런 예측이 틀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플라스틱이 잘게 분해돼 미세 조각이 퍼질 경우 북극 생태계는 물론 전 세계 해양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엑세터대학교 팀 고든 교수와 영국, 미국, 노르웨이, 홍콩 과학자들이 참여한 연구진은 위도 77~80도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빙원 위에서 폴리스티렌 조각 2개를 발견했다. 폴리스티렌은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원료 중 하나로 가공이 쉬워 컵,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연구진과 함께 탐사에 참여한 탐험가 펜 하도우는 “<span class='quot0'>지난 25년 동안 북극을 탐험했지만 이렇게 크고 뚜렷하게 보이는 쓰레기를 본 적이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폴리스티렌 쓰레기는 얼음 위에 놓여 있었다</span>”고 전했다. <br/> <br/>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 속에 갇혀 있던 플라스틱이 대거 배출되고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리 루이스 엑세터대 교수는 “<span class='quot1'>많은 강들이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싣고 북극해로 흘러가지만 그동안에는 얼음에 갇혀 퍼지지 못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를 잠식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그는 많은 강이 모이는 북극해가 미세 플라스틱이 모였다가 퍼지는 ‘중요한 지점’(hot spot)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이 다른 해역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 속도가 기후변화로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br/> <br/>현재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 바다에 5조 개가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동물을 통해 최상위 포식자까지 먹이 사슬 전체에 전달된다.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돼 죽게 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경우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암, 유산, 기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든 교수는 “<span class='quot2'>빙하가 녹으면서 다량의 유독 물질이 이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고, 이는 북극 생태계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직경 1밀리미터 미만의 그물로 바닷물을 걸러 북극해의 오염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br/> <br/>연구진은 아울러 2050년쯤이 되면 북극의 여름에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는 환경이 조성돼 북극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인간 활동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여름에는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 북극해의 40%를 배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 교수는 “<span class='quot2'>북극해는 1년 내내 얼어있던 빙하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점점 빙하가 녹으면서 결국 어업, 운송 등의 활동이 증가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북극에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할 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br/>사진=코노 맥도널, 가디언

언론사: 세계일보-1-159.txt

제목: [생활팁] 두부를 일부러 얼린다? 냉동 보관이 더 좋은 식품 7가지  
날짜: 20170922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2203853001  
ID: 01100701.20170922203853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br/>살이 꽉 찬 버섯과 두부가 올라간 된장찌개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 대부분은 신선한 상태에서 조리해야 더 풍미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부는 냉장보관 후 기한 안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얼려서 사용할 경우 두부 사이사이에 양념이 배어 더 진한 맛과 특별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의외로 냉동고에 보관하면 더 많은 유효성분을 섭취할 수 있고 맛과 식감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식품들이 있다. 냉동 보관하면 좋은 식품 7가지를 살펴봤다. <br/> <br/>1. 블루베리 <br/> <br/> <br/>타임지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할 만큼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진 블루베리는 얼리면 항산화 효능이 더 진해지고 풍부해진다. 2014년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할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더 증가한다고 밝혔다. <br/> <br/>2. 두부 <br/> <br/> <br/>두부는 얼리면 좋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다. 두부 표면의 뚫린 구멍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 입자가 응축되어 단백질 함량이 무려 6배 증가한다. 얼린 두부는 녹여서 수분을 빼준 후 조림이나 찌개로 활용하면 간이 잘 배어서 더 맛있어진다. <br/> <br/>3. 시금치 <br/> <br/> <br/>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섬유질, 엽산, 철분 등이 골고루 들어있는 필수 영양식인 시금치는 얼리게 되면 칼슘과 비타민 E를 비롯한 영양소가 생시금치보다 풍부해지며 오래 보관해도 맛의 차이가 없다. <br/> <br/>4. 브로콜리 <br/> <br/> <br/>브로콜리는 색깔이 노랗게 변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낸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얼리게 되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소는 응축되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 섭취에 효과적이다. <br/> <br/>5. 견과류 <br/> <br/> <br/>호두, 아몬드, 피칸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오래 두면 산패하여 냄새가 나고 맛도 변한다.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품질의 변화 없이 견과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수분과 다른 음식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br/> <br/>6. 팽이버섯 <br/> <br/> <br/>팽이버섯은 지방 연소를 촉진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키토산(키토글루칸)이 버섯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얼려두었다가 조리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찢기면서 세포 속 성분이 쉽게 용출되어 훨씬 더 많은 버섯 키토산을 섭취할 수 있다. <br/> <br/>7. 마늘 <br/> <br/> <br/>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꼽은 항암 음식 48가지 중 1위로 꼽힐 정도로 강력한 살균 효과와 면역력을 지닌 식품으로 갈아서 냉동 보관해두면 성분의 변화 없이 오랫동안 마늘의 유효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자료=클립아트코리아,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언론사: 세계일보-1-160.txt

제목: 고령화 여파… 작년 사망자수 사상 최대  
날짜: 20170922  
기자: 이천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2182506001  
ID: 01100701.201709221825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br/> <br/>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보다 4932명(1.8%) 증가했다. <br/> <br/>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2만8298명, 남자가 15만2529명이었으며, 전년보다 각각 2852명(2.3%), 2080명(1.4%) 증가했다. <br/> <br/>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전년보다 7.9명(1.5%) 늘어난 549.4명으로 1992년(539.8명)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 대비 사망자 수는 80세 이상(5.9%)과 60대(4.3%)에서 주로 증가했다. <br/> <br/>영아(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수는 1154명으로 전년보다 36명(3.0%) 줄었다. <br/> <br/>출생아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영아 사망률은 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명)보다 낮았다. <br/> <br/>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747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br/> <br/>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91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96명(3.1%) 줄었지만 10년 전인 2006년(4280명)과 비교하면 배 넘게 늘어난 결과다. <br/> <br/>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조사망률도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 <br/>지난해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기관지염 등),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순이었다. <br/> <br/>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9.6%를 차지했다. 이 중 3대 사인(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인의 46.8%를 차지했다. 지난해 숨진 한국인 둘 중 한 명은 암, 심장·뇌혈관 질환 때문인 셈이다. <br/> <br/>10년 전과 비교하면 폐렴이 10위에서 꾸준히 상승해 4위에 올랐다. <br/> <br/>나이별로 보면 1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1∼9세, 40세 이상에서는 암이 1위를 차지했다. <br/> <br/>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사인은 고의적 자해,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추락 순이었고, 여자의 사인은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순이었다. <br/> <br/>암 사망률은 폐암(35.1명), 간암(21.5명), 대장암(16.5명), 위암(16.2명), 췌장암(11.0명) 순으로 높았다. <br/> <br/>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대장암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위암을 앞질러 3대 암에 이름을 올렸다. <br/> <br/>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외부적 원인(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이의 비율은 10.0%(2만8218명)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br/> <br/>세부적으로 보면 외인 사망률은 자살(25.6명), 운수사고(10.1명), 추락사고(5.1명) 순으로 높았다. <br/> <br/>전년과 비교하면 자살(-3.4%), 운수사고(-7.3%), 타살(-16.3%)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추락사고(11.8%), 중독사고(39.9%) 사망률은 증가했다. <br/> <br/>점차 줄고 있는 자살률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특히 70대 이상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3092명으로 1년 전보다 421명(-3.1%) 줄었다. 자살 사망률은 25.6명이었다. 남성의 자살률은 36.2명으로 여성 15.0명보다 2.4배 높았다. <br/> <br/>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1.txt

제목: 기장 중입자가속기에 서울대병원 750억 투자  
날짜: 20170922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2030733001  
ID: 01100701.2017092203073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민간분담금 7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표류 중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서울대병원이 참여한다. <br/> <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올려 암세포만 파괴하고 치료시간이 30분으로 짧은 장점 때문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br/> <br/> 1000억원이 투입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뒤편에 들어선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9월 현재 건물이 텅비어 있다.서울대병원이 사업주관 기관으로 나서게 되면 부산 기장군에 들어서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가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진 2021년부터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기장군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병원, 부산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과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br/> <br/>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분담금 750억원을 투입, 중입자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는다. <br/> <br/>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부산시장, 서울대병원장 등 관계기관장과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br/> <br/>2010년 시작된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1950억원(국비 700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 있는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암 치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br/> <br/>2016년 5월 지하 2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1만2879㎡ 규모의 치료센터 건물이 완공됐으나 핵심 시설인 중입자가속기는 발주도 못 한 상태다. <br/> <br/>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750억원을 부담할 사업자로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br/> <br/>서울대병원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초기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별도 지원하는 등 세부조건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왔으나 이날 협약체결에서 세부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br/> <br/>서울대병원이 올해중 중입자가속기 치료장비 발주를 하면 빨라야 2021년 하반기부터 암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앞으로 사업주관 기관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는 세부 협의가 남아 있고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지역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br/> <br/>협약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은 "<span class='quot0'>기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X-선이나 감마선과 달리 정상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히 종양만 제거하는 최고의 암 치료기를 구축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기장군이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오규석 기장군수는 "<span class='quot1'>중입자가속기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가 구축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2.txt

제목: ‘착한 암’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70921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1233502001  
ID: 01100701.2017092123350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2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착한 암, 거북이 암, 로또 암으로 불리는 ‘갑상선암’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다. <br/> <br/>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생존율이 높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실제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1위이지만 5년 후 생존율 또한 100%로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스스로 병을 가볍게 여기거나 수술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착한 암에 가려진 갑상선암의 진실과 올바른 치료법을 알아본다. <br/> <br/>1㎝ 미만의 갑상선암은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과 수술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갑상선암 수술을 할 경우 매일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하고 목소리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갑상선암이 어떻게 다른지 다뤄본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3.txt

제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 내일] (7)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날짜: 20170921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1173303001  
ID: 01100701.2017092117330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해 4월 전세계의 이목이 바둑판에 쏠렸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인 인간 이세돌 9단을 완벽하게 이기는 모습에 인류는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인지, 학습, 추론, 직관 등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 고유의 영역이 아님을 알파고는 보여줬다. AI의 기술적 가치 증명은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br/> <br/>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 혁명’이었고, 2차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컴퓨터가 이끈 3차 산업혁명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산업 분야에 시스템 자동화를 이끌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된다. 게다가 빅데이터 기반의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br/> <br/>4차 산업혁명은 국내에서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진보된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논의와 연결돼 있다. 4차 산업혁명은 AI를 기반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일을 인간의 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해내는 시대의 문을 열어나가고 있다. AI가 인간의 두뇌와 신체활동을 대신하고 생활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출처=‘코리아 루트를 찾아라’, 제5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표자료(2017년 4월12일) <br/> <br/>◆수집한 빅데이터를 인간처럼 분석하고 자연어 통해 스스로 학습 <br/> <br/> 왓슨: 안녕하세요, 켄 제닝씨. 그 TV쇼 이후로 뵙지 못했네요. <br/> <br/>켄 제닝: 너, 이제 볼 수도 있니? <br/> <br/>왓슨: 저는 이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고, 이미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도 봐요. <br/> <br/>켄 제닝: 난 책을 몇 권 썼고 강연도 다녔고… <br/> <br/>왓슨: 저는 사람들의 은퇴 후 계획이나 의사들의 암환자 진료에 도움을 줬어요. <br/> <br/>켄 제닝: 그게 다니? <br/> <br/>왓슨: 최근엔 일본어도 배우고 있지요 ^^ <br/> <br/>켄 제닝: (진짜로 궁금한 게 아니었어) 그건 빈정댄 거야.. -\_- <br/> <br/>왓슨: 빈정거림은 아직 학습하지 못했어요. <br/> <br/>켄 제닝: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 <br/> <br/>\*왓슨과 켄 제닝(퀴즈쇼 ‘제퍼디’의 인간 대결자)의 대화 <br/>사실 알파고가 한국을 찾기 전 이미 AI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IBM이 개발한 프로그램 ‘왓슨’(Watson)이다. 왓슨은 ‘인지’와 ‘인식’을 뜻하는 ‘코그너티브 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수집한 빅데이터를 인간과 가까운 방식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또한 자연어를 이해하고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스스로 학습한다. <br/> <br/>왓슨은 이미 2011년 자연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퀴즈왕 켄 제닝을 이기면서 증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선 대화에서 그 이후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br/>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 출전한 인공지능 왓슨(Watson). 출처=www.flickr.com <br/>왓슨은 이미 의료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병원에 취직한 왓슨’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왓슨은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단 몇 분만에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처방을 제안한다. 현재 미국의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 및 엠디앤더슨 암센터, 클리블랜드 및 메이오 클리닉, 뉴욕게놈센터, 태국 범룬그라드 및 인도 매니팔 병원 등이 왓슨을 활용하고 있다. 암 환자 진단과 임상환자 선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치료가 진행 중이다. <br/> <br/>최근 국내에서도 SK㈜ C&C의 AI ‘에이브릴’(AIBRIL)을 기반한 의료 분야 AI 서비스가 속속 준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려대 의료원과 손 잡고 추진 중인 ‘에이브릴 항생제 어드바이저’다. 감염병과 항생제 관련 국내외 논문과 가이드라인, 약품 및 보험 정보 등 방대한 양의 의료 문헌, 의료원의 치료 케이스와 노하우를 학습한 뒤 환자 증상에 맞는 추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br/> <br/>GE와 BMW 등의 대규모 생산 현장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공장 내 설비와 중간 부품이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무인공정을 구현해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또 생산라인을 다양화해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기존 규모의 경제에서 개인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AI 기술이 핵심이다. <br/>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도 <br/>◆AI가 발전해도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 <br/> <br/>기업은 ‘고객이 왕’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공급자였다. 기업은 고객을 잘 알지 못했고 대량으로 제품을 만든 뒤 구매를 부추기기만 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제품과 제조공정, 그리고 시스템이 지능화되면서 소비자가 진정한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br/> <br/>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똑똑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하드웨어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유엔의 ‘미래보고서 2045’에서도 AI 기술이 금융 컨설턴트와 은행원, 콜센터 직원 등 금융업 종사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연구에서도 텔레마케터와 부동산 권리 분석사, 개인 보험업자 등도 AI 기술로 대체 가능한 직업으로 보고 있다. <br/> <br/>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일부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새 직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기존의 노동력이나 기술,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AI 기술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br/> ‘로봇이 인간을 죽인다’는 자막이 붙은 미국 폭스뉴스의 방송 장면. 출처=폭스뉴스 <br/>AI 발전에 따른 디스토피아(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어두운 미래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r/> <br/>그러나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span>”고 전망한다. <br/> <br/>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인 류인균 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br/> <br/>“알파고의 바둑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즉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외모가 주는 인상은 정의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를 칠 것 같고 피해를 줄 것 같은 본능적인 부분도 다 더해지기 마련이거든요. AI가 아직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어렵습니다.” <br/> <br/>AI가 발전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br/> <br/>새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다. AI가 인간을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이전의 기술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기술의 발전이 그래왔듯이 AI 또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인간의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SK주식회사 C&C PR팀

언론사: 세계일보-1-164.txt

제목: 담석 형성 원리 활용한 암 치료법 개발  
날짜: 20170921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1031142003  
ID: 01100701.20170921031142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담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br/> <br/>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47·사진) 교수 연구팀은 인간 체내의 물질을 이용해 광학영상 진단과 광열치료가 가능한 항암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인체 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빌리루빈으로 담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자체 금속 결합기능과 푸른빛에 반응하는 성질을 동시에 활용했다. <br/> <br/>전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개발된 다른 물질들은 생체 적합성이 낮고 잠재적 생체 독성이 있는 인공소재이기 때문에 임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체 유래 빌리루빈 기반의 광학물질은 광음향 영상과 광열치료의 전임상 중개연구, 임상 적용에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5.txt

제목: [양향자의 더 건강한 음식] 양귀비가 즐기던 ‘천국의 열매’ 석류  
날짜: 20170920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0220436001  
ID: 01100701.2017092022043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얼마 전 ‘미녀는 석류를 좋아한다’고 외치며 음료업계에서 대히트한 음료수를 많이들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석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다량 함유, 피부미용과 노화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이론에 웰빙 열풍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져 석류의 주가는 끝간 데를 모르고 치솟았다. 이런 현상은 석류를 응용한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판매증가로 이어졌고, 그 열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br/> <br/>석류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쳤지만 그 인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인간이 처음으로 재배한 작물 중 하나인 석류는 이미 기원전 3000~4000년부터 황무지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우연히 석류의 효능을 경험한 아리아인(이란인)이 자구로 산맥에서 자라고 있던 것을 정원에 옮겨 심으면서 인간과 석류의 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이들은 석류를 ‘신의 전유물’ ‘천국의 열매’로 여기며 소중히 키웠고, 이후 이집트와 그리스에 전해진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 <br/> <br/>석류는 이란산을 최고로 친다. 이란의 몹시 더운 여름과 몹시 추운 겨울은 석류 서식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석류가 잦은 비로 신맛이 강한 데 비해 이란 석류가 단맛이 좋고 즙이 많은 것은 이러한 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석류의 효능은 예로부터 여러 문헌에 등장하였다. <br/> <br/>‘동의보감’에 석류껍질과 석류꽃까지 일일이 그 효능이 적혀 있을 정도이다. 석류는 대표적 붉은색 과일인데, 붉은색은 오장 중심(心)에 해당되어 혈액에 도움을 준다. 석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의 경우 혈관과 심장 질환, 암 유발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절세미인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는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석류를 즐겼다. 왜 그랬을까. 석류에는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결합조직의 양을 늘려 피부노화를 지연함으로써 탄력 및 주름을 개선하고 혈색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직접 만들어 쓰는 천연화장품을 선호하는 여성 사이에서 석류가 화장수의 재료로 각광받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br/> 석류샐러드 <br/> <br/>재료:석류 1/2개, 양상추 1/2개, 파프리카 1/2개, 비트 20g, 로메인상추 20g <br/> <br/>만드는 법 ①양상추 파프리카 로메인 상추는 손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찬물에 담근다. ②비트는 채를 썰어준다. ③석류 알갱이는 알알이 딴다. ④③과 올리브유 소금 후추 설탕 식초를 믹서기에 갈아 소스를 만들어준다. ⑤야채를 물기 제거 후에 그릇에 담고 ④를 뿌린다. <br/>특히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겪는 여성에게 좋은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불규칙한 월경주기 개선, 폐경 이후의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나타나는 골다공증과 어깨결림, 관절염에도 효과적이다.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호르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남성호르몬이 증가하면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석류의 꾸준한 섭취는 정자 수의 증가와 발기지속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  <br/> 석류젤리 <br/> <br/>재료: 석류주스 2컵, 설탕 2큰술, 레몬즙 1큰술, 젤라틴 15g <br/> <br/>만드는 법 ①석류에 젤라틴 설탕을 넣고 끓여준다. ②어느 정도 끓으면 설탕을 넣어서 끓이다가 레몬즙을 넣어서 끓여준다. ③모양틀에 넣어서 굳힌다. <br/>석류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체지방 감소와 이뇨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비에 걸렸을 때는 석류를 불에 구워 분말로 만든 다음 흑설탕과 섞어 한 번에 9g씩 더운 물과 함께 복용하고, 무좀이 있는 사람은 석류즙이나 석류를 진하게 달인 물을 환부에 꾸준히 바르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br/> <br/>석류가 좋은 음식임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석류는 표면이 약간 거친 듯하며 껍질이 연한 붉은빛을 띠는 것이 맛과 향이 좋다. 껍질이 너무 붉으면 오히려 속 열매에 하얀 알갱이가 많을 수 있다. 열매보다는 껍질이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겉면에 흠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1-166.txt

제목: 담배 한 갑을 피우면 당신 폐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날짜: 2017092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20101133001  
ID: 01100701.20170920101133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담배 한 갑이 사람의 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험한 해외의 한 유튜버 영상이 화제다. <br/> <br/>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Chris Notap’채널에 올라온 약 3분30초분량 영상은 담배 한 갑을 모조리 피웠을 경우 사람 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내용이다. <br/> <br/>게시자의 이름은 채널과 똑같이 크리스 노탑이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r/>  유튜브 'Chris Notap' 채널 영상 캡처.크리스는 투명 플라스틱병, 고무관 그리고 탈지면 여러개를 준비했다. 병은 폐, 관은 기관지다. 탈지면은 쌓이는 타르가 얼마나 되는지 쉽게 보려는 이유다. <br/> <br/>담배 20개가 담긴 한 갑을 태우고 나니, 새하얗던 탈지면은 옅은 갈색으로 변했다. 관에는 타르가 끈적하게 묻었다. 옅은 갈색 물질이 묻기는 플라스틱병 내부도 마찬가지다. <br/> <br/>동영상은 게시 열흘 만에 조회수 26만건을 넘겼다. <br/> <br/>크리스는 “<span class='quot0'>담배 한 갑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실험을 계획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더 늦기 전에 부디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거듭 말하지만, 미루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유튜브 'Chris Notap' 채널 영상 캡처.지난 6월, 유럽연합(EU)의 공식통계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에서 한 해 사망한 490만명중 130만 명이 암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이 중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27만2000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21%에 달했다. 5명 중 1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한 셈이다. <br/> <br/>남성 폐암 사망자가 여성의 2배를 넘은 가운데 의학 전문가들은 폐암이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에서 폐암 사망률이 높은 것은 흡연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br/> <br/>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나타났다. <br/> <br/>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니 EU와 비슷한 수준이다.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도 낮다.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7.txt

제목: [세계는 지금] "화살은 결국 인간을 향할 것"…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날짜: 20170918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8213137001  
ID: 01100701.20170918213137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span class='quot0'>바다 표면은 평온했지만 수면 밑은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독성 수프 같았다.</span>” <br/> <br/>영국에서 ‘플라스틱 없는 슈퍼마켓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벤 포글은 지난해 인도양을 잠수할 당시 목격했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바닷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플라스틱은 어디에 있든 해양 생물과 환경을 오염시킨다</span>”며 “<span class='quot0'>플라스틱은 무차별적으로 (인류에) 악영향을 미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오래 가고 쓰기 편리한 물질의 대명사였던 플라스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t이 생산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간이 해양생물 등을 통해 플라스틱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br/> <br/>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 체내에 흡수된 뒤 신체에 미치는 피해 정도, 생태계 파괴 수준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플라스틱을 분자 형태로 만들어 연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소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플라스틱이 초래하는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r/> <br/> <br/>◆플라스틱으로 뒤덮이는 지구 <br/> <br/>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 불과했지만 올해까지 총 83억t이 생산돼 67년 만에 4000배 정도 증가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340억t의 플라스틱이 지구 곳곳에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br/> <br/>우리가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없는 5㎜ 이하 미세 플라스틱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바다에 5조개가 존재할 것으로 조사됐는데,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꾸준히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15~31%는 미세 플라스틱이며 이 중 35% 정도가 가정에서 합성섬유를 세탁하면서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해양학자 아비가일 배로우스는 “세탁을 할 때 플라스틱 미세섬유가 떨어져 나오는데, 재킷 하나에서 25만여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며 “매일 미국 허드슨강에서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3억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br/> <br/>올해 2월 현재 바다의 플라스틱 대 플랑크톤의 비율은 1대2 정도로 추정되는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생선을 합친 것보다 바다 내 플라스틱이 더 무거울 것이란 관측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br/> <br/>죽은 채 발견된 알바트로스 한 개체에는 3000여개의 플라스틱 조각(8㎏)이 위장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간이 한 번에 12개 피자를 먹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생물은 먹이를 소화하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된다. 바다에 있는 새 10마리 중 9마리 내장에는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br/> <br/> <br/>◆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어 더 ‘위협적’ <br/> <br/>더 큰 문제는 먹이사슬 최상층부에 위치한 인간이 해양생물을 섭취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체내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은 햇볕과 파도, 염분의 영향을 받아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해 아주 잘게 쪼개지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과 뭉쳐져 어류 등을 거쳐 인간에 전달된다. 벨기에 겐트대학교 등에 따르면 해산물을 주기적으로 먹는 영국인은 매년 1만1000여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체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내에 들어온 플라스틱의 99%는 빠져나가지만 나머지 1%는 체내 조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br/> <br/>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쯤이면 주기적으로 해산물을 먹는 사람은 매년 78만개의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독립 언론단체 ‘오르브 미디어’가 전 세계 수돗물의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해산물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인간이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플라스틱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대양’을 만든 크레이그 리슨은 “플라스틱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오래가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어떤 모습으로든 지구상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br/> <br/>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잔 조블링 브루널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서방 국가 성인의 92%는 체내에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유량은 아이들의 경우 성인의 2배에 이른다</span>”며 “<span class='quot1'>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지난 6월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플라스틱 제조 원료 중 하나인 비스페놀A(BPA)의 경우 인간의 내분비기관과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암, 유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면 금지에 나서진 않았다. BPA는 독일 아동 599명 중 591명의 소변에서 검출되는 등 세계 인구의 90%가 체내에 갖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화학물질이다. 콜린 젠슨 겐트대 박사는 “<span class='quot2'>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가 오랜 기간 머무르는 걸 알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플라스틱들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독성물질을 생성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br/>◆플라스틱 위기 해법은 ‘소비패턴 변화’ <br/> <br/>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재활용 비율은 낮아 대부분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플라스틱 70억t 중 9%만 재활용됐고, 12%는 태워졌으며 나머지 79%는 매립지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런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플라스틱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레 플라스틱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워릭대학교는 플라스틱을 가장 기본적인 분자 수준으로 쪼개 플락스(Plaxx)라는 기름을 만드는 ‘재활용 기술’(Recycling Technologies)을 개발했다. 미국 해군과 일부 크루즈선도 비슷한 방식의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해 선원이나 승객이 버린 플라스틱을 5000도 이상으로 가열, 가스로 활용하고 있다. SCMP는 “<span class='quot3'>플라스틱을 활용해 가스를 만드는 건 작은 공장에서도 가능하고, 오염물질도 배출되지 않는다</span>”고 전했다. <br/> <br/>하지만 세계 폐플라스틱의 56%를 수입했던 중국은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홍콩은 2014년 “<span class='quot4'>플라스틱 재활용 무역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함, 각국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매력적이지 않다</span>”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에만 의존해서는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br/> <br/>결국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각국이 규제 정책을 동원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매년 1조개의 비닐봉지가 생산되지만 평균 12분만 사용된 후 버려지고, 소비된 의류 10벌 중 4벌이 한 번 입거나 전혀 입지 않은 채 버려지는 상황(2015년 독일 조사 결과)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이 2015년 비닐봉지에 5페니의 부가세를 매긴 후 사용량이 85억개에서 25억개로 줄고, 독일이 플라스틱병을 넣으면 보증금을 내어주는 기계 ‘플라스틱병 은행’을 슈퍼마켓에 설치해 재활용률을 98%로 높인 것과 같은 성공 사례를 각국 정부가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br/> <br/>뉴욕 주립대 쉐리 메이슨 교수는 “정수를 한 물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로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다”며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겠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이다”고 말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8.txt

제목: ‘MB 블랙리스트’ 이외수, “공포와 전율에 잠 못 이뤄”  
날짜: 20170918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8213033001  
ID: 01100701.20170918213033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소설가 이외수(71)가 “<span class='quot0'>공포와 전율 때문에 날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span>”고 심경을 토로했다. <br/> <br/>18일 이외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span class='quot1'>이명박근혜 정부의 잔인하고 야비한 탄압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span>”고 밝혔다. 이외수는 “<span class='quot1'>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셨다는 고위직의 어떤 분께서 귀띔해준 내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선생님은 암적 존재이므로 매장될 때까지 압박하라는 내용이었다</span>”고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국정원이 국민의 세금 축내면서 생사람이나 잡는 기관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국정원의 적폐청산 TF의 조사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은 이외수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을 퇴출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외수는 2008년 진행을 맡은 MBC 라디오프로그램 '이외수의 언중유쾌'가 1년 만에 폐지되며 하차한 바 있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69.txt

제목: 이외수 "이명박근혜 정부 탄압에 죽음 직전까지, MB리스트 듣는 순간부터 숨 못쉬어"  
날짜: 201709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8180601001  
ID: 01100701.20170918180601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소설가 이외수(71)가 "<span class='quot0'>(블랙리스트에 포함됐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공포와 전율 때문에 날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span>"며 고통스런 심경을 전했다. <br/> <br/>이외수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br/> <br/>이외수씨는 "<span class='quot1'>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셨다는 고위직의 어떤 분께서 귀뜸해 준 내용으로 '선생님은 암적 존재이므로 매장될 때까지 압박하라'고 했다</span>"고 블랙리스트 내용을 폭로했다.  <br/> <br/>이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외수씨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잔인하고 야비한 탄압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고 힘들었던 시절을 떠 올렸다. <br/> <br/>그러면서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 축내면서 생사람이나 잡는 기관이었다"며 현재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할까"라고 하소연했다.  <br/> <br/>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은 이외수 씨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을 퇴출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br/> <br/>이외수씨가 2008년 진행을 맡은 MBC 라디오프로그램 '이외수의 언중유쾌'는 '외압논란'을 빚으면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0.txt

제목: ‘삼성바이오’ 유방암 치료 복제약 유럽 허가 눈앞  
날짜: 20170917  
기자: 김수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7211112001  
ID: 01100701.20170917211112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트루잔트’(프로젝트명 SB3)가 유럽 최초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삼성바이오에피스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온트루잔트가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긍정 의견’(positive opinion)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EMA에 판매 허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최종 승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br/> <br/>EC의 판매 허가 승인은 일반적으로 CHMP가 긍정 의견을 낸 후 2∼3개월 내 이루어지므로 온트루잔트의 연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기대하고 있다. <br/> <br/>최종 판매 승인을 받게 되면 온트루잔트는 유럽에서 판매 가능한 최초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된다. <br/> <br/>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은 로슈가 판매하는 초기 및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지난해 약 7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전 세계 판매 8위 바이오의약품이다. <br/> <br/>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span class='quot0'>이번 CHMP 긍정 의견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에서도 연구개발(R&D) 역량을 인정받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고품질의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수미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71.txt

제목: '안락사' 표결 앞두고 뇌종양 환자 영상 논란…"여론 부추겨"  
날짜: 201709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5101334001  
ID: 01100701.2017091510133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10여년전 뇌종양으로 숨진 50대 남성의 마지막을 재구성한 영상이 호주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br/> <br/>올 하반기 호주 빅토리아 주(州) 당국이 안락사 허가 법안을 두고 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영상이 감정에만 치우쳐 의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br/> <br/>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디 에이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05년 뇌종양으로 사망한 그렉 심즈(56)씨의 인생 마지막 2주를 다룬 5분여 분량 영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됐다. <br/> <br/>애초 유튜브 배포도 목적이었지만, 보다 중간에 끄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영상의 잔혹성에 대해 지적이 쏟아지자 현재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공포를 멈추라(Stop the Horror)’는 제목의 영상은 그렉씨의 딸 진술을 토대로 현지 사회단체 ‘고 젠틀 오스트레일리아(Go Gentle Australia)’가 제작했다. <br/> <br/>창백한 피부에 심한 고통이 스며든 재연배우의 얼굴은 그렉씨의 실제 모습을 담은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보는 이가 당황할 것을 우려한 듯 해당 단체는 영상 아래에 언제든 끌 수 있는 정지버튼을 넣었다. <br/> <br/>고 젠틀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5분여에 불과한 영상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환자의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지난 2005년 뇌종양으로 숨진 그렉 심즈(56·사진)씨의 인생 마지막 2주를 재구성한 영상이 호주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반기 호주 빅토리아 주(州) 당국이 안락사 허가 법안을 두고 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영상이 감정에만 치우쳐 의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은 그렉씨의 딸 진술을 토대로 현지 사회단체 ‘고 젠틀 오스트레일리아(Go Gentle Australia)’가 제작했다. gogentleaustralia 홈페이지 영상 캡처. <br/> <br/>하지만 영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빅토리아 주가 올 하반기 안락사 관련 법 도입을 놓고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사회단체 쪽에서 감정에 치우친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안락사법 도입 가능성이 가시화했다. 법안을 반대하던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지지로 입장을 바꿔서다. <br/> <br/>올 하반기 안락사법 관련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면, 개인의 소신에 따른 양심투표(conscience vote)에 따라 법안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18개월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19년 발효된다. <br/> <br/>낙태 등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의 직접적인 조언이나 설명을 포함하지 않은 채 사망자 딸의 말에 의존해 만든 게시물</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제작 과정은 매우 적절치 않다</span>”고 지적했다. 죽어가는 환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는 뜻이다. <br/> <br/>그러면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허락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2.txt

제목: 평범한 일상 송두리째 앗아가는 직장암  
날짜: 20170915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5030653002  
ID: 01100701.20170915030653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15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사진)에서는 항문에 근처에 생기는 암, 직장암에 대해 다룬다. <br/> <br/>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배설, 그 기능을 담당하는 직장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br/> <br/>직장은 항문과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암이 생긴다면 항문의 보존 여부도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암의 위치가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항문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문은 제 기능을 잃고 복부에 인공 항문(장루)을 달아야만 한다. <br/> <br/>직장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95% 이상은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목숨과 별개로 암의 위치에 따라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두 얼굴을 가진 직장암에 대해 두 명의와 함께 알아본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3.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두부를 빼고 다이어트를 논하지 마라"  
날짜: 20170914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4100239001  
ID: 01100701.2017091410023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요즘 인터넷이나 여성잡지를 들여다 보면 주요 관심사는 단연 다이어트다. 먹고 싶은 만큼 적당히 먹어도 살 찌지 않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 있다면 그보다 더 환영받을 수 있을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무섭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먹는 즐거움을 버리는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다이어트 요리는 단연 인기다. <br/> <br/>필자가 먹는 즐거움에 빼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 다이어트 요리에 가장 즐겨 쓰는 식재료는 두부다. 두부는 칼로리가 낮은 반면 영양가가 높아 다이어트 중에 자칫 놓치기 쉬운 영양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부 한 모로 포만감까지 얻으니 먹는 즐거움이 그리운 이에게는 안성맞춤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br/> <br/> 두부를 이용한 탕수 <br/> <br/>재료 두부 1/2모, 전분 1/2컵, 달걀 1개, 오이 1/2개, 당근 1/4개, 양파 1/2개, 목이버섯 3개, 마늘 1개, 파, 고추기름, 식초, 설탕, 간장 <br/> <br/>만드는 법 ①두부는 큼직큼직하게 크게 잘라 소금을 뿌려서 간수를 빼준다. ②오이 어슷 썰고 당근은 꽃모양을 내고 양파는 큼직하게 썰고, 목이버섯은 불려 한입 크기로 잘라둔다. ③마늘은 편으로 썰고 파는 큼직하게 썬다. ④두부에 전분가루를 묻혀 180℃의 기름에 튀겨낸다. ⑤다른 팬에 고추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마늘과 파를 넣고 볶다 ⑥⑤에 당근, 양파, 목이버섯을 넣고 볶다가, 육수를 넣고 식초 설탕 간장으로 간한다. ⑦⑥에 전분물을 넣고 걸죽하게 소스를 만든다. ⑧튀겨놓은 두부를 접시에 담고 소스를 뿌린다.두부에는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단백질 식품인 두부는 NPU(Net Protein Utilization·식품 내 단백질 섭취 시 인체 내 이용 비율에 대한 품질평가)가 65%다. 닭고기와 같은 수치이고 다른 콩 가공 제품보다 높은 수준이다. 두부의 단백질은 풍부한 라이신이 함유되어 있으며, 다른 곡류에는 적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도 많은 편이다. 두부는 제조과정 중에 콩에 함유되어 있는 조섬유질과 수용성 탄수화물을 제거시켰기 때문에 대단히 연해 소화가 잘 된다. 두부의 소화력은 95%인데 비해 볶거나 삶은 콩은 68%정도이다. <br/> <br/> 두부와 닭가슴살 스테이크 <br/> <br/>재료 두부 1/2모, 닭가슴살 1쪽, 당근 1/4개, 호박 1/4개, 양파 1/3개, 청양고추 1개, 마늘 3톨, 다진 파, 전분가루, 빵가루, 달걀 <br/>소스 다진 마늘, 다진 파, 고추장, 우스터소스, 케찹, 설탕, 참기름, 후추 <br/> <br/>만드는 법 ①두부를 거즈에 싸서 물기를 제거하고 곱게 으깬다. ②닭가슴살 곱게 다져서 청주, 소금, 후추로 밑간 한다. ③당근, 호박, 양파, 청양고추, 마늘, 파는 곱게 다져 둔다. ④볼에 두부와 닭가슴살, 다진 야채들을 넣고 빵가루 약간과 소금, 후추, 참기름, 다진 파, 마늘을 넣고 반죽한다. ⑤스테이크처럼 널찍하게 반죽한 다음, 전분가루를 앞뒤로 묻히고, 달걀 물을 입혀 팬에 지져낸다. ⑥팬에 다진 마늘, 다진 파, 고추장, 우스터소스, 케찹, 설탕, 참기름, 후추 물을 5큰술 넣어서 끓인다. ⑦접시에 스테이크를 담고 위에 소스를 뿌려준다.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다른 고단백 식품과는 다르게 열량과 포화지방 함유량이 낮다. 고기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증가로 합병증이 우려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극 권할 만하다.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 속의 성분 덕분에 항암, 골다공증 예방, 고혈압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레시틴은 뇌의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뇌의 노화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와 함께 두부는 장을 자극하여 통변을 도우며 혈전을 예방한다. 두부에 포함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암과 에이즈의 발병 억제 효과 등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완전식품인 두부에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 A·C이다. 섬유소도 100g당 0.2g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두부를 먹을 때에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은 야채와 같이 섭취하여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두부는 생으로 먹되, 해조류나 야채와 같이 섭취하거나, 살짝 데쳐서 양념장에 조금 찍어 먹거나 두부 종류를 달리 하여 먹는 것도 쉽게 질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다. <br/> <br/>양향자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1-174.txt

제목: 한국ICT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사람이 문제다’ 세미나 개최  
날짜: 20170914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4030547002  
ID: 01100701.20170914030547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한국ICT산업협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4차 산업에 대한 각계 각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명과 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토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ICT산업협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4차 산업에 대한 각계 각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명과 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토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br/> <br/>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최삼하 서강대학교 MTEC 교수가 ‘4차산업과 게임 - 귤화위지(한국이 탱자가 되는 동안 중국은 귤이 됐다)’ ▲ 지윤성 링크브릭스 의장이 ‘4차산업과 빅데이터 - 빅데이터 최종은 사람이 한다’ ▲신일균 비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4차산업과 지적재산권”을 각각 발표했다. <br/> <br/>민경용 한국ICT산업협회 부회장(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 강명국(SPOTV 부사장), 김정겸 교수(문사철 인문학 연구소장/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윤상용 교수(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포츠전공)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br/> <br/> 한국ICT산업협회 위성진 회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4차산업혁명, 사람이 문제다’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으로 토론도 이루어졌다. <br/> <br/>‘사람의 관점으로 4차산업 혁명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람이 없는 4차산업혁명은 의미가 없으며 이로 인한 인력조정 등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br/> <br/>한국ICT산업협회 위성진 회장은 “<span class='quot0'>이제 4차산업혁명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span>” 라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사람이 없는 기술발전은 의미가 없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이 무엇보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span>” 고 밝혔다.  <br/> <br/>사진=한국ICT산업협회 제공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5.txt

제목: 문신할 때 사용되는 색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날짜: 20170913  
기자: 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3114131001  
ID: 01100701.2017091311413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문신 사진. 출처=데일리메일 <br/>문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영국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12일 유럽 싱크로트론 방사선 시설(HISC) 소속 하이람 카스티요연구진의 문신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br/> <br/>그는 "문신 잉크의 화학물질이 혈류를 타고 림프 절에 축적되어 부어올라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br/> <br/>연구는 강한 X레이를 활용해 문신을 한 피부의 리프절 조직 속 이산화 티타늄 등 중금속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br/> <br/>연구진은 미세한 이산화 티타늄 조각이 피부에 있다면 림프절이 부풀어 올라 감염과 싸우고 병원균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다고 설명했다. <br/> <br/>연구에 참여한 버나드 헤세는 “피부 속 림프절도 문신의 색소로 착색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색체에 담긴 화학적 물질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했었다”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전했다. <br/> <br/>연구가 다룬 이산화 티타늄은 문신 잉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지난 6월 유럽물질화학청은 이산화 티타늄을 흡입할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6.txt

제목: "희귀병 앓는 ★들"…문근영·한지민·김우빈·구혜선  
날짜: 20170912  
기자: 한누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2102156001  
ID: 01100701.2017091210215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이름도 생소한 질환 투병 사실로 팬들의 걱정을 샀던 (왼쪽 부터) 구혜선, 문근영, 한지민의 모습.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br/>급성구획증후군, 비인두암, 메니에르병 등 이름도 생소한 질환을 겪고 있는 스타들이 있다. 배우 문근영과 한지민, 김우빈, 구혜선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공개한 후 팬들의 걱정을 자아낸 바 있다.  <br/> <br/>희귀병 딛고 복귀한 한지민과 문근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혜선과 김우빈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br/>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br/>문근영은 지난 2월 오른쪽 팔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급성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4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br/> <br/>'급성구획증후군'이란 신체의 근육을 감싼 근막들의 구획 안의 압력에 이상이 생겨 근육, 신경, 혈관 등이 손상을 받는 현상이다. <br/> <br/>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문근영은 지난 11일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희귀병 딛고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인 문근영에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br/>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br/>김우빈은 영화 '도청'에 캐스팅 돼 촬영을 준비했으나,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활동을 중단,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다. <br/> <br/>'비인두암'은 1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한 병으로 코 뒷부분에서 입천장까지 악성 종양이 생겨서 발생하는 암이다. <br/> <br/>소속사 싸이더스HQ는 "김우빈이 1차 항암 치료를 마쳤다. 운동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span class='quot0'>며 </span>"몸무게가 10㎏이 빠져 현재 60㎏ 초반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병 생활이 고됐음을 짐작게 했다.   <br/>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br/>구혜선이 MBC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출연 중 어지럼증과 간헐적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br/> <br/>원인은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심한 전신적인 과민반응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방송에서 하차했다. <br/> <br/>남편 안재현은 tvN '신서유기4' 제작발표회에서 구혜선의 상태에 대해 "건강한 생활을 하<span class='quot0'>며 </span>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span class='quot0'>며 </span>"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돕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br/>또한 한지민은 10만 명 중 4명이 앓는 희귀병 '메니에르 증후군'을 앓았다. 이 병은 현기증과 어지러움, 이명 현상을 동반하<span class='quot0'>며 </span>균형 감각의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br/> <br/>한지민은 2008년 7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4년간 투병 생활 끝에 2011년 영화 '조선명탐정'으로 활동을 재기했다. <br/> <br/>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지민은 "'메니에르 증후군'은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는 것"이라<span class='quot0'>며 </span>"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완치가 어렵지만 그만큼 밝게 살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pan class='quot0'>며 </span>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br/> <br/>뉴스팀 han62@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7.txt

제목: 실체드러난 이명박정부 국정원 좌파연예인 블랙리스트  
날짜: 20170911  
기자: 박성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1181357001  
ID: 01100701.20170911181357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11일 이명박 정부 시기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로 이뤄진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한 결과 총 82명의 문화계 인사들이 정부 비판세력으로 지목돼 방송퇴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김미화, 김제동, 윤도현, 고 신해철, 김장훈씨 등 이미 블랙리스트 등재 사실이 알려진 인사가 다수 포함된 이 명단에는 방송인 김구라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당시 청와대에선 문화ㆍ연예계와 관련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 (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 (2011년 12월, 민정ㆍ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ㆍ학자ㆍ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로 국정원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에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다양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br/> <br/>그 결과 여러 방송프로그램 진행자·패널이 교체되거나 심지어 폐지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2010년 4월 김제동씨가 진행하던 MBC ‘환상의 짝궁’이 폐지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br/> <br/>국정원 심리전단은 또 온라인상에서 특정 연예인의 종북성향 폭로,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이 암적 존재’ 부각, 댓글ㆍ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ㆍ부도덕 행적 확산,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 ‘모델교체’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0월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글ㆍ댓글을 게재했다. 또 2011년 5월에는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까지 벌였다는게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다. <br/> <br/>국정원 개혁위는 이같은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ㆍ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78.txt

제목: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최악의 음식궁합'  
날짜: 20170911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1164918001  
ID: 01100701.2017091116491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간편하면서도 맛 좋은 김밥은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메뉴다. 최근에는 치즈나 돈가스, 새우, 치즈 등 차별화된 속 재료를 채워 특별한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김밥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다.   바로 오이와 시금치, 당근, 달걀 등인데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함께 먹을 경우 당근의 영양성분이 오이 속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많다. 함께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 궁합을 알아봤다. <br/> <br/>1. 소고기와 버터 <br/> <br/>소고기는 아이들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 라이신이 풍부한 식품이다. 육체를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정서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철분 또한 풍부해 이유식에 자주 쓰인다. 맛 좋은 소고기는 몸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소고기를 먹을 때 풍미를 더하는 버터를 팬에 두르고 굽거나 버터를 활용해 요리에 활용할 때가 많다. 하지만 소고기와 버터는 함께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리법은 아니다. 심할 경우 순환기 관련 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r/> <br/>건강을 위해서는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소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양파나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 양파는 매운맛을 내는 유화프로필 성분이 지방의 합성을 막아주고 깻잎에 풍부한 비타민A는 소고기의 부족한 영양 성분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br/> <br/>2. 감기약과 치즈 빵 <br/> <br/>얼핏 관련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건강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다. 약 먹기 전 뭐라도 먹는 다는 것이 치즈 빵이었다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즈 빵을 먹고 코감기약을 먹으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빵과 함께 해열진통제를 먹으면 소화기능이 약화된다. 두 가지 모두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려 약 효과 역시 떨어진다.  감기약을 복용할 땐 커피나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들과 함께 감기약을 먹으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우유 등 칼슘 성분이 많은 식품 역시 일부 항생제와 항진균제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3. 시금치와 두부 <br/> <br/>시금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을 좋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철분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빈혈을 예방하고, 육류의 간, 등푸른 생선, 조개류 등 비타민B12가 들어간 음식과 함께 자주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br/>이렇듯 몸에 이로운 시금치는 두부와는 상극이다. 두부는 칼슘과 합쳐지면 수산칼슘을 만들어내는데,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br/> <br/>4. 빵과 오렌지 주스 <br/>빵을 먹을 때 우유나 커피, 주스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 오렌지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 속 전분을 분해해 소화하는 것은 침에서 나오는 분해효소인 아밀라아제다. 산성도가 2~2pH인 오렌지 주스는 전분의 분해 효소를 막아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든다. <br/> <br/>5. 삼겹살과 소주 <br/>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회식 메뉴가 바로 삼겹살+소주다. 하지만 소주는 몸의 체온을 높여 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기름진 삼겹살과 상극이다. 도수가 높은 술을 먹을 때는 과일이나 채소 안주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언론사: 세계일보-1-179.txt

제목: 전북대 국성호 교수, 태반 줄기세포로 암치료 가능성 제시  
날짜: 20170911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11030342002  
ID: 01100701.2017091103034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북대학교는 대학원 국성호 교수(생리활성소재과학과·사진)팀이 태반에서 분리한 조혈줄기세포로 암치료가 가능하다는 기능적 특징을 증명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조혈줄기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백혈병 환자나 암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태반은 탯줄을 이용해 태아의 혈류로 산소를 이동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영양분 전달, 태아에서 생성되는 분비물 제거와 호르몬 생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연구팀은 이런 태반에서 ‘P2Y14 단백질’ 발현을 이용해 기능적 활성을 가지는 조혈줄기세포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br/> <br/>이어 분리된 조혈줄기세포를 성인 생쥐에 이식시키는 실험을 통해 다양한 혈액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차원 분화 능력을 확인했다. 또 이식된 줄기세포가 미분화 상태로 반복 분열해 자신을 만들어 내는 ‘자가재생 능력’까지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 <br/>이번 연구 성과 혈액종양내과 분야 국제 권위 학술지인 루케미아(Leukemia) 최근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국 교수는 “<span class='quot0'>성체 생쥐의 골수에서 유래된 조혈줄기세포에서 ‘P2Y14 단백질’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더 좋은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0.txt

제목: 환절기 건강 지키는 '예방접종 삼총사'  
날짜: 20170909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9124639001  
ID: 01100701.2017090912463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을이 되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졌다. 면역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큰 일교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가을철엔 인플루엔자 외에도 미세먼지, 건조한 날씨 등이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br/> <br/>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절기에는 어린아이, 노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병세가 악화되거나 뜻밖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대비해 필요한 백신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span>”고 권고했다. 환절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접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br/> <br/>◆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r/> <br/>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년 유행할 인플루엔자 유형을 예측하고, 약제를 생산한다. 예측된 유형은 개인별 면역체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2주 후부터 면역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올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 면역 효과는 약 6개월간 70~90% 지속된다. <br/> <br/>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전염되는 비말 감염질환이다. 감염력이 매우 높아 전체 성인의 10%, 소아는 30% 감염된다. 기침, 목통증 등 호흡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고열, 두통, 전신근육통, 설사, 복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부분 일주일 전후로 호전되지만 △2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의 노년층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은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 환자는 심하면 사망으로에 이를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95%가 50세 이상이다.  <br/> <br/>◆폐렴구균백신 <br/> <br/>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기관지 및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렴은 암이나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하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718명으로 2011년 대비 약 71% 증가했다. <br/> <br/>폐렴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폐렴구균백신 접종이다. 건강한 성인은 65세 이후 1회 접종을 하면 되지만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같은 만성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꼭 맞아야 한다. 이전에 폐렴구군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면 인플루엔자와 함께 접종하는 것도 좋다. <br/> <br/>◆대상포진 예방접종 <br/> <br/>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다.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 발병한다. 신체 한쪽 부위의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한다. 주로 배나 가슴 부위에 증상이 생기고 얼굴, 목 부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상포진 역시 예방접종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1회 접종으로 60~7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데는 예방접종과 함께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환경부 인증 미세먼지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1'>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음식 등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1.txt

제목: [김기환의 완벽한 쇼핑] '한국의 힘' 김치… 더 맛있게 더 알뜰하게 먹는다  
날짜: 20170909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9123206001  
ID: 01100701.20170909123206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다.  <br/> <br/>김치는 지역과 김치 재료의 종류와 특성 및 담그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200여 종 이상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 미국의 건강전문지인 ‘헬스(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 김치는 비타민(B1, B2, C 등)과 무기질(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고 소화를 도우며 암 예방에 유익하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br/> <br/>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의 역사는 3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r/> <br/>김치는 3000년전부터 한반도에서 먹기 시작했으며, 고춧가루와 젓갈을 사용한 현재의 김치는 조선시대부터다.  <br/> <br/>김치는 면역력 강화, 항암효과, 비만과 변비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발효식품인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 함량은 약 1억 마리(김치1ｇ당). 일반 발효유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하고 있다.  <br/> <br/>김치유산균은 식물성 유산균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잘 자라며, 동양인의 체질에 더 잘 맞는다고 한다. <br/> <br/>현재 시중에서 선보이는 김치는 30∼40여개 품목이다. 이 중 연중 판매하는 규격제품은 10여개 품목이다. <br/> <br/> 포기김치도 중부식과 남도식으로 구분돼 있고, 배추김치 외에도 총각김치, 열무김치, 백김치, 갓김치, 맛김치, 어린이김치, 깍두기, 동치미, 백열무, 나박김치, 묵은지, 파김치 등 다양하다.  <br/> <br/>1∼2인 가구 증가로 김치를 사먹는 가정이 늘면서 대형마트에서 직접 담가 판매하는 실연제품도 인기다.  <br/> <br/>포기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백김치, 총각김치, 돌산갓김치, 통얼갈이, 모듬맛김치, 나박김치, 고들빼기, 파김치, 동치미, 남도김치, 묵은지, 홍갓동치미, 순총각볶음, 홍초마늘지, 양념깻잎지 등은 연중 상시 만나볼수 있다.  <br/> <br/>계절에 따라 봄동달래, 연배추겉절이, 아삭고추, 백열무, 양파소박이, 삼채겉절이, 백오이물김치, 달래김치 등 별미도 맛볼 수 있다.  <br/> <br/> 최근에는 개인별 맞춤형 김치가 인기다. <br/> <br/>포장김치 1위 브랜드 종가집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서비스다. 양념은 물론 용량까지 고객이 직접 선택해 내 입맛에 맞는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는 정원e샵 홈페이지 상단의 ‘나만의 김치’를 클릭해 들어가면 멸치액젓, 새우젓 등 젓갈뿐 아니라 소금, 고춧가루 첨가 여부와 양을 고를 수 있다.  <br/> <br/>각각의 액젓, 고춧가루 양에 따라 어떤 맛을 더할 수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나와 쉽게 선택할 수 있다.  <br/> <br/>기호에 따라 양념을 선택해 젓갈의 강도, 매운맛 강도 등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3kg 용량의 제품을 필요한 수량 만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br/> <br/>공항배송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br/> <br/>종가집이 선보이고 있는 공항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김치를 공항까지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공항배송을 신청하면 출국일에 공항에서 곧바로 수령할 수 있다. 별도 포장 없이 곧바로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패킹을 제공해 냄새 걱정도 없다.  <br/> <br/>그럼 지금부터 김치를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r/> <br/> 사진=연합뉴스첫번째는, 대형마트 할인판매를 이용해보자. <br/> <br/>대형마트들은 1차(1~2주차)와 2차(3~4주차)로 나눠 매월 30％ 정도 김치 제품을 할인판매한다. 고객이 마트를 찾았는데, 할인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할인을 기다리면 된다.  <br/> <br/>여기서 한가지 더 팁을 주자면, 소용량 제품을 여러개 구매하는 것보다 대용량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br/> <br/>소용량 제품에 주로 활용되는 파우치나 컵트레이 등 밀봉된 패키지는 과세 대상이고, 대용량 제품에 활용되는 비닐 포장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br/> <br/>두번째는, 온라인과 홈쇼핑 주문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판매금액에 따라 약 20％ 가량의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이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2.txt

제목: [해외여행 알고 떠나자] (6) 복용 의약품은 6병까지 세금 없이 통관  
날짜: 20170908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8130300002  
ID: 01100701.20170908130300002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br/> <br/> 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의약품을 사서 돌아오는 이들이 종종 있다. 현지 관광 가이드의 권고나 과대광고 등에 현혹돼 구입하기도 한다. <br/> <br/>해외에서 가져오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약효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br/> <br/>실제 2015년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20종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다. 로라제팜이나 거통편 등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됐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생초에서는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돼 반입이 금지됐다. 최근에도 암 예방이나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마 오일과 양귀비 씨앗을 들여오고 있는데 몇몇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됐다. <br/> <br/>세관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크지 않고 여행자가 직접 복용하는 의약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총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6병이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을 통관해준다. 건강기능식품의 통관 범위도 6병이다. <br/> <br/>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은 금액이 2000달러 이하면 여행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수입요건 면제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될 수 있다. 면제추천서를 받지 못하거나 2000달러를 넘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br/> <br/>비아그라나 근력강화제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면세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가져올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1알도 반입이 금지된다. <br/> <br/>생약제제를 살펴보면 모발재생제는 100㎖ 2병, 제조환은 8g짜리 20병, 우황청심환은 30알, 소염제는 ‘50T’ 3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알고 구입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해외여행 시 과대광고나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의약품은 성분을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br/> <br/>\*이 기고는 관세청과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언론사: 세계일보-1-183.txt

제목: 로봇도 '과로사'하는 일본…분노한 직장인 "장시간 노동 강요는 살인행위"  
날짜: 2017090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7101348001  
ID: 01100701.2017090710134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일본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장시간 근로를 견디지 못하고 수명을 다했다. <br/>최근 소셜 미디어(SNS)에는 회사 안내 역할을 담당해온 로봇이 장시간 노동으로 도입 1년도 되지 않아 과로사했다는 글이 게재돼 직장인들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br/> <br/>자신을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span class='quot0'>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까지 무리한 사용을 이어온 결과 로봇이 단 11개월 만에 고장 났다</span>"며 "<span class='quot0'>로봇 고장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도 같은 노동을 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어 "모두가 쉬는 휴일조차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새로운 로봇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또 고장 날 것이 분명하다"는 글을 덧붙였다. <br/> 로봇도 장시간 사용을 견디지 못하고 단명했다. 직장인들은 사람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입장이다.처음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시작된 글은 상황을 공감한 직장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br/> <br/>그들은 폐기될 로봇이 마치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소모품처럼 사용되다 과로사하면 회사는 돈 봉투를 건넬 뿐 피해는 온전히 근로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br/> <br/>그러면서 기계조차 버티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 강요는 암묵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사회 곳곳에 암처럼 퍼진 장시간 근로 관행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라져야 할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br/> <br/>한편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는 것도 매우 큰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한다며 재충전의 기회조차 빼앗는 것 역시 문제라고 분노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SNS캡처

언론사: 세계일보-1-184.txt

제목: [연중기획 - 지구의 미래] 뜸해진 '오존층 파괴' 소식… 걱정 끝내도 될까  
날짜: 20170906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6213240001  
ID: 01100701.2017090621324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00년 관측된 남극 지방의 파괴된 오존층과 2015년 10월에 촬영한 남극 오존 구멍. <br/>자료사진언제부턴가 ‘오존층 파괴’ 소식이 뜸해졌다. 착각일까 싶어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 오존층 파괴(ozone depletion)에 대한 관심도는 2004년의 15%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br/> <br/>그도 그럴 것이 1985년 세계적인 과학잡지 네이처에 ‘남극에서 커다란 오존 손실이 발견됐다’는 영국 과학진의 논문이 발표된 지 불과 2년 만에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이 채택됐고, 그 결과 현재 오존층 파괴물질(ODS) 배출량은 눈에 띄게 감축됐다. 몬트리올의정서를 ‘가장 환경적인 국제환경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br/> <br/>그럼 이제 오존층 파괴 문제는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것일까. 지구온난화와는 관련이 없을까. <br/>오는 16일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자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된 지 정확히 30년 되는 날이다. 세계에 남극 오존홀의 존재를 알린 영국 연구팀 3인방 가운데 현재까지 학계에서 몸담고 있는 조너선 섕클린(64) 영국남극연구소(BAS) 전 기상·오존감시단장(현재 BAS 명예연구원)을 이메일로 만났다. <br/>-연구팀에서 막내였는데, 팀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가. <br/> <br/>“(1970년대 중반) BAS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기상학에 흥미가 있는 물리학도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케임브리지대에서 자연과학을, 그중에서도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포트란(컴퓨터언어)을 쓸 줄 알았고, 집에 기상관측기도 설치한 경험이 있었죠.” <br/> <br/> 조너선 섕클린 전 영국남극연구소(BAS) 단장이 2012년 남극 핼리 6기지에서 오존 관측을 하고 있다. <br/>섕클린 제공-사실 그 무렵 미항공우주국(NASA)도 위성으로 지구오존층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오존홀을 발견하지 못했다. BAS팀은 어떻게 오존층 파괴를 발견한 건지. <br/> <br/>“우리 연구팀은 남극에서 오존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장비는 영국 물리학자 겸 기상학자인 조지 돕슨 교수가 보내온 것이에요. 남극 관측은 국제지구물리의 해가 지정된 1957∼1958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오존홀을 발견할 때쯤(1980년 전후)에는 관측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관측을 해도 오존농도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말씀하신 대로 NASA도 오존 위성관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NASA의 위성관측과 우리의 지상관측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성은 광범위한 지역을 살필 수 있지만 측정값에 변동성이 크죠. 반대로 지상관측은 측정지역은 좁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자료를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NASA와 협업했는데 봄철 오존값이 굉장히 낮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NASA에 이 값을 위성으로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서신을 보냈는데 다행스럽게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짐작컨대 그들이 쓰는 컴퓨터가 특정값 이하의 관측값은 (오류로 판단해) 자동적으로 버렸는데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봄철 남극 오존홀이 측정 오류가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걸 발견했고, 조 파먼 박사(네이처 논문 제1저자. 2013년 타계)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덧붙여 논문으로 내놨죠.” <br/> <br/>오존은 산소원자 3개가 붙어 있는 분자를 말하는데 15∼50㎞ 높이의 성층권에 모여 있다. 오존은 공기 분자 100만개당 1개에 불과할 만큼 적은 양이지만 태양에서 쏟아지는 해로운 자외선 대부분을 막아준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건 오존층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오존층이 인간활동에 의해 심각할 만큼 파괴됐다는 사실은 과학계를 비롯한 세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논문 발표 2년 뒤인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을 줄이자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됐고, 2년 후 발효됐다. 국제사회는 1990년 런던개정안과 코펜하겐, 빈, 몬트리올, 베이징에 이어 지난해 키갈리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파괴물질 단속 수위를 높여나가는 중이다.  <br/> <br/> 1982년 남극 핼리기지를 처음 찾은 조너선 섕클린 전 영국남극연구소(BAS) 단장이 관측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이때부터 2012년까지 남극을 14차례 방문했다. 1985년 남극 오존홀을 발견한 ‘3인방’인 조 파먼과 브라이언 가드너, 조너선 섕클린(왼쪽부터)이 2004년 영국남극연구소(BAS)에서 오존 관측장비인 돕슨 분광광도계 옆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몬트리올의정서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br/> <br/>“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오존홀’이라는 명칭이 한몫했을 겁니다. ‘홀’(구멍)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나쁜 것, 메워야 할 것으로 여겨지죠.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단 뜻입니다. 또 오존홀은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체할 만한 화학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조사들은 새 대체물질을 팔 수 있어 좋고, 시민들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생활방식을 바꾸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던 거죠.” <br/> <br/>오존은 대부분 자외선이 강한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지지만,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택배상자처럼 ‘브루어 돕슨 순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기 움직임에 실려 극지방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오존 농도는 극지방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존홀이 발생하는 곳 역시 극지방, 특히 남극이 심각하다. 이는 남극의 겨울(6∼9월)에 만들어지는 ‘성층권 구름’ 때문이다. 성층권 구름 표면에서는 ‘일산화염소(ClO)’가 만들어지고, 무자비하다 싶을 만큼 오존층을 파괴한다. 염소원자 1개는 최대 수만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협약은 이 같은 염소와 그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브롬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다. <br/> <br/> 조너선 섕클린 전 영국남극연구소(BAS) 단장이 2006년 버드아일랜드에 자동기상관측망(AWS)을 설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50년쯤이면 오존홀이 없어질 거라는 연구 결과를 봤다. 동의하시는지. <br/> <br/>“회복시점은 2050년보다 더 늦춰질 겁니다. 산업활동으로 늘어난 이산화탄소와의 상호작용, 화산폭발 같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1991년 일어난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오존층 파괴물질이 크게 늘어났는데, 사실 피나투보 화산은 지난 1만년의 시간에서 보면 소규모였습니다. 피나투보를 능가하는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오존층뿐 아니라 다른 환경문제도 일으킬 수 있죠.” <br/> <br/>-그런데 화산 폭발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br/> <br/>“그렇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물질을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 물질을 계속 늘려야 하는 것이죠.” <br/> <br/>오존층 파괴는 지구온난화와도 관계가 깊다. 흔히 ‘지구온난화=더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성층권은 더 추워진다. 온실기체가 지표면에 더 많은 열을 내보내는 만큼(지표 온도 상승) 성층권 몫은 줄기 때문이다. 성층권이 추워지면 앞서 말한 성층권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오존층 파괴도 촉진될 수 있다. 오존층을 보호하자고 한 일이 온난화를 부르기도 한다. 일례로, HFC-23이라고 하는 대체물질은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는 대신 이산화탄소보다 1만3000배나 강력하게 온난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섕클린은 섣불리 ‘오존층 파괴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br/> <br/>-오존층 발견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br/> <br/>“오존홀 발견은 지구 대기가 단기간에 얼마나 극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남극) 오존층이 50% 파괴되기까지 10년 남짓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공기에 무언가를 배출할 때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난 아직도 우리 인류가 이런 교훈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br/> <br/>그는 어릴 적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혜성 6개를 발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역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를 나간다. 식물종 기록가이기도 하다. 일상에서도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고민과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는 그는 이렇게 당부했다. <br/> <br/>“환경문제의 기본은 ‘사전예방 원칙’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은 공기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5.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심부전 있으면 뇌졸중 위험 4배”  
날짜: 20170906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6101301001  
ID: 01100701.20170906101301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한다. 이 뇌졸중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심부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순환기내과 강시혁, 최동주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심부전 환자의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6일 밝혔다.  <br/> <br/>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린다. 심근경색, 협심증 등 각종 심장질환으로 인해 심장에 손상이 축적되면 결국에는 신체 조직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인 심부전으로 발전하기 때문인데, 한 번 발병한 후에는 완치가 어렵고 5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해 대부분의 암보다 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 (왼쪽부터)강시혁, 최동주 교수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대표적 증상이 호흡곤란과 부종, 피로감 등이어서 환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부전은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할 수 있어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br/> <br/>연구팀은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인 뇌졸중과 심부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9만7000명의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부전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연간 2.2%로 일반인의 0.6%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r/> <br/>같은 심부전 환자 중에서도 고령,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과거력이 뇌졸중 위험을 더욱 높이는 위험요소임이 확인됐다. 실제로 65세 이상 심부전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2배였고,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3배까지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 고혈압이 있는 심부전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1.41배, 당뇨가 있으면 1.36배, 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1.58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br/> <br/>또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방세동’을 동반한 심부전 환자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특히 더 높다고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이번 연구를 주도한 강시혁 교수는 “<span class='quot0'>노인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심부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국내 심부전 환자가 1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평소 심부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뇌졸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연구는 ‘국제심장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를 통해 발표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6.txt

제목: 유병장수 시대에… 생활비 주는 보험이 ‘효자’  
날짜: 20170906  
기자: 백소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6030929001  
ID: 01100701.20170906030929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최근 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미리 가입해뒀던 암보험의 보험금으로 목돈 대신 매달 생활비를 받기로 했다. 다행히 초기에 암을 발견해 완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A씨는 진단금 1000만원과 함께 앞으로 생존 시 최대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받게 돼 일시금(4000만원)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최근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라 실손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진 반면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유병장수시대를 맞아 암 등의 환자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일시적인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주로 암보험에 집중됐던 생활비 지급형 보험을 종신보험, 변액보험까지 다양하게 결합해 출시하고 있다. <br/> <br/>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고액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통적인 형태대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따로 지급해 예상치 못했던 소득공백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다. <br/> <br/>의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치명적으로 간주됐던 암 등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br/> <br/>특히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면서 최대 환자 부담금만큼만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매력이 줄어들었지만 진단비나 생활비를 주는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br/> <br/> <br/>한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암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70%에 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환자들이 최초 진단 시는 물론 치료와 요양, 이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장기간 대비가 필요해졌다</span>”고 말했다. <br/> <br/>생활비 지급형 보험상품은 목돈을 한번에 받는 대신 생활비로 쪼개받을 경우 생존 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대체로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조기 사망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생활비와 진단금을 여러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br/> <br/>이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 가입 목적과 현재 경제수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활비만 지급하는 상품인지, 진단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급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보장받는 정도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br/> <br/>기본적으로 생활비 지급형 보험은 큰 병에 걸려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월 소득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전’ 목적이 크다. 당장 목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생활비보다는 진단금이 큰 보험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특히 일부 상품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신 보장금액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돈을 받고 싶다면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br/> <br/>또한 특약을 통해 추가생활비 등 다양한 보장을 부가할 수 있어 어떠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ABL생명의 ‘(무)더나은암보험(갱신형)’은 암 진단 시 일시진단금에 더해 진단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계속 살아 있을 경우 매월 3년 또는 4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특약을 통해 소액암 진단, 암 사망, 추가 생활자금에 대해서도 보장해준다. <br/> <br/>메리츠화재의 ‘매월 계속 받는 암치료보험’은 암 진단 시 1년 동안 매달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1년 단위로 보험금 지급을 연장해주며, 암이 여러 번 재발해도 최장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NH농협생명의 ‘생활비 받는 암보험’은 생활비를 최대 200만원씩 24회 확정지급하며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 <br/> <br/>신한생명의 ‘무배당 신한 당뇨엔 두배받는 건강보험’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당뇨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당뇨관리자금을 지급하고 합병증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가입금액의 2배를 진단금으로 지급한다. <br/> <br/>종신보험에도 생활비 지급 기능이 도입되고 있다. 주보험 가입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자동으로 감액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의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한창 일을 하는 활동기엔 사망보장을,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은퇴 시점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20년 동안 생활자금을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생활자금 자동인출’ 기능이 있으며, 실제 은퇴시점에서의 적립금이 예정이율(2.5%)로 산출한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2.5%로 산출한 예정 적립금을 기초로 생활자금을 보증 지급한다. <br/> <br/>ING생명의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도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에 생활비 보장을 더해 미리 설정한 생활자금 개시시점 이후 최대 20년 동안 매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br/> <br/>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7.txt

제목: 경남 진주시 암환자 희망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날짜: 20170906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6030612001  
ID: 01100701.20170906030612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경남 진주시가 재가 암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br/> <br/>참여 대상은 재가 암환자 및 가족으로 모집인원은 3기 25명, 4기 25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순위 건강보험가입자, 3순위는 기타 희망자 순이다. 모집기간은 9월 8일까지이다. <br/> <br/>프로그램 기간은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주간 주3회(월, 화, 수)이다.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천전동 소재)에서 3기는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4기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br/> <br/>이번 프로그램은 암의 이해, 마음 다스리기(명상, 다도, 원예요법), 영양관리, 힐링캠프, 운동교실 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8.txt

제목: 배우 최여진 등 ‘암예방’ 홍보대사  
날짜: 20170905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5220608001  
ID: 01100701.20170905220608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배우 최여진(사진)과 웹툰작가 양경수, 의사 양재진, 요리사 장진우씨가 ‘암예방 4인4색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식습관(장진우), 사내 금주문화(양경수), 운동(최여진), 암검진(양재진)’을 주제로 암예방 인식 향상과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에 이들이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br/> <br/>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0'>암은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홍보대사들이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89.txt

제목: 전직 보험왕 주도 수천억원대 불법유사수신행위 수사 탄력  
날짜: 20170905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5153203001  
ID: 01100701.2017090515320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전직 보험왕과 그 일가족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보험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정확한 피해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초기 경찰에 확인된 피해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5일 천안서북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주범인 전직 보험왕이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진정과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br/> <br/>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일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왕으로 한 때 보험업계의 신화적 존재였던 이모(38·여)씨와 이씨의 어머니 박모(58)씨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천안서북경찰은 지난 8월초 이씨의 외삼촌 박모(46)씨와 이씨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본부장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일가족 등은 돈의 투자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험왕 출신인 자신 등을 믿고 무조건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을 기본으로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돈을 끌어 모은 뒤 원금과 이자 등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구속된 이씨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보험업계에 뛰어들어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의 꽃이라 불리는 COT(Court of the Talbe)를 6년 연속 수상한 인물이다. COT는 보험금 기준으로 연간 300만달러(33억원)이상을 계약한 보험설계사를 이르는 말이다. <br/> <br/>보험영업수수료 등으로 큰 돈을 벌면서 이씨는 한때 보험업계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외국계 보험회사를 퇴사한 이씨는 서울 강남에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보험영업대리점 AB&I, ABC라이프 설립에 참여하고 전국에 본부와 지점을 개설했다. 이씨는 이곳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보험상품가입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았다.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돈으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호텔 인수와 상장회사 인수합병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거액의 투자자가 포함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2∼3년전부터 유사수신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 4월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r/> <br/>피해자 A(39?여)씨는 “슈퍼카를 몇대나 굴리면서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보험왕이 돈을 굴려 준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식당종업원 등으로 15년간 일하면서 모은 돈과 전세금 등 가진 재산 모두를 건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자 암에 걸린 동생이 받은 보험금까지 투자하게 됐다”고 울먹였다. A씨는 이씨에게 건낸 돈이 3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br/> <br/>또다른 피해자 B씨는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씨가 검거되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액이 다 드러나면 금액규모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상당기간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던 이씨와 그 가족들은 경찰외에도 거액의 투자자 등 피해자들이 고용한 흥신소 관계자들의 추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씨 모녀를 잡기 위해 거액의 사례금을 걸고 민간 차원의 현상수배 전단까지 준비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금융거래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span>”고 밝혔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90.txt

제목: “전립선비대증 앓는다고 암으로 진행하지 않아”  
날짜: 20170904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4030503002  
ID: 01100701.2017090403050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인 전립선은 평상시에는 배뇨와 생식기능에 관여한다. 전립선도 50~60대부터는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주요 질환으로는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비대증’과 암이 발생하는 ‘전립선암’이 있다. <br/> <br/>전립선의 무게는 15~20g이며, 길이는 4㎝, 폭은 2㎝ 정도로 호두만 한 크기이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은 정자의 영양분이 된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질환으로 최대 5배 이상 커지기도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요로를 압박해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보고 나서도 시원한 느낌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은 전립선 비대의 주요 증상이다. 또한 발기부전과 심한 경우에는 방광기능 저하, 신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초기에는 약물로 치료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비대된 전립선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br/> <br/> <br/>전립선암은 초기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는 ‘착한 암’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br/> <br/>최용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비대증은 조직을 구성하는 정상 세포가 증식해 부피가 커진 것이고, 전립선암은 정상 세포에 변이가 발생해 암세포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나타날 수는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40대 이상 남성의 경우 1년에 한번,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를 통해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91.txt

제목: 美의학지, "내장지방 많은 뱃살 암 걸릴 확률 높아" 이유 규명  
날짜: 20170903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3105100001  
ID: 01100701.201709031051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복부비만, 정확하게는 내장지방이 많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이유가 규명됐다. <br/> <br/>복강과 그 속의 각종 장기 등에 기름이 낀, 즉 내장지방이 많으면 간경변, 당뇨 등의 질환에 걸리거나 여러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br/> <br/>그러나 생체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암이 유발되는지는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br/> <br/>의학매체 메디컬뉴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대학 제이미 버나드 교수팀은 내장지방이 건강한 세포를 암성 세포로 바뀌게 하는 특정 단백질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br/> <br/>버나드 교수는 피부 바로 아래층에 자리 잡는 피하지방에 비해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 역할만 하지 않고 대사활동이 더 활발하며 각종 염증성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한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상피세포의 암 성장과 생체 내 내장지방 조직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지방식을 잔뜩 먹인 쥐에게 암세포 형성을 유발하는 자외선B광선을 일정 시간 쏘았다. <br/> <br/>그 다음 복부 지방 제거 수술을 해 세포를 분석한 결과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섬유아세포성장촉진인자-2(FGF2)를 훨씬 많이 생성한 것을 발견했다.  <br/> <br/>FGF는 조직의 재생과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지만 FGF2는 암 발생과도 관련될 수 있다.  <br/> <br/>연구팀이 추가 분석한 결과 내장지방에 의해 많이 분비된 FGF2는 자외선B광선 때문에 이미 FGF2에 취약해진 피부와 유방 세포 등을 암 세포로 바뀌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비만한 사람의 지방을 쥐에게 이식한 결과 내장지방 조직의 종양 형성 촉진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팀은 따라서 비만한 사람, 특히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이 유방, 췌장, 전립선, 요로 등 특정 암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외에 FGF2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r/> <br/>버나드 교수는 물론 암 발생에는 내장지방 외에 유전과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추려면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을 하고 흡연 등  위험요소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92.txt

제목: 장동민, 악플러 100여명 고소 “부모님 인격 모독 참을 수 없어”  
날짜: 20170901  
기자: 이세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1153013001  
ID: 01100701.20170901153013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개그맨 장동민이 악플러 100여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br/> <br/>장동민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민과 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0여 명을 모욕죄로 서울 강동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이어 "악플러들은 장동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동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 지인 등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들을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모욕했다"고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br/> <br/>그러면서 "장동민은 자신의 방송 퇴출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원한다는 댓글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다"며 "오랜 논의 끝에 장동민을 설득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br/> <br/>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br/> <br/>안녕하세요. 개그맨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입니다. <br/> <br/>저희 코엔스타즈는 2017년 9월 1일 법무법인 태일(담당 변호사 이조로)을 통해 장동민과 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에 대하여 모욕죄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br/> <br/>악플러들은 장동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동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 지인 등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들을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일례로 "\*\*\*로 도려내자", "\*\*시름 느검마 \*\*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장동민 엄마 \*\*", "\*\*\*는 그냥 혀랑 이빨을 죄다 뽑아버려야되", "갸\*\*\*걸레\*\*\*협동민미친\*\*거", "\*\*\*\*로찍어죽여버리고싶음". "<span class='quot0'>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에 걸려서 죽길 빌어</span>" 등 악플러들의 언사는 이미 수인하고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br/> <br/>또한, 소속사는 일부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장동민을 "한남충"의 대명사로 지목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온라인상에서 대두되고 있는 남녀간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br/> <br/>현재도 악플러들은 장동민의 방송 활동에 관한 기사 링크를 걸어 공유하며(일명 ‘좌표찍기’) 기사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출연하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욕설을 도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성 댓글 및 게시글들은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장동민은 자신의 방송 퇴출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원한다는 댓글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 <br/> <br/>이에 소속사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장동민을 설득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코엔스타즈는 장동민을 비롯하여 모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법적대응 할 예정입니다. <br/> <br/>이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건전한 댓글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br/> <br/>감사합니다. <br/> <br/>이세용 인턴기자 bigego49@segye.com <br/>사진=장동민 인스타그램

언론사: 세계일보-1-193.txt

제목: [생활팁] '건강·날씬' 다 잡는 6가지 마이너스푸드  
날짜: 20170901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1142221001  
ID: 01100701.2017090114222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평생 숙제가 됐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은 갖기 위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신만의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간혹 다이어트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br/> <br/>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중을 늘게 하고 건강을 망친다. 급격한 체중 감량을 위해 '원푸드 다이어트'를 고집하거나 굶는 행동은 요요현상이나 체질 변화 등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다이어트를의 첫째 조건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다이어트 식품들을 소개한다. <br/> <br/>1. 풋사과 <br/> <br/> <br/>사과는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 솎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솎아낸 사과는 단맛이 적고 신맛이 강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풋사과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다이어트 효능이다. 풋사과에는 애플페논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활성화해 체지방 감소를 돕는다. 풋사과 껍질에는 체지방 감량과 근육 유지에 효과적인 우르솔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채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2. 토마토 <br/> <br/> <br/>토마토는 열량이 100g당 14kcal로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토마토에 든 리코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방지 및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매일 일정량의 토마토를 섭취하면 몸속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져 부기가 빠지고, 얼굴 선이 또렷해진다. <br/> <br/> 3. 아스파라거스 <br/>아스파라거스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또 칼륨이 뛰어나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춘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얼굴이 자주 붓는 사람은 아스파라거스를 챙겨 먹으면 좋다. 또 아스파라거스에 들은 글루타치온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게 한다. <br/> <br/>4. 브로콜리 <br/> <br/> <br/>블로콜리 역시 100g당 28kcal로 칼로리가 낮은 식품에 속한다. 다이어트 중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브로콜리를 꼭 챙겨 먹자.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부종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또 브로콜리에는 레몬의 2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br/> <br/>5. 오이 <br/> <br/> <br/>오이의 95% 이상은 수분으로 되어 있다. 100g당 28kcal의 적은 열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제격이다. 오이에는 비타민 A, B, C 이 다양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수분과 영양을 함께 보충할 수 있다. 오이에 들은 칼륨은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해부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br/> <br/>6. 양파 <br/> <br/> <br/>양파는 몸에 쌓인 체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다. 특히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황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탁월하다. 양파 껍질 추출물이 과체중 혹은 비만인 사람들의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껍질을 말려 차로 마시거나 양파 물로 끓여 마시면 된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언론사: 세계일보-1-194.txt

제목: 경남 하동군 암 투병 동료 돕기 발 벗고 나서  
날짜: 20170901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901102033001  
ID: 01100701.20170901102033001  
카테고리: 지역>경남  
본문: 경남 하동군청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들이 암 투병 중인 동료 공직자 돕기에 발 벗고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br/> <br/>하동군은 유방암과 뇌종양으로 힘들게 투병하며 병가 중인 동료 직원 2명에게 1일 성금을 전달하고 빨른 쾌유를 빌었다. <br/> <br/>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료 직원을 돕고자 지난달 17∼21일 자율적인 모금활동에 나서 700만원을 모았다. <br/> <br/>이번 동료 돕기 모금에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과 정의근 의장 등 군의원이 동참했다. <br/> <br/>군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2015년 4월과 지난 1월에도 공무원 노조와 함께 자율적인 모금활동에 나서 투병 중인 동료공무원 9명의 고통을 십시일반 나누는 동료애를 발휘하기도 했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95.txt

제목: 文대통령 "동원 가능한 정책 총동원, 저출산 해결을"  
날짜: 20170831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31191015002  
ID: 01100701.20170831191015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span class='quot0'>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span class='quot1'>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span>”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br/> <br/>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국회가 월요일에 회의를 열며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그 준비를 일요일에 출근해 해야 한다며 국회가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회의를 열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 <br/> 직원들과 점심식사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부처별 업무보고일인 31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br/>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br/>복지부는 이날 아동의 연령대별로 양육·돌봄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춘다. 보육·돌봄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만1000명의 보조·대체 교사를 배치한다. 출퇴근 시간 및 방과 후 시간 등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도 운영한다. <br/> <br/>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까지 확대된다. <br/> <br/>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9월 중순쯤 852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계획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br/> <br/>‘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산업안전·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된다. 또 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포괄임금제 규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국한됐던 여성 고용정책을 직장 복귀 후 적응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을 올해 상반기 59.2%에서 2022년 63%로 끌어올리고 직장 적응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r/> <br/>김준영·박성준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96.txt

제목: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  
날짜: 20170831  
기자: 박성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31190913001  
ID: 01100701.20170831190913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 포스텍(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br/> <br/>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임 본부장은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규명한 생명과학 권위자로, 뛰어난 연구 역량과 관리 역량을 겸비해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과기 분야 혁신을 이끌 적임자</span>”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신임 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br/> <br/>염 내정자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해왔다. 박 대변인은 “<span class='quot0'>기초과학 분야의 새 세대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span>”라고 설명했다. 염 내정자의 경우 그간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원로학자 중에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현역 과학자를 선택해 과학계와 소통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br/> <br/>백 내정자는 식물 성장과 생존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연구에 몸담은 생명과학자로, 왕성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신진 과학자 양성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논문 중복게재 흠결이 있는데, 청와대는 “<span class='quot1'>중복게재한 논문을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검증 과정에서 알았지만 여러 덕목 때문에 발탁하게 됐다</span>”고 해명했다. <br/> <br/> ◆임대식 본부장=△1965년 서울 △서울 영일고·서울대 미생물학과 학·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 생화학 및 분자유전학 박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 <br/> <br/>◆염한웅 부의장=1966년 서울 △서라벌고·서울대 물리학과·포항공대 물리학 석사·일본 도호쿠대 물리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br/> <br/>◆백경희 위원장=1956년 서울 △숙명여고·서울대 미생물학과·미국 MIT 분자생물학 박사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1-197.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포도알이 알알이… 건강이 여문다  
날짜: 20170831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31100253001  
ID: 01100701.20170831100253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과일은 무엇일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이 벽화에는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포도가 얼마나 오래된 과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래된 과일을 지금 이 시대, 이 계절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기만 하다. <br/> <br/>포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입맛을 돋우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즙을 내고 잼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br/> <br/>비타민제나 감기약 등 약을 복용할 때 대개 생수와 함께 먹기를 권장한다. 하지만 포도 주스는 예외다. 약을 포도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약 효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포도 주스의 성분이 장내에서 분비되는 약효를 낮추는 효소의 활동을 막기 때문이라고 한다. <br/> <br/>포도에 들어 있는 천연 비타민들은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의 균형을 맞춰 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들 비타민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장애가 일어난다. 특히 사춘기, 임신기, 수유기, 과로할 때, 노년기, 결핵이나 류머티즘 환자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비타민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천연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포도 주스를 마시거나 적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성인병의 대표 주자 암과 심장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쉽지 않으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이다. 한때 포도에 함유된 성분이 암과 심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여 집집마다 적포도주를 갖춰 놓고 자주 마시기도 했는데, 포인트는 늘 꾸준하게 섭취하는 데 있다. 하루에 한 잔 정도의 포도주나 포도 주스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포도에는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등의 다양한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들 유기산이 체내에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분을 제거해 건강을 유지시킨다. 유기산은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과일, 특히 싱싱한 포도나 포도 주스, 포도주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서 질병의 원인인 독 성분을 제거한다. <br/> <br/>포도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포도당이 많아 밥이나 빵 등 주식 대신 포도만을 먹어도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 포도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아서 즉시 에너지로 바뀌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포도를 먹으면 포도당과 과당이 바로 소화 흡수되므로 피로할 때 먹는 한 송이 포도는 다른 식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효력을 나타낸다. <br/> <br/>포도에는 체내의 열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날 때나 체했을 때 먹으면 효과적이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음식물 대신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섭취하면 좋다. 빈혈, 수술 후 피로 회복, 식은 땀 흘리는 아이나 원기가 없는 사람에게도 포도 주스가 효과적이다. <br/> <br/>그러나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포도라도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포도즙을 마시면 변비가 생기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심한 소화기 궤양 환자도 포도를 피하는 것이 좋다. 포도주는 칼리, 칼슘, 사과산, 구연산, 포도산, 타닌, 비타민 류의 함량이 많은 알칼리성 술로 위산이 과다할 경우 반주로 한 잔씩 하면 증상이 서서히 완화된다. <br/> <br/>포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므로 농약 오염이 염려될 때는 미지근한 물에 20~30분간 담가 두었다가 씻어 먹거나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세척한다. 포도 껍질에 묻어 있는 하얀 가루 비슷한 것을 농약의 잔여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분이 포도 껍질의 바깥으로 배어 나온 것이므로 지나치게 씻어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br/>▲포도샐러드 <br/> <br/>재료 포도 5알, 키위 ½개, 토마토 1개, 양상추 70g 소스: 땅콩, 잣, 호박씨, 식초 1 큰술씩, 소금 약간 <br/>만드는 법 <br/>①키위와 토마토는 반달모양으로 썰고 포도는 2등분한다. ②양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 찬물에 담근다. ③땅콩, 잣, 호박씨 식초 소금은 믹서에 갈아 소스를 만든다. ④접시에 과일과 양상추를 담고 소스를 뿌린다. <br/> <br/>▲포도 송편 <br/> <br/><재료>포도주스 1컵, 쌀가루 2컵, 깐밤 5개, 통깨 1홉, 꿀 1작은술, 식용유, 참기름, 소금 <br/><만드는 법>①쌀가루에 포도주스를 끓여서 넣고 익반죽을 한다. <br/>②밤은 껍질을 벗기고 삶아 으깨고 통깨는 소금을 넣고 으깨어 꿀로 버무려서 송편 속을 만든다. <br/>③송편을 예쁘게 빚어서 찜통에 찐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1-198.txt

제목: 몸 속 들어가 검진 ‘초소형 로봇 닥터’  
날짜: 20170831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31031252002  
ID: 01100701.2017083103125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31일 오후 9시50분 EBS1 ‘과학 다큐 비욘드’(사진)에서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로봇 닥터를 소개한다. <br/> <br/>사람들에게 ‘의사’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흰색 가운과 청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200년 전 발명돼 지금까지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기기인 청진기.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 청진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 <br/> <br/>초소형 로봇 닥터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몸을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봇 닥터는 단순한 검진에서부터 암 치료까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알약 크기에서 주사로 투입하는 나노 단위의 캡슐 로봇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전 세계에서 진화 중인 마이크로 의료 로봇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본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1-199.txt

제목: "여성은 스트레스, 남성은 암 발병 경험이 최대 '자살' 위험요소"  
날짜: 20170830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830110854001  
ID: 01100701.201708301108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성별에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위험요소가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남성은 암 발병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자살 시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김덕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과 교수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년~2012년)에 참여한 사람 중 자살을 시도했던 294명(남 106명, 여 188명)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요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이번 조사에서 남성은 암 발병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 시도 확률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이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고 답한 여성에 비해 자살 시도 확률이 3.6배 확률이 높았다. <br/> <br/>여성은 남성과 달리 흡연도 자살 시도 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다. <br/> <br/>여성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자살 시도 확률이 2.3배 높았다. <br/> <br/>연구진에 따르면 남녀 공통으로 나타난 자살 위험요소는 ‘학력 수준’과 ‘우울증여부’였다. <br/> <br/>초등학교만 졸업한 남성과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남성과 여성보다 자살 시도 확률이 각각 5.8배, 3.8배 높았다. <br/> <br/>우울증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 시도 확률이 각각 3.3배, 3.1배 높았다. <br/> <br/>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8.4명이 자살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br/> <br/>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과 신설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br/> <br/>김덕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김경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자살 위험 고위험군이 안고 있는 개별 위험요소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맞춤형 관리를 한다면 효과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공중보건저널’(BioMed Central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